불가 최초생수에 희석하여 사용하는 관불 · 관욕 전용 관불수향
올곧은 마음으로 참된 공양물만을 만드는
능인향당 향 · 조각 · 공양물
본사 02)3663-6777 직영매장
(조계사 맞은편 02-730-6888)

# 현대불교

신상품 LED인등 · LED전구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제 706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불기 2552년 11월 19일(음력 10월 22일) 수요일(주간)

• 불교의 생활화
• 불교의 현대화
• 불교의 세계화



"매순간 임제의 오역죄 지어라"
4 종정 · 방장 동안거 결제법어



"차별심 버리면 행복해"
13 설법전-고우 스님



"활구 깨쳐야 공부 돼"
14 선지식-원각 스님



오바마 美 당선 불자 '후광'
7 해외불교




무자년 동안거 입재를 하루 앞둔 11월 11일, 오대산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맨 위)이 한국전쟁 때 소실됐던 금강선원을 복원해 10월 18일 개원한 만월선원에 방부 들이러 온 운수납자들을 맞이하고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 겨울보다 추운 경제한파, 세상살이 힘들지만…

# '안살림' 챙겨 '봄꽃' 피우자

날씨가 춥다. 온도계 눈금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가도 폭락하고, 기업 실적과 가계 형편도 줄다 못해 삶의 의욕도 메말라 가는 냉혹한 겨울 앞에 서있다. 존재의 이유를 상실한 이들은 목숨마저 끊는 잔인한 시절이다.

2008년 원단(元旦) 떠오르는 태양과 함께 품었던 꿈을 언제 접었던가? 이제는 한 해를 마감할 시점이나 경제공황을 비롯한 정신적 충격들이 숨 한번 돌릴 여유조차 갖기 힘들게 만든다.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인간 군상은 가지가지다.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구조조정 하고, 개인은 씀씀이 줄이는 것을 시작으로 자기 생활에 잘못은 없는지 돌아본다. 두 가지 유형에 핵심은 하나다. 외부에서 해결하다 안 되면 내부에서 해법 찾기다.

개인이나 기업이나 '생존'을 화두로 살고 있지만 정작 그것이 화두인 줄 알고 사는 경우는 드물다. '잘' 살고 싶다는 욕심은 '잘'과 '잘못'의 분별심을 만들고 고통을 낳았다. 냉혹한 현실 속에 너도나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그것이 모두 마음에 달렸다는 사실은 모르는 이도 많거니와 아는 사람도 실천하기 어렵다.

바람에 펄럭이는 깃발을 두고 깃발이 움직이는지(幡動), 바람이 움직이는지(風動) 실랑이를 벌이던 이들에게 혜능 대사가 마음이 움직이는 것(心動)이라 한 일화는 유명하다. 밖에서 찾지 말고 안으로 돌리라는 간곡한 당부였다.

이런 가운데 불기 2552년 11월 12일(음력 10월 15일) 동안거 입제일을 맞아 전국 100여 개 선원 2200여 수행자들과 도심 시민선방 재가자 등 사부대중이 불퇴전의 용맹정진에 돌입했다.

풍혈 선사의 "만약 하나의 티끌이 일어서면 국가가 흥성하지만 그 하나가 일어서지 못하면 국가가 망한다"는 말에 설두 스님이 주장자를 치켜들고 "같이 살고 같이 죽을 수 있는 납자가 여기 있는가"라고 답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경제 위기와 대북관계 경색 등 나라 안팎이 어수선한 때여서 일까? 동안거 결제 법회에 모인 대중들의 당당한 풍모는 풍혈일진(風穴一塵) 공안이 현현한 모습이다.

한암 · 탄허 스님의 선맥을 이은 오대산 월정사(주지 정념)도 입제식을 봉행하고, 동안거 시작을 알렸다. 한국전쟁 때 소실된 금강선원을 복원해 탄허 스님이 주석했던 방산굴 앞에 조성한 만월선원도 이날 첫 방부를 들였다.

방부 들인 운수납자는 만월선원에 17명, 오대산 산중 사암에 방부 들인 대중은 177명이다. 출가자는 비구 77명, 비구니 34명으로 111명, 재가 종무원 66명도 2009년 2월 9일 해제일까지 함께 정진한다. 입제법회에 동참한 월정사, 상원사, 육수암, 지장암 등 오대산 일대 산중 사암 수좌 120여 명의 눈초리는 예사롭지 않았다. 세상의 모든 전도몽상(顚倒夢想)을 당장이라도 꿰뚫을 태세였다.

입제법회 법문은 각수 스님(청량선원 선덕)이 낭독한 한암 스님의 법문, '무설무문(無設無聞)이 진설진문(眞設眞聞)'으로 대신됐다. "말 없음이 참 법문을 듣는 소식"이라는 법문은 죽은 한암 스님이 산 수좌들에게 법문하는 아이러니처럼 깨침은 생멸을 초월한 것임을 반증한다.

주지 정념 스님은 인사말에서 "치열한 산중의 정진 열기가 끝없는 법향을 피워 경제공황, 정신적 공황으로 고통 겪는 중생의 정신을 향기롭게 만들자"며 "해제 때 크게 웃는 소식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4조 도신 스님 전기에는 도적들에 79일간 포위된 길주성에 우물마저 모두 말라버려 성안 백성들이 모두 죽게 됐을 때 정진으로 극복한 일화가 있다. 도신 스님은 성 밖에서 소식을 접하고 성안에 들어가 백성들에게 '마하반야바라밀'을 독송시켰다. 얼마나 지났을까? 성벽 위를 본 도적들은 신병(神兵)을 보고 도주했다. 말라있던 성안 우물도 물이 솟아 넘쳤다는 이야기다.

미국발 금융위기와 국내 실물경기 침체라는 우리가 처한 현실은 성 밖 도적과 성안 우물이 말라 고통받던 길주성 백성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이제 우리가 사는 방법은 수행정진에 매진하는 길뿐이다. 세상이 추워질수록 각자의 안 살림을 철저히 단속하자. 봄꽃은 피고야 말 것이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 "호국불교는 공동선 구현에 힘쓰는 것"

## 월운 스님, '우리 민족 한마음 포럼'서 기조강연

불교 원불교 천도교 개신교 카톨릭 등 7대 종교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민화합을 위한 종교인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에서 호국불교를 강조한 글이 발표돼 눈길을 끈다.

한국기자협회(회장 김경호)가 11월 13~15일 제주 KAL호텔에서 '개최한 제74차 기자포럼 '국민통합과 대화화합을 위한 우리 민족 한마음 포럼'에서 월운 스님(동국역경원장)은 '민족수난기의 호국불교'를 주제로 기조강연 했다.

스님은 "불교는 발생동기부터가 평화로운 상황에서 출발해 평화를 추구하는 종교"라며 호국불교의 기원을 <기세경>의 설화로 설명했다. 인류 최초의 왕 삼만다(三滿多, Samanta) 이야기는 왕과 붓다가 같은 뿌리이며,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

스님은 "붓다와 왕이 갈린 것은 어머니의 인자함과 아버지의 엄함이 있는 것처럼 같은 목적을 위해 다른 기능을 하는 것"이라며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공권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고귀한 식견을 지닌 정신지도자들이 나선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스님은 "능력 있는 이는 활동의 폭을 넓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크게 힘쓸 수 있을 것이요, 그렇지 못한 이들은 자신의 역량에 따라 자기 힘을 보태는 관습을 익혀둬야 할 것"이라며 "무능력한 이는 최소한 남에게 피해주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공덕을 쌓는 한 방법일 것"이라고 세간의 상황에 일침을 놓기도 했다.

월운 스님은 "호국불교도 이와 같다"며 "국리민복에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발견됐을 때 공동선의 구현을 위해 역량에 따라 대치함을 수행의 한 덕목으로 삼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동섭 기자

첫서리 맞은
금강선원 뽕잎차
현대 불교 신문 연재 | 초종스님의 뽕잎차 이야기
당뇨병, 고혈압, 혈액순환
야생 수제 구증구포 뽕잎차

뽕잎차 주문 TEL 055) 931-95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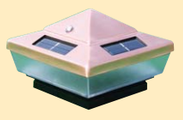
"숲 향산화 원액 100%"
청 다 향
덕유산 청다향 문의 055)941-1083
부처님 제일공양
한국최초 식품과학
연구분석(동국대)
51가지 향기판명


전기가 필요없는 태양광 정원등
현대불교신문 독자분께 한하여 올해 12월 말까지 할인가로 드립니다.
◆원리 : 상단에 부착된 태양전판이 태양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여 저장해두었다가 밤에 자동으로 불이 켜진다.
◆장점 : · 전기료가 들지않는다. · 전선이 없으므로 배선공사가 필요없다.
· 전구수명은 반영구적이다. 자동으로 충전과 점등이 되므로 부재시 방범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태양광 정원등(1) 230cm 600,000 → 360,000
태양광 정원등(2) 150cm 150,000 → 110,000
태양광 정원등(3) 100cm 130,000 → 100,000
태양광 정원등(4) 103cm 200,000 → 150,000
태양광 잔디등(小)
88cm 80,000 → 56,000
53cm 55,000 → 33,000
53cm 55,000 → 33,000
49cm 55,000 → 28,000

50cm 100,000 → 70,000

17cm 55,000 → 33,000
문주 및 데크등

백색, 변색 55,000 → 33,000

14×14×15cm 55,000 → 33,000
태양광 매립등

□50ø / 폴리

□20ø / 스텐+알루미늄+유리

□180ø / 스텐+알루미늄+유리
태양광 벽등

100,000 70,000

80,000 56,000

55,000 33,000
스포트라이트
조형물, 수목투광 150,000 → 110,000

코스모스환보
본사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187-7 대우테크노 A동 402호 TEL 032)670-8998,8268 / FAX 032)670-8368
http://www.momopopo.com 계좌번호 : 농협 216014-51-257956 (예금주:오승열)

## 죽비와 목탁



박지원 부산주재 기자
hdbp@hanmail.net

### 포교 대상은 불자가 아닙니다

부산에서 9월 26일부터 10월 2일까지 7일에 걸쳐 세계사회체육대회가 열렸다. IOC 공식후원을 받는 세계적 행사로 100여 개국에서 선수와 임원이 참여해 각 나라의 전통경기를 선보이며 건강과 우애를 다졌다.

이 대회에 부산지역 1500개 교회에서 1만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입국하는 각 나라 선수들을 공항 환영식에서부터 경기장 응원은 물론 공항 환송식까지 열성적으로 참여했다. 불교계에서는 그저 수수방관 했다.

대규모 스포츠행사에 대한 불교계의 이런 무관심은 포교 부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다. 스포츠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불교는 타종교에 비해 관심과 참여율이 특히 저조하다.

그럼에도 교계에서는 포교에 주력해야 한다고 늘 강조한다. 포교의 대상은 불자가 아니라 무종교인이나 타종교인이다. 우리 주위를 둘러싼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조차 갖지 않으면서, 어떻게 시민을 상대로 포교를 하겠다는 것일까. 천 년 전에도 천 년 후에도 변함 없을 경전만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일반 시민들이 무얼 하고 어떤 생각으로 사는지에 먼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한다.

지난 여름 온 국민을 열광케 한 베이징올림픽 때 조계종 포교원은 이례적으로 중국 베이징 경기장까지 찾아가 열띤 응원을 벌였다. 그리고 TV 중계에서 양궁 선수들이 손목에 염주를 끼고 활시위를 당기는 모습은 전 세계인을 향한 포교가 됐다.

유럽리그에서 활약하는 축구선수 박지성과 메이저리거 박찬호, 국민타자 이승엽도 불자이지만 국민들에게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다. 이들 유명인의 친근하고 신뢰감 있는 이미지를 포교에 십분 활용할 수 있는데도 말이다.

지난 달 열린 부산국제영화제 기간에는 국내외 스타급 배우들이 부산을 찾았다. 이때 교계에서 유명 배우들을 사찰에 초청해 차담을 나누거나 템플스테이를 경험하게 했다면 좋은 포교의 한 방편이 됐을 것이다. 또 해외 불교영화 출품작을 사찰을 배경으로 제작하거나 사찰에서 상영하자는 제안도 해볼 만하다.

부처님께서는 "전법을 위해 길을 떠날 때, 두 사람이 함께 가지 말라"고 하셨다. 따로 가야 더 많은 사람을 포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한 사람에게 법을 전하면, 이들은 수만, 수십만 명의 청소년 팬들에게 불교를 알릴 수 있음을 기억하자.

## "심려끼쳐 죄송 … 꽃피는 봄날 온 것 같아"



###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지관 스님 예방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11월 11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했다.

박희태 대표는 "불교계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큰 아량으로 이해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이제 다시 꽃피는 봄날이 온 것 같다. 이런 관계가 지속됐으면 좋겠다"고 발원했다.

또한 고흥길 위원장(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은 "종교차별 관련 법안은 야당에서도 반대하지 않으니 이번 국회 회기 내에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관 스님은 "교회내 투표소 설치로 인해 교계에서 난처한 상황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전혀 몰랐다.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최병국 의원(국회 정각회장)은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 '사찰문화재 보존 및 관리법' 제정 등 처리

### 179회 중앙종회 내년 예산 274억 확정… '진흥원특위' 구성도

조계종 제179회 중앙종회 정기회가 내년도 중앙종무기관 예산 274억원을 확정하는 등 모두 17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종정감사를 위해 11월 6일 휴회됐다가 10일 속개된 제179회 중앙종회(종회의장 보선) 정기회에서는 '2009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을 안건으로 상정해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이 일반회계 197억, 특별회계 77억원 등 모두 274억원으로 확정됐다. 내년 예산은 올해와 비교하면 일반회계의 경우 4.2%, 특별회계는 0.13% 증가한 것으로 사실상 동결된 것이다.

이에 앞서 중앙종회는 종헌 개정안을 다룰 방침이었으나, 의원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종법 개정안을 먼저 다뤘다. 이에 따라 '신도법'과 '산중총회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하고 '승려법' 개정안은 표결 끝에 폐기했다. 중앙종회는 또 '중앙종회 의원선거법' 개정안과 '승려노후복지법' 제정안, '사찰부동산관리법' 제정안과 '사찰등록및관리법' 제정안은 다음 회기로 이월했다.

#### # '사찰문화재보존및관리법' 제정

특히 중앙종회는 총무원장이 제출한 '관람료관리법' 폐지 및 '문화재보유사찰보존법' 제정안에 대해 '관람료관리법'을 폐지하고 '문화재보유사찰보존법' 제정안을 '사찰문화재보존및관리법'으로 명칭을 수정해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사찰 문화재의 보존, 유지, 관리 및 문화재구역 입장료에 관한 사항을 정한 '사찰문화재보존및관리법' 제정안은 국립공원입장료 폐지 이후 시민단체들의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회계투명화와 관람료징수 매표소 이전에 대한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입법된 것. 이 종법은 기존 '관람료위원회'의 명칭을 '문화재보유사찰위원회'로 변경했다.

#### #법규위원 등 인사관련 안건 처리

중앙종회는 인사 관련 안건들도 상정해 처리했다. △법규위원회 위원에 무상, 평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탁연 △종립학교관리위원회 위원에 운달 스님을 선출하고 △교육원이 제5회 고시위원회 위원에 위촉한 지환 · 지현 · 종호 · 지안 · 종석 · 성진 · 종묵 · 본각 · 지형 스님에 대해 동의했다.

#### # '진흥원제자리찾기특위' 구성

중앙종회는 특별위원회 구성과 결의문 채택 등 안건도 처리했다.

의원스님들은 '대한불교진흥원의 제자리 찾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위원장 의연 스님과 함께 현조 · 각원 · 진화 · 선문 스님을 위원으로 선임했다. 종회의원 무자 스님은 제안설명에서 "진흥원은 불교를 위해 사업단체를 구성한 것인데, 본의 아니게 모든 재산권의 소유가 종단으로부터 분리돼 삼보정재를 망실하는 모양새가 됐다"고 설명했다.

중앙종회는 또 보타사 마애불 훼손 논란과 관련 '고려대 기숙사 신축 관련 중앙종회 결의문'과 '팔공산 (갓바위 부처님) 케이블카 설치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김성우 기자 buddhapia5@hanmail.net

## 불학연구소, 조계종 '총림' 조명 토론회

### 11월 28일, 한국불교역사기념관 국제회의장서

선원 · 강원 · 율원을 모두 갖춘 종합승가도량 총림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 미래를 조명하는 토론회가 열려 눈길을 끈다.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소장 현종)는 11월 28일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총림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나아갈 길'을 주제로 조계종단의 총림을 조명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행사는 해인사 해인총림(방장 법전), 송광사 조계총림(방장 보성), 통도사 영축총림(방장 원명), 백양사 고불총림(방장 지종), 수덕사 덕숭총림 등 조계종 5대총림의 미래상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영식 연구교수(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가 '중국불교의 총림', 김상영 교수(중앙승가대)가 '한국불교의 총림', 고영섭 교수(동국대)가 '조계종단 총림의 역사와 문화', 종묵 스님(해인사승가대학 강사)이 '총림의 현황, 나아갈 방향'을 발표한다.

조동섭 기자

## "회암사 유물찾기 본격 막 올라"

### 11월 13일, 회암사 유물반환추진위 발족

인도 지공 화상이 창건해 나옹 · 무학 스님 등을 배출한 조선시대 최고 국찰 회암사 유물반환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문화재제자리찾기운동본부(사무총장 혜문)는 11월 13일 양주 회암사에서 종교 ·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한 회암사 유물반환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발족했다. 인묵 스님(봉선사 주지), 김의정 회장(조계종 중앙신도회), 김성수 국회의원, 임충빈 양주시장 등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회암사는 보우 스님이 문정왕후 후원에 힘입어 조선불교 중흥의 기치를 휘날린 근본도량이었으나, 문정왕후 사후 유생의 보복으로 방화가 이어지면서 수많은 문화재와 전적, 사료 등이 모두 소실됐다.

회암사 유물인 약사삼존도는 국립중앙박물관과 일본 도쿠가와미술관 등에 보관됐고, 석가삼존도는 미국 뉴욕버크 컬렉션이 소장 중이다. 청동 발우와 지공 화상 비편은 경기도박물관과 동국대박물관 등에 전시돼 있고, 은제도금라마탑형사리구는 미국 보스턴미술관에 보관 중으로 유물 모두가 뿔뿔이 흩어졌다.

혜문 스님은 "각지에 흩어진 문화재들을 '제자리로 환원'해 회암사의 역사적 가치와 위상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지하 1층, 지상 2층 전체면적 3308㎡ 규모로 회암사지 박물관을 건립 중이다. 조동섭 기자

## 조계종, 미얀마 사이클론 피해 구호식량 전달

5월 사이클론으로 100만명 이상의 사상 · 이재민 피해를 입은 미얀마에 조계종 차원의 공식지원이 시작됐다. 재경 스님(총무원 사회국장), 법산 스님(동국대)을 비롯한 조계종 대표단은 11월 23일 미얀마 빈사루 지역에서 미얀마 테인세인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구호 식량, 지원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지원사업은 한화 7000만원 상당의 식량 지원과 1억5000만원 상당의 병원 · 학교 건립을 골자로 한다.

한편, 병원불자연합회(회장 유재환 박사)도 조계종 긴급구호사업 일환으로 12월 24~28일 11명의 의료진을 미얀마로 파견해 해외의료봉사를 전개할 예정이다. (02)2011-1833 노덕현 기자

**현대불교 영상사업 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각과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문의 : 02-2004-8279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서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 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김봉환(前 KBS/동아TV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김송호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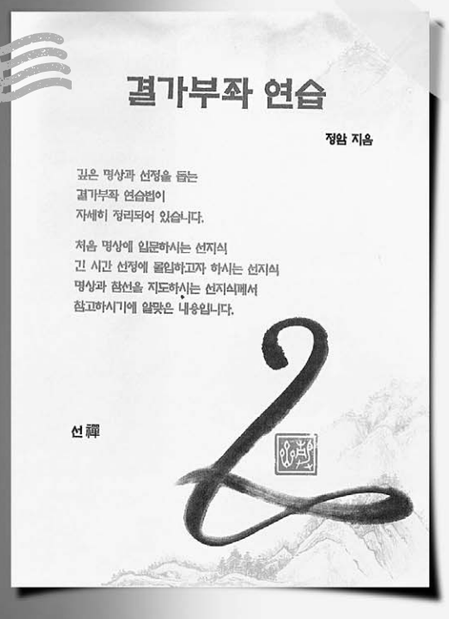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5199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세시간 결가부좌의 즐거움

# 결가부좌 연습

신간




저자 정암 스님은
8세에 입산수도를 시작으로 제방 선지식에게 명상과 참선수행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십 여 년 동안 체득하고 연구하며 지도한 경험을 바탕으로 굳은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결가부좌를 할 수 있고, 세 시간 결가부좌를 성취할 수 있으며, 결가부좌 정진으로 건강한 몸과 지혜로운 마음이 함께 하는 자재인생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이 책을 저술했습니다.

21세기 현대인의 심신양생을 돕는 여덟 가지 불이양생법: 차훈명상, 불이태극권, 차훈요가, 장생다도, 양생소, 불이경전, 유마선, 하루단식을 체계화했습니다. 그리고, 유마경의 불이사상 연구로 북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 결가부좌의 수승한 공덕 | 길상좌(吉祥坐)와 항마좌(降魔坐)

붇다의 혜명을 반야공관(般若空觀)의 입장에서 전개한 대선지식 용수보살(龍樹菩薩)은 결가부좌가 참선수행자의 가장 중요한 좌법[앉는 법]임을 그의 저서 대지도론(大智度論) 제7권에서 밝히고 있다.

모든 앉는 법에서 결가부좌가 가장 안온하여 피로하지 않다. 결가부좌가 좌선수행하는 선지식의 좌법이다. ……
결가부좌는 참선수행자의 좌법으로 깨달음[도법(道法)]을 성취하는 좌법이다. 그래서 마왕(魔王)이 그 모습을 보면 마음에 두려움을 일으킨다. … 마왕이 결가부좌하고 있는 참선수행자의 그림만 보아도 두려움의 근심으로 불안해하는데 하물며 깨달음을 성취하려는 선지식이 앉는데 있어서 결가부좌의 좌법을 택하지 않겠는가!

**결가부좌연습 1** 한기정화
결가부좌 연습에 들어갈 때 먼저 생명체의 주요 지점인 목 부위, 허리 부위, 무릎 부위, 발바닥 부위의 한기를 정화한다.

**결가부좌연습 2** 근육이완
근육이완 수련은 결가부좌 자세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근육을 이완하는 과정이다.

**결가부좌연습 3** 완성자세
몸의 근육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게 상호작용 관계로 형성되어 있다. 결가부좌 자세는 주로 골반을 중심으로 아래로 발, 위로 머리와 연결되어 있는 근육의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신체근육의 특성을 잘 고려하면서 결가부좌 자세를 만들어갈 때 결가부좌의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도 자연스럽게 기혈이 순환될 수 있게 된다.

**결가부좌연습 4** 한 시간 결가부좌
완성자세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한 시간 결가부좌 관문을 통과한다. 모두 여덟 과정을 순서대로 수련한다. 먼저 첫 번째로 도인호흡과 가슴보기를 수련한 다음 이어서 도인호흡과 윗배보기, 도인호흡과 아랫배보기, 도인호흡과 명문보기, 도인호흡과 골반보기, 도인호흡과 무릎보기, 도인호흡과 발바닥보기, 도인호흡과 단전보기 순으로 수련한다.

**결가부좌연습 5** 두 시간 결가부좌
두 시간 동안 결가부좌를 유지하면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발바닥부위 현상, 발목부위 현상, 교차부위 현상, 무릎부위 현상, 대퇴부부위 현상, 고관절부위 현상, 허리부위 현상, 다리마무 현상, 가려운 현상, 호흡장애 현상, 상기충혈 현상과 그 밖에 현상들에 상응한 대처 방법을 주요내용으로 정리했다.

**결가부좌연습 6** 세 시간 결가부좌
현실의 고락변화를 당연하게 받아드리는 마음가짐, 결가부좌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이 자체가 바로 나와 남을 이롭게 하는 정진이 된다는 마음가짐, 의식이 사물과 대응하면서 다양한 분별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삶 그 속에 항상 분별상을 초월한, 생사를 초월한 본래면목이 확연히 깨어 있다는 마음가짐, 이 세 가지의 마음가짐이 잘 유지되고 있을 때 세 시간 이상의 순일한 결가부좌 정진력을 성취하게 된다.



**결가부좌 어깨서기와 결가부좌 머리서기**
결가부좌의 정진자세는 바르게 앉은 자세를 주요 방법으로 어깨서기 결가부좌, 머리서기 결가부좌, 누운 자세 결가부좌, 엎드린 자세 결가부좌, 손 짚고 선 결가부좌, 엉덩이로 선 결가부좌, 옆으로 선 결가부좌 등 다양한 자세가 있다.

## 결가부좌 선양회

결가부좌 정진으로 건강한 몸과 지혜로운 마음을 성취하는 수행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결가부좌선양회를 결성하였습니다. 제1회 결가부좌 삼일정진을 **2009년 4월 18일 ~ 20일** 불이양생치악산수련원에서 개최합니다.
뜻 있는 많은 선지식께서 동참하시어 결가부좌 정진력 향상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결가부좌선양회 회원일동 합장

■ 결가부좌 상담 : 채선 선생님(한국불이양생교육원장) 010-6720-2115

결가부좌선양회 www.결가부좌.com / www.shuangpan.com
전화 052)260-1636 / 팩스 052)261-1635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46-7 박일진수학학원 3F

# 북한산, 삼각산???

## 서울 강북구와 경기 고양시 실랑이

"북한산은 일본 강점기 경성제국대학 교수였던 일본인 이마니시 류에 의해 불린 일제 잔재로 삼각산이라 불려야 맞다."

"아니다. 삼각산은 백운대, 인수봉, 만경대 3개 봉우리만 지칭한 것으로 28개 봉우리를 모두 아우르는 이름은 북한산이다."

서울 북한산의 명칭을 두고 삼각산을 주장하는 서울 강북구(구청장 김현풍)와 북한산을 고수하는 경기 고양시(시장 강현석)가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강북구는 11월 10일 프레스센터에서 북한산 명칭의 삼각산 개정을 위한 '삼각산 제이름 찾기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송석구 총장(가천의과학대)이 '왜 삼각산의 이름을 다시 찾아야 하는가'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홍윤식 명예교수(동국대)가 '이마니시 류의 북한산설 재고', 김주환 교수(동국대)가 '지형학적으로 본 삼각산', 오경후 선임연구원(한국불교선리연구원)이 '삼각산 명칭에 대한 역사적 검토', 박경룡 회장(서울역사문화포럼)이 '삼각산 명칭의 정통성에 관한 고찰'을 각각 발표했다.

행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모두 일관되게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걸쳐 1000년 넘게 삼각산으로 불리다가 1916년 경성제국대 교수였던 일본인 이마니시 류가 총독부에 제출한 '경기도 고양군 북한산 유적 조사 보고서'를 시작으로 본래 명칭을 잃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의 주장은 본래 북한산이 맞다는 것. 정동일 위원(고양시 문화재전문위원회)은 <삼국사기>와 <조선왕조실록>을 근거로 "북한산 명칭은 삼국시대부터 사용됐다"고 반박했다.

한편 강북구는 구 차원의 삼각산 개명 캠페인과 함께 조만간 명칭 변경안을 서울시지명위원회와 중앙지명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고양시도 서울시지명위원회 등을 찾아 북한산 명칭을 고수할 뜻을 밝혔다. 사찰의 경우 북한산, 삼각산 명칭을 절 이름 앞에 쓰는게 관례. '삼각산 ○○寺'와 '북한산 ○○寺'는 어떻게 해야할까. 지켜 볼 일이겠다. **조동섭 기자**

# 은정불교문화진흥원, 115명에 장학금

## 15일 제7회 장학금 수여식 개최

남원 실상사 화엄학림이 '제3회 은정학술상' 수상자에 선정됐다.

재단법인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사장 자승)은 화엄학림 학인스님 6명에게 학술지원금 1000만원을 지원하는등 제7회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11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장학금 수여식에서 시상된 '은정학술상'은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 2006년부터 한국불교 학술 진흥을 위해 도입한 장학제도다. 이번에 수상자로 선정된 화엄학림 스님들의 연구 결과물은 <은정학술총서>로 출판될 예정이다.

이날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은 윤희조 연구교수(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와 최지연(동국대 박사과정 수료)씨에게 신진학자 육성 장학금 300만원씩을 전달했다. 또 불교계 단체자녀 4명, 대학원생 20명 등 모두 115명에게 1억 7000여 만원을 전달했다.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은 2002년부터 前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 스님(1937~2003)과 모친의 출연 재산을 기반으로 해마다 불교인재양성 장학금 1억여 원을 전달하고 있다. 또 불교계 운영 사회복지기관, 독거노인과 조손가정에 대한 지원을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자승 스님은 "내년에는 2억원 규모로 장학금을 확대하겠다"며 "CMS 자동이체, 전화요금 합산방법을 이용해 지속적인 후원 사업의 활성화에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다짐했다. (02)515-9351 **이상언 기자**

# 경제난·불교중흥 발원

## 천안 구룡사 법화경 사경대법회 1만여 명 동참
## 불자 가수들 '법화경 예찬 노래발표회'도 가져



11월 8일 천안 구룡사에서 열린 '법화경 사경 봉안대법회'에서 송춘희(사진 왼쪽)씨 등 8명의 불자가수들이 '법화경 예찬 노래발표회'를 갖고 있다.

국제적인 금융위기로 국내 경제가 IMF관리체제에 준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제난을 극복하고 불교 중흥을 발원하는 대규모 사경법회가 봉행됐다.

서울 법화정사(회주 도림)는 11월 8일 천안 세계불교수도원 구룡사에서 '<법화경> 사경 봉안대법회'를 봉행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사찰에서 모인 1만여 신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열린 법회는 입제식에 이어 <법화경> 독송 철야정진 및 봉안법회 등으로 9일 아침까지 진행됐다.

입제식에서 도림 스님은 "법화행자들의 서원을 모아 시대와 국가의 운명을 열어가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내년에는 구룡사 경내 5만여 평의 부지에 천불천탑을 봉안하고, 해외의 교포 청소년들을 위한 템플스테이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입재식에 이어 산사음악회를 겸한 '<법화경> 예찬 노래발표회'도 열렸다. 송춘희, 김국환, 남강수, 박정식, 신현돈, 김활선, 오시원, 진미령씨 등 8명의 불자가수들이 참가한 음악회에는 송춘희, 남강수씨 등이 2년여에 걸친 작업끝에 완성한 <법화경> 예찬송이 흥겨운 국악과 가요 반주와 함께 발표됐다.

송춘희씨는 "경제난으로 힘겨워하는 국민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 2년만에 개사 작업을 마무리하게 됐다"며 "이번에 발표된 노래들은 CD로 제작해 보급함으로써 <법화경> 사상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틀간의 법회 기간 동안 구룡사 도량에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서화문인들이 다수 참석해 가훈과 뜻 깊은 서예작품을 써주는 문화축제도 함께 열렸다.

한편, <인왕경> <금광명최승왕경>과 더불어 호국삼부경으로 불리는 <법화경>은 예로부터 국가와 민족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마다 독송 및 사경됐다. **김성우 기자** buddhapia5@hanmail.net




# 고대 기숙사 신축공사 문화재 영향검토 실시

개운사 문화재보호비상대책위(위원장 범해 · 개운사 주지)의 고려대 기숙사 신축공사장 점거 10여일 만에 성북구청이 문화재영향검토를 실시했다.

개운사 측의 요청에 의해 11월 13일 진행된 문화재영향검토에는 김성우 교수(연세대), 박경자 겸임교수(한양대), 김봉렬 교수(한국예술종합학교) 등 전문가와 개운사 측, 고려대, 현대건설 등이 참석했다.

이번 문화재영향검토 결과에 따라 서울시를 거쳐 공사진행 여부 등이 결정된다. **김진성 기자**

# 참여불교재가연대, "호법전문인력 키운다"

불교계 대표 재가단체 중 하나인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김동건)가 호법전문인력 양성에 나섰다. 참여불교재가연대는 조계종 포교원과 봉은사 후원으로 '디지털시대 호법전문 활동인력 양성과정'을 개설한다.

참가자들은 2008년 12월 5일~2009년 2월 13일 매주 금요일 △종교 현황 분석과 대응 전략 △언론의 이해와 PR전략 △사이버 홍보와 인터넷 블로거 △스피치와 성공하는 강의기법 등 총 12강 집중교육을 통해 전문가로 탈바꿈한다.

11월 10~26일 인터넷(www.buddha21.org)을 통해 접수가능하며, 모집인원은 총 55명으로 참가비는 5만원이다.(8강이상 출석시 전액환급) (02)2278-3417 **노덕현 기자**

# 사찰음식은 질병치유 위한 '도반'

## 단체 급식 중심 사찰음식 제안展 성료



사찰음식 제안展은 일반적이고 구입이 용이한 제철원료 식품을 중심으로 현대인의 건강한 식단을 선도하고자 한다.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 지관) 문화부(문화부장 수경)는 11월 12일 12시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 에메랄드 홀에서 '질병 치유를 돕는 사찰음식 제안' 展을 개최했다. 건강한 식단 신선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단체 급식 식단에 녹색 신호등을 밝힌다는 취지다.

일반인 입맛에 사찰음식은 심심한 첫 인상을 남기는 것이 당연. 사찰음식과 일반 음식의 차이는 '오신채(마늘, 부추, 파, 달래, 흥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 재료 고유 맛을 살려 정갈함을 나누고 본래 입맛을 되찾고자 불교계 사찰음식 전문가들이 팔을 걷고 나섰다.

전통사찰음식문화보존회 소속 스님들에 의해 제안된 이번 행사는 심혈관질환 · 비만 · 당뇨병 등 성인병 예방에 효과적인 사찰음식이 전시됐다. 식사와 함께 어울리기 좋은 조릿대차 · 느릅나무차도 선보였다.

정성과 배려를 양념으로 계절에 맞는 음식이 바로 보약이라고 전하는 사찰음식. 공양과 보시, 불교정신을 통해 바른 음식문화를 알리고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02)2011-1770 **가연숙 기자**

# '2008 올해의 재가불자상' 추천하세요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박동건)은 11월 13~22일 '2008 올해의 재가불자상' 대상자를 추천받는다. 2002년 창설돼 7회째를 맞는 이번 '올해의재가불자상'은 모범이 되는 재가불자를 선정해 재가활동을 장려해왔다. 2008년 한 해 동안 재가불자로서 주체적인 노력과 참여불교정신 실천으로 불교계에 바람직한 변화를 끼친 불자를 대상으로 하며, 후보자 개인이력서와 개인과 단체 추천서를 동봉하면 된다. 수상자는 2008년 11월 29일 오후 3시 참여불교재가연대 총회에서 시상 될 예정이다. 참여불교재가연대 사무처. (02)2278-3417 **노덕현 기자**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 매순간 임제의 오역죄를 지으라



## 법전 스님
조계종 종정 · 해인총림 방장

오조법연(五祖法演) 선사에게 어떤 납자가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임제문하의 일입니까?"

선사가 말했습니다.

"오역죄인이 우레소리를 듣느니라."

오역죄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해치며, 부처님 몸에 피를 내고 화합승단을 깨뜨리며, 경전과 불상을 불사르는 것 등으로 무간지옥에 떨어질 다섯 가지 죄업(罪業)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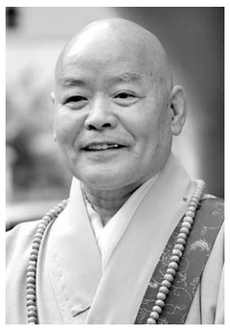
하지만 선가의 대종장인 임제 선사는 오역죄를 당신의 안목으로 새롭게 바꾸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일어남이 허공의 메아리인줄 알기에 어디를 가든지 아무 일 없는 것을 '아버지를 죽인다' 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그 탐내고 사랑함을 찾아보아도 모든 법이 빈 모양(空)임을 알기에 어디든지 집착하지 않는 것을 '어머니를 해친다' 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몸에 피를 낸다' 는 것은 우리들이 청정한 법계에서 한 생각과 마음이 콱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화합승단을 깨뜨린다' 는 것은 그대들의 한 생각과 마음이 번뇌에 매여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일입니다. '경전과 불상을 불사른다' 는 것은 인연이 공(空)하고 마음과 법이 공(空)함을 알고서 일념이 되어 초연히 아무 일 없으면 그것을 경전과 불상을 불사르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본래 오역죄는 짓지 말아야 할 죄이지만, 임제의 오역죄는 날마다 순간마다 지어야 하는 오역죄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좋은 오역죄를 지을 수만 있으면 범부니 성인이니 하는 이름에 절대로 구애받지 않습니다.

# 희망은 깨달아 부처 이루는 길



## 혜초 스님
태고종 종정 · 태고총림 방장

도가 사람의 마음을 넓히는데 있다는 것을 누가 믿으리요 (道在人弘孰可憑)
말과 행동은 무릇 서로 맞아야 하거늘 (發言須與行相應)
망령된 생각도 싹처럼 날마다 자라고 (妄念如苗逐日增)
탐욕의 마음은 바다같이 넓으니 어느 때나 만족할 수 있으리오.(貪心似海何時足)

움직이면 참에 어긋나고 고요하면 틀리니 (動則乖眞淨則差)
그렇다고 사량하는 바가 없으면 더욱 잘못이라 (非思量處更諐訛)
마음이 없으면 조사의 뜻에 맞지 않고 (無心未合祖師意)
생각 있음 또한 모든 번뇌의 마장이네. (有念盡爲煩惱魔)

이 게송은 태고 스님의 스승이신 석옥청공(石屋淸珙) 선사의 말씀입니다. 위의 것은 중생의 마음 바탕을 말씀하신 내용이고 아래의 것은 어디에도 머무는 바 없이 머물러야 하는 수행자의 정신자세를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요즘 세상이 매우 복잡하고 혼탁한 듯합니다. 우리 불교와 승문(僧門)마저도 적잖이 시끄럽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정도(正道)를 가지 않고 자기중심의 사도(私道)를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사물을 자기 주관적 입장에서 헤아리고 분별하는 차별적 집착을 일으켜 그 대상을 바르게 보지 못하는 편견을 변계소집성(偏計所執性)이라 합니다. 수행이란 모름지기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욕망을 타파하고 분별을 여의는 일이지요. 마음속에는 항상 분별심을 담고 있으면서 경학(經學)이나 몇 줄 배우고 이해한다고 하여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지요. 수행의 본지(本旨)는 깨달음에 있고, 깨달음의 목적은 생사를 초탈(超脫)하는데 있습니다. 늙으면 사람들이 천하게 보고(老去人之賤) 병들면 친한 사람도 멀어집니다(病來親也疎). 희망은 오직 깨달아 부처를 이루는 길이니 허송세월 하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십시오.

# 재물 · 여색 · 명리 버리고 공부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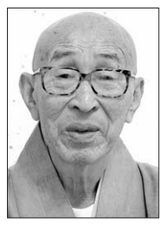
## 보성 스님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재물과 여색과 명리가 독사같다고 부처님과 조사가 말씀하셨으니 이 세 가지 나쁜 허물을 버리지 않고 공부하면 기름통을 머리에 이고 불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옛날에 어떤 스님은 절 짓는 일을 몹시 싫어했는데 상좌가 찾아와서 "저는 절을 지어도 시주를 상대안하고 열심히 정진만 하겠습니다" 하니,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개울을 건너는데 발에 물을 안 묻힐 수 있느냐"고 했습니다.

오늘 내가 뿌리 없는 나무 한 그루를 마당에 심어놓았으니 내년 봄에 꽃이 피고 안 피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부디 천리마에 채찍을 게을리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반연 모두 쉬고 헐떡이는 마음 없게 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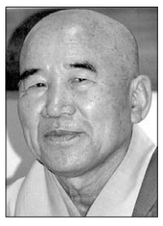
## 지종 스님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백암 산중에 상서로운 기운이 충만하니, 삼계제천(三界諸天)이 환희용약하고, 만상삼라(萬象森羅)가 골수(骨髓)를 여실(如實)히 드러내어 여러분을 반깁니다.

세상 만물이 모두 제자리에서 의연히 도리(道理)를 행하고 있는데, 오직 사람들만이 좌고우면(左顧右眄) 동분서주(東奔西走) 하고 있습니다. 천 가지 행과 만 마디 말을 너절하게 쏟아 내면서 제 잘났다고 설쳐봐야 모두 다 한 망태기 속에서 구르는 도토리와 같을 뿐입니다.

이번 동안거에는 내가 이 세상에 없는 것으로 여기고, 바깥 반연을 모두 쉬며, 안으로 헐떡이는 그 마음을 없게 하여, 심전(心田)에다 화두보검(話頭寶劍)을 세워두고 전광취모(電光吹毛)하여 크게 한번 웃길 바랍니다.

# 초심 다져 생사의 적과 용맹하게 맞서라



## 원명 스님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이제 밖으로 치닫는 마음을 다 잡아 정법의 깃발이 다시 휘날리게 해야 합니다. 작금은 서로서로가 자신들이 믿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상대를 무너트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경에 도달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수행자들이 본분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제를 통해서 각자의 초심을 다져 생사의 적과 용맹하게 맞설 때 비로소 소임을 다했다 할 것입니다.

일거수일투족 마음을 가다듬고 자신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최상의 자리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배고플 때 배고픈 줄 아는 것, 졸릴 때 졸리는 줄 아는 그 놈이 누구입니까? 그런 줄 아는 그것을 본래면목이라고 합니다. 일용 가운데 행주좌와 하는 일체처(一切處) 일체시(一切時)에 확인을 여실하게 해나가기 바랍니다.

월암당 정대 대종사 법문집

유려한 선시를 타고 흐르는
선가의 깊이와 풍요로움에 젖어들다 보면
어느새 깨달음이라는 완벽하고
단순한 이치에 다다르게 된다.

월암당 정대 | 신국판 변형 | 388면 | 값 15,000원

천지는 꿈꾸는 집이어니

우리 모두 꿈속의 사람임을 깨달으라.



- 누구도 따르지 못할 순간적 지혜를 가지신 분이자 반대편도 넉넉히 안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지셨던 분이다. – 명진 스님(봉은사 주지)
- 어느 자리, 누굴 만나든지 스님께서는 항상 주인이 되어 계셨다. – 원택 스님(고심정사 주지)
- 정대 스님 생각을 하면 떠오르는 그림이 딱 하나 있다. 웃음이다. 일 없이 태평가나 부르는 사물사람처럼 잘 웃는 모습이다. – 김성동(소설가)
- 스님은 젊은 시절의 처절한 수행경력에 뛰어난 정치력과 행정력, 리더십을 고루 갖춘 '시판의 선지식' 으로 손꼽을 만하다. – 서화동(한국경제신문 문화부 기자)
- 누구도 미워하지 않는다. 사심이 없다. 가식도 없다. 그것이 스님을 아끼는 이들이 많은 까닭이란다. – 임지은(월간 중앙 기자)

초판 '종이 위의 회향' |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1538 대실 2단지 청아람 203/1807 | T. 053_592_9155 / F. 053_592_9156

月庵堂 正大 大宗師
열반 5주기 추모법회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의 초석을 놓으셨고, 종단의 대화합을 여는 등
조계종의 반석을 다지신 불교계의 큰 별이셨던 월암당 정대 대종사

월암당 정대 대종사의 열반 5주기를 맞이하여 대종사님의 생전 원력과 사상을 기리기 위한 추모법회를 봉행합니다.

존경하는 제방의 고승대덕, 그리고 불자제현께서는 공사가 다망하시더라도 수희 동참하시어 함께 추모하여 주기시를 앙망하옵니다.

- 일시 2008년 11월 22일(토) 오전 11시
- 장소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본사 용주사

현장속으로

BBS 포교사업단 신묘장구대다라니 철야정진 수행현장



안병록 BBS 포교사업국장(가운데)과 강민구 포교사가 사경집 이운식 등 행사를 소개하고 있다.

# "신묘장구대다라니로 활력 충전~"

"지심귀명례~제망찰해 삼계도사…."

11월 8일 어둠이 가시지 않은 오전 7시 40분. 달리는 버스 안에서 예불 소리가 들린다. 흔들리는 차안에서도 다섯 대에 나눠 탄 200여 불자의 마음은 부동이다. 불교방송 포교사업단이 주관해 2005년 4월 팔만대장경 조각원찰 강화 선원사에서 시작된 'BBS 신묘장구대다라니 1만독 철야정진'이 제54차 순례로 홍천 연화사를 찾은 것이다. 손을 잡고 함께 온 중년의 부부부터 노모를 모시고 온 보살까지, 오랜 기간 함께 정진해 온 도반들, 새로 온 법우 할 것 없이 부처님 법을 나눈다.

버스 안에서 BBS포교사업단 팀장들은 바쁘다. 연신 위패종이를 나눠주고 다시 받는다. 철야정진에는 다라니 정근뿐만 아니라, 천도재도 진행되기 때문. 특히 이번 철야정진은 생전예수재도 함께 봉행될 예정이어서 더욱 분주했다. 분주함 속에도 차는 강원도 단풍 속을 달린다.

"남편 귀가가 늦어 된장 쫄 듯이 마음이 쫄아들 때 이 문구를 떠올리면 마음이 평안해져 집안도 화목해집니다."

피곤이 몰려올 즈음, 대중에게 한 줄기 웃음을 선사한 이는 안병록 BBS 포교사업국장이었다. 안 국장은 항상 마음을 다스려 귀의하라는 문구가 써진 다포를 보시하며 마음 씀씀에 대해 설명한다. 안 국장은 "일말의 사심이 있으면 공덕이 창밖 가을 산처럼 지옥문 앞에 쌓인다"며 무주상보시를 강조한다.

여차저차 정오가 다되어 갈 무렵, 차는 연화사 앞마당으로 들어섰다. 연화사 주지 화담 스님이 직접 마중 나와 보살들을 맞이한다. 여독을 풀며 점심공양을 마치자마자 입재식이 시작됐다. 성관 스님의 천도법문에 이어 참가자 모두 잠시 입정의 시간을 가졌다.

"부처님이시여 일체처 일체시 일체중생의 번민과 고뇌를 씻어 주시옵고, 사랑과 평화를 갖게 하옵소서."

발원문을 낭독한 참가대중은 도안 설호 혜강 무공 승우 해사 스님의 집전에 맞춰 진행된 예수재와 선망부모일체조상 천도재, 태장영가천도재, 수능합격천도재를 봉행했다. 정오부터 계속된 재는 저녁이 돼서야 끝을 맺는다. 긴 시간 동안 집전스님들은 계속 회심곡을 부르고, 법고춤과 바라춤을 추며 영가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천도재에는 탤런트 김혜옥, 이정길씨와 새박사 윤무부 교수도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이정길씨는 "한국전쟁 때 태어나 아버지를 전란 속에 잃었다. 아버님 생각에 효본찰 용주사를 자주 찾곤 한다"며 "부처님법과 효는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늘 천도재를 통해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BBS라디오 진행 등 대표적인 연예인불자 김혜옥씨는 "최근들어 바쁜 드라마 일정으로 신행생활을 잘 못하고 있다"며 "첫째도 초심, 둘째도 초심으로 불자들은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정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천도재는 예수재함 · 사경집 이운식과 다비로 마무리됐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 재가 돼 하늘로 오르는 원들을 거대한 아미타대불은 지그시 내려다보고 있었다.

저녁공양을 마친 불자들은 다시 큰법당으로 삼삼오오 모여 앉았다. 늦춰지거나 가라앉은 정진분위기에는 어김없이 안병록 국장이 나선다. "니만 좋나~내도 좋다" 구성진 목소리에 맞춰 참가불자들은 함께 노래한다.

"한 노보살이 스님이 빠르게 나반존자 염불을 하자 나만 좋다로 잘못 알아듣고 내도 좋다고 대꾸했다"며 "그런데 그 보살은 그 구절이 너무 좋아 흥이나 계속 염불하다, 건강하게 살다 좌탈입망했다"고 일화를 소개한다.

재미난 일화에 노래도 부르며, 한껏 웃은 불자들은 108독 주력정진에 들어간다.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나막알약 바로기제…." 깊은 산속이라 해가 떨어진지 오래, 어두운 밤 속에는 독송소리만이 가득하다. 점차 빨라지는 신묘장구대다라니에 일어나 절하는 노보살부터, 눈물을 흘리는 젊은 보살까지, 다라니 정근으로 그동안 마음에 쌓인 모든 업장은 녹아내리고 있었다.

"나는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봐도 먼지 몰라, 다만 계속 읽어서 내 마음이 편해지면 가족이 화목하고 모든 일도 잘풀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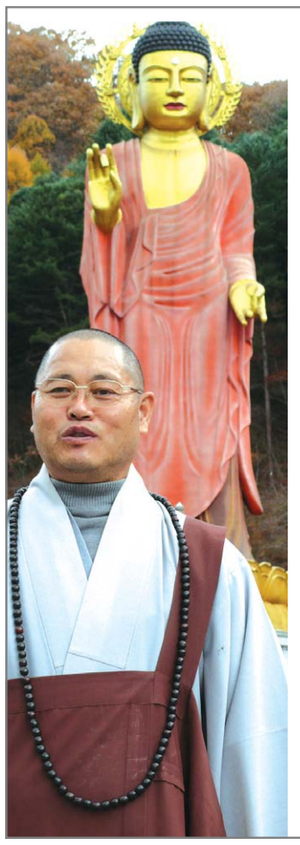
정진 직전 어느 보살은 주력정진에 대해 한마디로 말한다. 참석자들의 소망은 한결같았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며 자신과 가족, 더 나아가 온중생의 안녕을 위하는 발원이었다.

계속되는 독송에 시계바늘은 9일 새벽 3시를 가리킨다. 피곤함을 잊고 웃으며 회향 체조하는 모습에서 환의심이 느껴진다. 여명이 비추는 이튿날 6시. 뜨는 해를 뒤로 하고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가는 노보살의 뒷모습에서 삶의 활력을 볼 수 있었다.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참가자들에게 인사하는 탤런트 이정길 · 김혜옥씨.



## 홍천 연엽산 연화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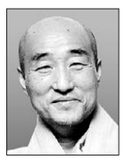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연엽산 자락에 자리한 연화사는 신흥 사찰로 동양최대 36m 아미타대불이 모셔진 극락도량이다.

99개 봉우리가 연꽃잎을 닮은 연엽산에서 연화사는 그 중앙인 연봉우리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신라 도선 국사가 비보사찰지로 선남선녀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는 이 곳은 기운이 너무 강해 연합절골이라는 이름으로만 보존돼 왔다고 전해진다. 주지 화담 스님(사진)이 1993년 불사를 시작해, 대지 일만 평에 큰법당을 불사했으며, 3층 법당에는 부처님 7불과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9분이 모셔져 있다. 연화사 아미타대불은 아파트 12층 높이로 몸 속 복장으로 7층까지 올라갈 수 있으며, 7층 미타삼존불 법당까지 계단을 따라 부모은중경도와 극락도, 지옥도가 펼쳐져 있다.

주지 화담 스님은 "불사를 하는 인연이 따로 있고, 성불하는 인연이 따로 있다"며 불자들과 선연이 맺어지기를 발원했다.



## 일주문



**군승파송 40주년 군승의 날 법회**

군종특별교구장 일면 스님은 11월 25일 6시 종로 W컨벤션센터에서 '군승파송 40주년 기념 군승의날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02)749-8646.



**난치병어린이 성금 전달**

삼랑성문화축제조직위 공동위원장 혜경 스님(전등사 주지)은 11월 13일 강화군청 안덕수 군수에게 박효민(난치성 근육증)양 치료비 500만원을 전달했다.



**불교인권위 불교인권학교 연수교육**

불교인권위원장 진관 스님은 11월 18~19일 서울 일원동 전국비구니회관에서 제3기 불교인권학교 '삶 속에서의 인권'을 개최했다. (02) 732-4885



**대성사 청주교도소 교정법회**

옥천 대성사 주지 혜철 스님은 11월 11일 청주교도소(소장 한본우) 교정법회에서 수용자 150명을 대상으로 효에 대해 법문했다.



**법왕정사 광주상무법당 개원**

양평 법왕정사 주지 청견 스님은 11월 23일 오전 10시 30분 광주 서구 치평동 소재 광주상무법당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062)375-3500



**겨울불교학교 지도자강습회**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회장 송묵 스님은 11월 22일 오전 10시 서울 봉은사 보우당에서 '겨울불교학교 지도자강습회'를 개최한다. (02)738-7860



**불교아카데미 정기이사회**

불교아카데미 전우희 이사장은 11월 19일 오후 6시 서초동 '아이네임즈' 대회의실에서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3대 이사장 선출 등을 의결한다.



**스포츠요가협 오행체질생식 강좌**

서찬배 생식전문가는 11월 18일~12월 20일 한국스포츠요가협회 오행체질생식연구원에서 오행체질생식에 대해 무료로 강의한다. (02)356-6796

## 인 사 고공·도림 스님 호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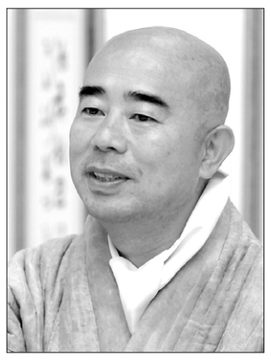




11월 11일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 상임감찰에 고공 스님(사진 왼쪽), 호법과장에 도림 스님이 각각 임명됐다. 고공 스님은 월면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94년 사미계, 1998년 구족계, 2003년 중덕 법계를 수지했다. 도림 스님은 정여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93년 사미계, 1997년 구족계, 2003년 중덕 법계를 수지했다.

# "동중 살림 5년 진력, 이제는 정중 본분 직시"

## 동안거 방부 들인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



"상원사 주지를 살며 안거에 참여해보니 사찰 운영에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월정사 주지 소임을 5년째 살며 동중(動中) 살림에 진력하다보니 이제는 정중(靜中)의 본분에 충실해 균형을 맞춰야겠다 싶었습니다."

전국 100여개 선원 2200여 수행자가 일제히 용맹정진에 돌입한 동안거 결제일,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사진)도 선원에 방부를 들였다. 스님은 "안거는 동중의 삶인 해제기간을 지나 정중 본분을 직시하는 시간, 바쁜 일상 속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는 기간"이라 말했다. "사부대중과 함께 호흡하는 것이 화엄사상 이자 동정일여(動靜一如)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라는 스님의 동중 살림은 어떠했을까?

정념 스님은 2004년 주지 진산식에서 '찾아가는 포교, 지역사회로의 회향'을 원력으로 삼았다. 스님의 원력대로 월정사는 5회째 이어진 오대산 불교문화축전을 비롯해 성보박물관 개관, 단기출가, 템플스테이 등 교육 · 문화도량으로 일신해왔다. 청소년 포교와 신도 신행에 귀감이 된 월정사 문수청소년회와 월정사 복지재단의 보현행도 정념 스님의 원력이 있어 가능했다. 특히 10월 11일 만월선원 개원에 이어 무자년 동안거를 시작으로 17명 운수납자들이 방부를 붙이면서 월정사는 온고지신(溫故知新)한 수행도량으로 자리매김했다.

스님은 도시문명에 맞춘 선원문화를 창조하기 위해 매일 8시간 기본 정진 속에 1시간 참선요가 시간을 마련하기도 했다.

"요즘 사찰은 농사일을 하지 않기에 울력보다 수행자 건강을 위해 요가를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입니다."

스님은 "수행은 집중을 통해 마음을 비워 무심(無心)을 이루는 과정"이라며, 재가자가도 동안거 기간 동안 수행정진할 것을 권했다. 정념 스님이 강조하는 것은 발심. "발심은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발심만 되면 깨달음은 따라 와요. 하지만 발심하지 못하면 간절함이 없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현대는 자기실현, 인간존엄을 위해 명상, 수행이 요청되는 시대"라는 스님은 앞으로 간화선을 중심으로한 수행타운을 오대산에 조성할 계획도 갖고 있다.

경제적 · 정신적 공황을 맞은 세간의 상황에 대해 스님은 "불가에는 '불꽃 속에서도 연꽃은 피어난다(火中生蓮)'는 말이 있다. 번뇌 · 망상 · 고통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연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자기중심을 놓치지 않고 주인된 자세를 지키면 지금의 어려움은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 "서로 고통 나누며 살자"

## 자비의전화 대표이사 정덕 스님



11월 8일 포교원 산하 불교상담개발원 (사)자비의전화 임시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재선출된 정덕 스님(사진)은 "그동안 '자비의 전화'는 교계 모든 분들의 사랑으로 커왔다. 사랑을 바탕으로 더욱 활동범위를 넓혀 불자들에게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정덕 스님은 현재 불교상담개발원장이며 1990년 발족 초기부터 '자비의전화'를 맡아 2005년 사단법인화되며 초대 대표이사로 봉사해 왔다. '자비의전화'는 불교계 최초의 전화상담 봉사기관으로 상담전화는 5만 건을 넘어 유럽, 미주 등 외국상담전화까지 걸려올 정도다. 자비의전화를 거쳐 간 봉사교육자만 천여 명, 상담원은 400명에 이르고 있다.

'자비의전화'가 이렇게 자리잡기까지는 많은 이들의 노력이 있었다.

정덕 스님은 "창립초기 사무실도 얻기 힘들었고, 1년 3500만원 정도인 운영비 마련도 쉽지 않았다. 교계 큰스님들의 뜻있는 도움과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이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 자비의전화가 있다"며 "임기가 끝나는 2011년이면 나이가 80이고, 불교상담개발원 임기도 1년 밖에 남지않았지만 재직동안, 교육관 마련과 불교상담심리사 1급과정, 불교상담대학원 등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덕 스님은 "사랑과 자비로 기도정진하면, 불행과 나쁜 일이 침범할 수 없다. 서로 보듬어 고통을 나누면서 열심히 살자"고 당부했다.

한편, 총회에서는 2008년 12월 29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할 2대 임원으로 현이사인 김준형 · 박희섭 · 조한래 · 추월선씨가 재임됐고, 이석진 · 전나미씨가 신규이사로 선출됐다. (02)737-7374

노덕현 기자

# "많은 관심·애정 절실해요"

## 장애인 봉사단체 원심회 김장경 회장



"무료 수화강의를 매년 3차례 열고 있지만 회원이 나날이 줄어 현재는 한 명도 제대로 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애정이 절실합니다."

11월 9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창립 20주년 기념 법회에서 불교계 유일의 청각 · 시각장애인 교육봉사단체 원심회 김장경 회장(사진)은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올해 11월 개강한 기초반 강좌에 10명이 신청했지만 1명이 왔을 뿐"이라며 "외부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내부적으로는 원심회를 이끌어가기 어려운 실정이다"고 전했다. 또 그는 "수화전문국가자격증을 어렵게 취득하고도 불교계 내에서 수용능력이 없어 타종교시설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범불교도대회나 큰 법회 등 각종 종교행사에서 수화 통역이 법적으로 의무화 돼 있음에도 불교계는 필요성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종단 차원에서 장애인 포교를 위한 체계적인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창립 20주년 기념으로 제작한 수화찬불가 앨범 고불식과 수화찬불가 발표로 사부대중에게 감동을 전한 이번 법회에서 목탁, 북, 수화통역과 현수막을 이용해 불법을 전했다. 이어 원심회 발전과 장애인 포교 부분 시상에 △조계종 총무원장상 한현명, 이연주씨 △조계종 교육원장상 김공주씨 △조계종포교원장상 김경환씨 △조계사주지스님상 신동렬씨에게 돌아갔다. 마하의료회, 보리기획, 혜광맹인불자회, 김순복씨, 김인영씨에게 감사패 전달이 있었다.

한편, 조계사 부주지 토진 스님, 원심회 지도법사 영공 스님, 광림사 연화원 주지 해성 스님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02)720-4528 이상언 기자

### (사)한국불교금강선원 단합대법회 봉행




(사)한국불교금강선원(총재 활안, 이사장 이홍표)는 11월 8일 제천 모산동 금강사에서 단합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금강선원 산하의 불교통신대학, 나란다삼장불학원, 동문회가 구성돼 발기인대회를 개최했다. 김성우기자

### 천태종 상월원각 대조사 존상 봉안법회



천태종 포항 황해사(주지 용암)는 11월 11일 '삼존불 및 상월원각 대조사 존상 봉안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법회에는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장 정산, 박승호 포항시장 등 사부대중 30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진성기자

###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고산과 우주체험'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지관)은 11월 8일 광진청소년수련관 천체투영관에서 '제5회 의지나눔 Sharewill-고산과 함께하는 우주체험'을 개최했다. 청소년 100여명이 참석해 우주인의 꿈을 키웠다. 노덕현기자

### 원주 구룡사 초등생·외국인학생 템플스테이



원주 구룡사(주지 원행)는 11월 8~9일 원주 태장초등학교 6학년 학생 40여 명과 고려대 국제대학원 글로벌빌리지 학원생 인도 굴짜란심, 프랑스 니콜라스닌앤반호 등 5명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를 실시했다. 이상언기자

### 군산 성흥사 동안거 기도 입제·산신재 봉행



군산 성흥사(주지 송월)는 11월 12일 무자년 동안거 결제일을 맞아 동안거 기도 입제와 산신재를 봉행했다. 군산지역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해 가족의 안녕과 군산시의 발전을 기원했다. 조동제전북지사장


# 2009학년도 전기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일반대학원

**1. 모집과정 및 학과**

| 과 정 | 학 과 | 전 공 | 모집인원 |
|---|---|---|---|
| 석사학위과정 | 불교학과 | ·불교학과<br>·불교학<br>·역경학<br>·실천불교학(포교사회)<br>·불교문화재학 | 30명 |
| | 사회복지학과 | ·사회복지학 | |
| 박사학위과정 | 불교학과 | ·불교학<br>·역경학<br>·실천불교학 | 10명 |

**2. 지원자격**

1) 국내 · 외 대학에서 학사/석사학위취득 예정자 또는 취득자
2)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3)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 승려, 또는 대한불교 종단협의회에서 인정한 타 종단 승려

※ 타 전공자도 응시할 수 있음. 단, 입학 후 소정의 학부과정 개설과목(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3. 전형일정**

1) 원서 교부 : 2008. 10. 27(월) ~ 12. 5(금) 17:00까지 (대학원 교학부)
2) 원서 접수 : 2008. 11. 3(월)~ 12. 5(금) 17:00까지 (대학원 교학부)
3) 전 형 일 : 2008. 12. 10(수) 13:00(박사과정) 14:00 (석사과정)
4) 합격자 발표 : 2008. 12. 12(금)
5) 등록 기간 : 2008. 12. 15(월) ~ 12. 17(수)

**4.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1) 장소 : 면접 고사실 - 대학본부 2층 세미나실
2) 시간 : 2008. 12. 10.(수) 13:00 (박사과정) / 14:00 (석사과정)

**5. 제출서류**

1) 입학지원서(본교 소정양식) 1부
2) 학업 및 연구계획서(본교 소정양식) 1부
3) 석사과정 : 학사학위 수여증명서 또는 예정증명서,
박사과정 : 석사학위 수여증명서 또는 예정증명서 1부
4) 대학/대학원 전학년 성적증명서(백분율 성적 기재분) 1부
5) 수계확인서(조계종 총무원 발급, 3개월 이내) 1부
6) 해당 총무원장의 추천서(타 종단 스님)
7) 주민등록등본 1부
8) 칼라사진 5매 제출(가사 수한 사진 3×4㎝)

※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제출한 스님은 합격 후, 2009. 2. 28까지 학위수여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6. 입학원서대 및 전형료**

1) 원서대 : 무료
2) 전형료 : 박사과정 80,000원/석사과정60,000원

**7. 사정원칙**

1) 입학원서 및 구비서류 기재사항에 허위 및 하자가 있는 자는 불합격 처리함.
2) 정당한 사유 없이 전형 미 응시자는 불합격 처리함.
※ 상기 사정원칙에 기재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입학 사정회에서 결정함.

**8. 지원자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 및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원서의 기재사항은 변경할 수 없음.
2)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 게재. (www.sangha.ac.kr)

**9.**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415-070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159-1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 교학부
전화 : 031)980-7864 (내선 : 7864) / FAX : 031)980-7863

특전 : 1) 조계종 소속 승려(구족계수지자 및 익년 4월 구족계수지예정자)는 장학금 혜택이 있음.
2) 각종 교내 · 외 장학금 지급
3) 전공별 대학원 연구실 제공

# 오바마 대통령 당선, 美불자 '후광' 있었네

**해외불교칼럼**



얼마 전에 끝난 미국의 대통령선거는 미국인의 자유민주주의적 역량과 혁신적 진취성을 표출한 동시에, 온갖 인종과 문화 등이 함께 녹아드는 '용광로 미국'(America, the Melting Pot)의 면모를 유감없이 과시한 일대사건이다. 불교 선사 페트리셔 나사는 오바마의 출마 자체가 미국이 다인종 다문화의 합중국임을 명쾌하게 환기시켰다고 말한다. 대선캠페인 동안 미국불자의 행보에 관한 글이 적잖게 등장했다. 그 중에서 오바마에 대한 그들의 일치된 지지보다는 자유롭고 다양한 시각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하 일부 내용을 발췌 편역한 것이다.

미국불교가 경이로운 성장세를 보이는 건 사실이나 미국불자들이 실질적인 정치력이나 득표율을 행사하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다. 어떻든 서구사회에 널리 자리매김을 해온 불교는 최근 대통령선거를 포함한 미국 정치판도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일획을 긋고 있다. 동남아시아 공산권에서 탈출한 불교 이민자들은 대체로 보수적 정치성향으로 공화당 존 맥케인의 편향이다. 그러나 본디 미국 시민으로서 기독교 등에서 불교로 개종한 절대다수의 불자들은 자유진보적인 민주당의 바락 오바마 후보를 지지한다. 왜일까? 그들에게 불교는 기독교사회의 획일적 도그마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신선하고 자유로운 선택(free choice)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불교를 통해 추구하고 터득하는 무상(Keep-Changing)의 철학 역시 오바마의 대선구호인 변화(Change)와 일맥상통한다.

얼마 전 '진보적이며 종교적인'이란 저서를 펴낸 로버트 존스는 미국불자에 관해 따로 서술했다. "불교에는 모든 겸양과 배려의 미덕이 함축되어있다. 불자는 결코 총을 내두르며 어떤 변화를 박탈하려 들지 않는다." 이번엔 여러 불교관련 저서를 낸 저명작가이자 참선지도사인 샤론 살스버그의 경우다. 뉴욕태생인 그녀는 지난 9월 '오바마 정신'에 감동하여 56년만에 유권자 등록을 했다. "오바마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지켜주는 형제자매로서 더 나은 비전을 실천해 가자고 주장한다. 나는 그 정신에 무한한 경의를 표한다." 그녀는 대선을 두 달 앞두고 미국 불교지도자로서 불자의 정치적 관심을 촉구하는 25명의 교수, 문인들의 공동성명에 동참했다. "각자 추구하는 정치노선은 다를 수 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인식할 것은 똑바로 인식하고 똑바로 행동에 옮기는 미국시민의 권리를 지켜가야 한다."

'종교와 대중생활'이란 퓨 포럼의 조사에 따르면, 무슬림과 거의 비슷하게 미국인구의 약 1퍼센트를 차지하는 미국불자는 가장 자유로운 종교집단으로 그 중 3분의 2가 민주당 성향이다. 오바마 진영의 웹사이트의 공식발표에 따르면, 500명의 회원들이 열성적으로 활동하는 '오바마를 위한 불자'(Buddhists for Obama)란 단체는 23만 달러의 후원기금을 조성하고 1700회의 이벤트를 주관했으며 2만 6000건의 전화 유세를 벌였다.

다른 한편, 멕케인 진영에는 불교단체가 전혀 개입하지 않았으며 지원요청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미국 불자들은 오바마가 '변화'와 함께 제창한 '통합'(Unity) 역시 다르마의 실천이라 확신한다. 즉, 미국 특유의 다양하고 이질적인 요소들 간에 '나와 남을 가르는' 대립구조(對立構造)의 위험성을 지적함과 아울러, 연기상생(緣起相生)의 불교적 이상을 제시한 것이라 해석한다. 또 그들은 민주당의 기조가 인종, 계층의 차별 없이 모든 중생이 깨우침에 이를 수 있다는 붓다의 평등계몽사상을 반영한다고 강조한다.

그런가 하면, 일부 불자들은 불교의 다르마를 정치철학적으로 번안하고 정치문제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바를 금기시한다. 선불교를 수행하는 작가 촬스 존슨의 견해다. "내가 아는 한, 불교는 정치사회적 현실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야 한다." 끝으로 대니 피셔 스님의 소견을 들어보자. "다르마란 중생을 이롭게 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나의 최대 관심사는 자유 진보적 목표와 사회정의의 실현이다. 그러나 다른 불자들의 견해가 반드시 나와 일치하길 기대하진 않는다."

편역: 성휴 스님 출처: BTN, RNS

## "his face no longer was gold leaf"

**생활영어로 읽는 불교**

### 금불상은 금박이 아니었어요

A nun, who searched for enlightenment in many temples, always carried with her a little Buddha she had carved for herself out of wood, and which she had covered with gold leaf. It was very pretty. One day she came to stay at a temple where there were many Buddhas. Whenever she burned incense before her golden Buddha, she begrudged the others any of the savor, and so she always used a little funnel that carried the smoke of the incense straight to her Buddha's nose. Within a week, her Buddha turned laughable – his face no longer was gold leaf, but black smut.

득도를 하고자 여러 절을 떠도는 한 비구니스님이 있었다. 스님은 손수 나무를 깎아 만든 불상에 곱게 금박을 해서 늘 몸에 지니고 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스님은 불상이 많이 모셔진 한 절에서 머물게 됐다. 그런데 스님은 자신의 금불상에 향을 올릴 때마다 그 향연이 다른 불상들에게 건너가는 게 못마땅했다. 그래서 스님은 작은 깔대기를 통해 향연이 자기 금불상의 코 속으로 곧장 들어가게 했다. 일주일도 못돼 금불상은 금박이 아니라 새까만 검댕으로 우스꽝스런 모습이 되고 말았다.

번안: 성휴 스님

## 中 불교계 영어교육 실시

11월 3일 중국불교협회, 중국종교문화대화협회 및 상하이국제대학은 중국불교의 원만한 국제교류를 선양하고자 공동협찬으로 불자를 위한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이라 밝혔다. 2006년도 제1차 세계불교포럼 개최지 중국 종교문화대화협회의 치샤오페이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2009년 중국에서 개최되는 제2차 세계불교포럼에 대비한 통역 및 번역사 양성이 시급하며 우선 전국 각 사찰에서 초급영어 구사가 가능한 승려와 신도 20명을 선발해 6개월간 집중 교육한다고 말했다. 한편, 불교협회 이칭 대종사는 중국의 국력신장에 즈음해 세계 각 지역의 불교관련단체와 교류가 시급하며 다양한 외국어를 통한 국제전법이 필수적이라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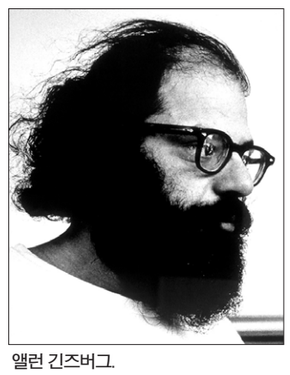
출처: 中國日報, 新華

**월드스타 불심도 스타** 앨런 긴즈버그 ❷

# '아 해바라기'로 시인의 길

### 컬럼비아대 서클서 잭 캐루악·윌리엄 버로우 만나
### 긴즈버그, 깨달음의 순간 놓치지 않은 수행자

앨런 긴즈버그는 컬럼비아대학 법대 예과를 마치자마자 전공을 대뜸 문학으로 바꿔버렸다. 제도라는 굴레를 거부하는 어머니의 삐딱한 저항기질을 그대로 물려받은 그는 역시 제 갈 길로 가버린 것이다. 그러나 그마저 흥미를 못 느낀 그는 또 다시 옆으로 삐져나가 캠퍼스보다는 외부서클활동에 열성이었다. 그리고 거기서 같은 대학 선배로 평생의 스승이자 동료인 잭 캐루악, 그리고 다재다능하며 사해동포주의 사고를 지닌 윌리엄 버로우를 만나게 된다. 특히 버로우는 지성인집단인 세칭 일류대학과 뉴욕 맨허턴의 이른바 외곽문화, 거리문화, 또는 하층문화(subcultures)의 간격을 좁힌 자유지식인이었다. 아무튼 이리저리 헤매던 방랑자 긴즈버그에게 마침내 정착할 거점과 패거리가 생긴 것이다. 허버트 헝크, 존 홈즈, 루신엔카, 닐 캐시디 등이 포진한 이 서클은 그로부터 10년 후 비트 제너레이션과 샌프란시스코 르네상스를 주도한 야전지휘부이자 비밀아지트의 역할을 했다.



앨런 긴즈버그

1945년 긴즈버그는 모종의 이유로 컬럼비아에서 퇴학당했으나 이듬해 복학돼 2년 뒤에 졸업한다. 그 후 이 일 저 일 집적대던 그가 시인으로 입지를 굳힌 건 1949년 뉴욕 동부 할렘빈민가에 살 때다. 어느 날 그는 영국 낭만파 시인이자 자유예술가 윌리엄 브레이크(1757~1827)를 봤다. 물론 환상이었다. 그리고 그가 나지막이 읊는 '아, 해바라기! (Ah! Sunflower)'라는 시를 환청으로 듣고서 내내 시인으로 살아가기로 작심했다. 대체 어떤 시일까? 나름대로 옮겨봤다.

아, 해바라기, 시간이 지겨워
태양의 발자국을 세나니
나그네의 여로가 다하는 곳
그 고운 황금나라를 찾아 가도다

욕망에 여위어버린 젊음
백설의 수의에 감긴 창백한 처녀가
무덤에서 일어나
꿈꾸는 곳으로
나의 해바라기는
가고 싶어라

그는 당시 정황을 이렇게 회고했다. "그 때 난 창밖을 내다봤어요. 거리모퉁이 벽돌 한 장 한 장마다 이어진 데서 손때가 묻은 자국을 읽을 수 있었어요. 어느 손인가 그것들을 거기에 갖다 둔 거죠. 또 어느 손인가 온 우주를 내 앞에 내려놓은 거구요. 신은 바로 내 앞에 있었어요. 모든 존재 자체가 신이니까요."

그리고 좀 더 기이한 얘기가 이어진다. "내가 본 건 내 안의 어떤 가벼움이었죠. 내 몸이 문득 들려 올려지듯 가뿐해졌어요. 우주적 인식과 진동, 그리고 성찰과 경이로움 그런 느낌이었죠. 나의 존재가 우주의 심층으로 빨려드는 순간적 깨달음이었죠."

일반통념과 달리, 깨달음이란 어느 특정종교의 전유물이 아니며 심산유곡에서만 이를 수 있는 경지도 아니다. 잿빛 콘크리트의 대도시의 그늘, 모진 삶들이 비비적대는 우중충한 할렘 뒷골목에서도 누구나 이처럼 홀연히 깨달음과 마주칠 수 있다. 또 그처럼 홀연히 깨달음에서 멀어지기도 한다. 깨달음은 순간이며, 깨달음의 사라짐 또한 순간이다. 긴즈버그는 그 깨달음의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일생 고행을 택한 수행자일 수도 있다. 그 특유의 유머가 들리는 듯하다. "어휴, 힘들어. 해탈자격증, 득도특허권도 매순간마다 재발급 받아야 하다니."

<계속>

성휴 스님

구독신청 · 기사제보 | 02-2004-8200


# 중앙승가대학교 2009학년도 신(편)입생 추가모집

## 〈정시모집 '나'군〉 신입생 모집 요강

본교는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법 제67조에 의해 종단에서 운영하는 종립대학으로서 대한불교 조계종「기본교육기관」입니다.

■ 모집학과 및 정원

| 계 열 | 학 과 | 일반전형 | 특별전형 정원외(재외국민 등) | 비 고 |
|---|---|---|---|---|
| 인 문 | 불 교 학 과 | 21 | 2 | |
| | 역 경 학 과 | 21 | | |
| 사 회 | 포교사회학과 | 21 | | |
| | 사회복지학과 | 21 | | |
| 합 계(명) | | 84 | 2 | 86 |

※ 수시모집 합격자 및 정시모집 동일학군 타 대학 지원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격 및 전형방법

▣ 일반전형

◇ 지원자격

- 조계종 승려로서 고등학교 졸업자 및 2009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위의 학력을 갖춘 타 종단의 승려로서 해당 소속 총무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전형방법

- 입학정원의 100%를 다음의 방법으로 선발함

| 고교내신성적 | 면접(인성)고사 | 합 계 |
|---|---|---|
| 40% (400점) | 60% (600점) | 100% (1,000점) |

- 고교내신성적은 고등학교(검정고시 포함)성적 중 학인이 지정한 우수과목 4과목만 평가함.

■ 원서교부 및 접수

◇ 장 소 : 본교 교학처

◇ 교부기간 : 2008. 12. 8(월) ~ 2008. 12. 22(월)

◇ 접수기간 : 2008. 12. 18(목) ~ 2008. 12. 22(월,16:00까지)

※ 단, 토 · 일요일은 접수하지 않음

■ 제출서류

1)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 1 부
2) 고교졸업(예정) 증명서 ..... 1 부
- 대입검정고시 합격자 : 합격증 사본과 성적증명서 각 1부
3) 고교생활 기록부 사본 (2009년 졸업예정자포함) ..... 1 부
4) 승적증명서 (타 종단 승려는 해당 총무원에서 발급) ..... 1 부
5) 주민등록등본 ..... 1 부
6) 사진(종단 의제규정에 따른 의제를 수한 반명함판 3×4cm) ..... 5 매 (2매 원서 / 3매 별도)- 사미(니)스님은 의제규정 준수 제출 요망
7) 총무원장 추천서(조계종 스님 외 타 종단 스님에 한함)

■ 입학원서대 및 전형료

1) 원서대 및 입시요강 : 3,000원 2) 전형료 : 60,000원

■ 전형일정

◇ 예비소집 : 2009. 1. 14(수) 12:30 ~ 13:00

◇ 면접 및 인성검사 : 2009. 1. 14(수) 13:00

※ 수험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비소집, 면접을 하루에 마칩니다.

■ 기 타

- '09학년도 신입생은 전원 수행관 입방 생활을 하여야 함. 단, 편입생 및 타 종단 지원자는 수행관 입방을 할 수 없음.

## 편입생 모집요강

① 모집학과 및 정원

| 계열구분 | 학 년 | 학점코드 | 학 과 | 모집인원 |
|---|---|---|---|---|
| 인문 · 사회계열 | 3학년 (일반편입) | 13 | 불 교 학 과 | 00명 |
| | | 23 | 역 경 학 과 | 00명 |
| | | 33 | 포교사회학과 | 00명 |
| | | 43 | 사회복지학과 | 00명 |
| | 3학년 (학사편입) | 14 | 전학과 | 00명 |

■ 지원자격

- 일반편입 : 2009년 3월 대한불교 조계종 승납 만2년 이상 승려로서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 및 4년제 대학 2년 이상 수료자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학사편입 : 학사학위 소지 및 예정자로서 2009년 3월에 조계종 승납 만 2년 이상인 자

※ 타 종단의 승려도 위와 동등한 자격 및 학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편입 지원 가능

■ 전형방법 및 일정

- 신입학 전형일정과 같으며 서류(전적대학 성적) 및 면접전형으로 선발

■ 기 타

- 대한불교 조계종 승려 중 2009학년도 사미(니) 편입생은 졸업 후 구족계를 받을 수 없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학처(입시담당자)로 문의하시거나 학교 홈페이지 (www.sangha.ac.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법인 승가학원 중앙승가대학교

415-070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159-1 / ☎ (031) 980-7713~5

# ‘불교계 학회’ 도태나 발전이냐 기로

## 2011년 잼스 시행… 불교계 나몰라라, 학진 지원·평가 단절 위기

불교계 한 학회는 학회장과 간사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운영위원회가 있으나 자주 모이기도 어렵고 회의도 형식적이다. 학회 회원 200여 명 가운데 회비를 내는 사람은 고작 20여 명. 학회장의 화주와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허상만, 이하 학진) 지원금 등으로 어렵게 연명하고 있다. 발표자를 찾기도 어려워 사전심사 없이 발표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학진 등재후보지인 학회지도 마찬가지. 학술지 발간 시기와 논문 심사 서류 등 갖춰야 할 것이 많지만 학진 심사를 즈음해 반짝 고생하면 된다는 생각에 체계적인 학회 운영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가운데 11월 18일 불교학연구회(회장 본각) 추계학술대회 현장에서 논평하던 임승택 교수(경북대)가 난데없이 불교학계의 과감한 통폐합을 주장한 것은 파행적 학회 운영을 지적한 것으로 이해된다.

임 교수는 “불교학계가 <불교학보> <한국불교학> <불교학연구> <불교연구> <보조사상> <가산학보> <한국선학> <인도철학> 등 다양한 학회를 감당해 낼 연구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라 말했다.

열악한 국내 불교학계 현실에 비춰볼 때 임 교수처럼 학회 통폐합을 주장하는 이가 나올만하다. 하지만 이제는 주먹구구식 학회 운영마저 어렵게 됐다. 학진이 최근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Korea Citation Index) 및 학술지평가를 위해 ‘잼스(JAMS, Journal & Article Management System)’ 운용에 나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커다란 변화의 물결 앞에 불교학계는 효율적 학회 운영으로 환골탈태하거나, 도태되거나 하는 선택만이 남았다.

### ◇학회 운영 및 연구자 정보 전산화

KCI는 학술정보 제공 및 국내 학술지 질적 평가 체계 수립을 위한 사업으로 논문 인용지수, 피인용지수 등을 논문 편수와 함께 산정하게 된다. 잼스는 학회 홈페이지 · 학술지 발행 · 학술대회 관리 등 회원관리→논문투고→논문심사→전자출판→KCI 제출까지 전 과정을 전산화한 학회업무 지원 시스템이다. 학진 등재후보지 이상을 발간하는 1600여 학회를 대상으로 2011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잼스가 시행되면 회원관리는 물론 회비 납부 내역까지도 학진에 공개된다. 논문투고와 심사도 전산화돼 형식적 처리는 불가능하다. 특히 심사위원의 특정인에 대한 심사 성향 등도 알 수 있어 선심성 내지 무성의한 평가까지도 기록이 남는다. 학술대회도 인터넷을 통해 발표신청과 논문제출, 논문접수가 일원화된다. 이와는 별도로 해외유명인용색인 DB와 연계돼 학문의 국제화에 대한 기대도 크다. 기존 학진 연구자 등록 정보 등과 연계한 학회 인력풀도 운영돼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심사위원 등 인력수급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지만 학회 운영 방식에 변화가 초래되는 것만은 틀림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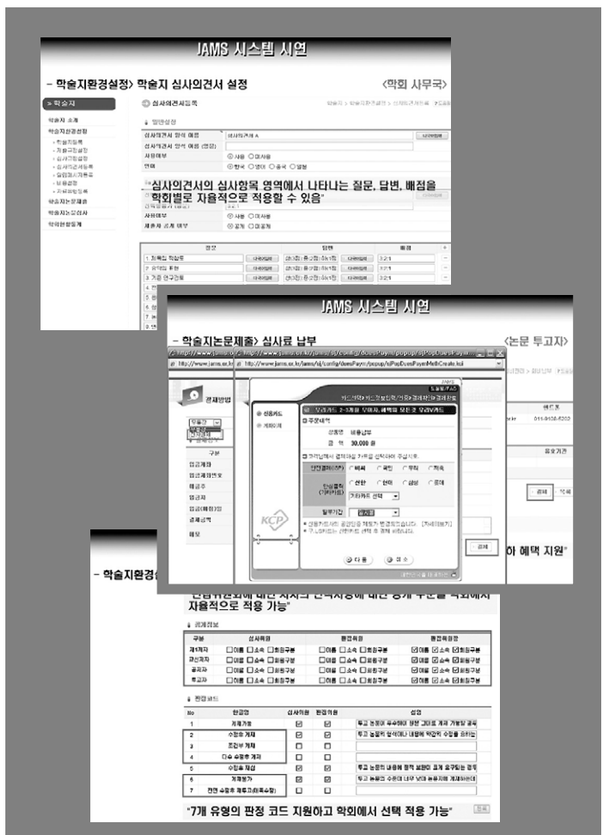
학진 지식정보센터 정진호 팀장(지식확산팀)은 “잼스 등 KCI 통합시스템이 완성되면 연구분야별 전문화된 서비스 개발은 물론 학회 정보화 기반을 마련해 국내 학문 특성을 반영한 평가체계가 수립된다”며 “국내 학술지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 ◇불교학계 관심조차 없어 큰일

학진은 9월 22일 충남대를 시작으로 10월 7일까지 서울대, 전남대, 부산대 등 전국을 돌며 설명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불교학계에서 설명회에 참석한 것은 이정수 · 이기운 박사(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등 소수였다.

마지막 설명회가 끝난 지 한 달 넘은 11월 10일 현재, 불교학계 관계자 중 잼스에 대해 아는 이는 극히 드물었다. 학진 사업은 연구비 지원은 물론 연구자와 학회가 연구업적을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중요한 장이다. 학진의 학술단체지원 사업은 한해 96억원. 불교학계의 열악한 환경 속에 학진에 대한 관심과 정책 참여는 바로 불교학의 흥망성쇠와 직결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진호 팀장은 “2011년 이후 등재학술지의 내용평가를 KCI시스템의 한국형 인용지수(Kor-Factor)로 대체하는 등 앞으로 등재학술지 선정 및 평가에 KCI 통계지표가 크게 반영될 것”이라 말해 등재학술지 선정을 준비하는 대다수 불교학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학술진흥재단 전국설명회에서 선보인 잼스 시연장면. 학술지 심사의견서 배정 화면(위), 학술 심사료 인터넷 납부 화면(가운데), 학술지 심사규정 설정 화면(아래).

한 불교학자는 “학진 설명회에 불교학계 참가가 저조한 것은 그만큼 폐쇄적이라는 것을 반증한다”고 비판했다.

### ◇학회 관리 효율성 제고해야

잼스 도입 소식을 들은 연구자들은 “주먹구구식 학회 운영에 제동이 걸렸다”는 반응이다. 연구자 개인이나 학회가 자체 관리하던 업적 등이 KCI 통합시스템에 집중되면서, “연구자와 학회 모두 일종의 ‘자기관리’가 필요한 시대가 도래했다”는 말도 들린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의 몇몇 연구원들은 “불교문화연구원이 아닌 학교차원에서 시스템 전담자를 둬야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불교문화연구원이 교책연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줄이겠다는 동국대 운영방침으로 볼 때 기대하기 어려운 주문이다. 특히 동국대에 적을 두지 않은 학회의 경우 자력갱생할 수밖에 없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임승택 교수의 주장처럼 학회를 통폐합해 내실을 기하는 것도 방법이다. 하지만 불교학계의 다양한 학회들이 저마다 창립취지를 갖고 작아도 제 목소리를 내는 마당에 좋은 해법은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크다.

이에 대해 학진의 잼스 도입을 계기로 학회들을 종합 관리할 별도 단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한 연구자는 “학회 운영 경험이 풍부한 연구자들이 학진 관련 업무와 함께 학진 사업 수주에 관한 컨설팅 등을 맡아 학회 운영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1년 잼스 본격 도입을 3년 여 남겨둔 지금, 불교학계의 선택에 불교학의 미래가 달렸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 “논문 질 국제화 여부 결정”

## 김용휘 교수 “많이 읽히고 인용되면 좋은 논문”

KCI 통합시스템으로 전산화된 연구성과는 다국어로 제공돼 학문의 국제화를 앞당길 전망이다. 국내 학술단체의 국제화를 준비하는 국내 학회들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하 학진) 지원으로 4월 출범한 국제학술지협의회(회장 문용린)가 대표적인 예다. 국제학술지협의회는 외국어로 학술지를 발행하는 국내 80여 개 학회 등 학술단체들이 상호간 정보 공유와 협력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학술지로 도약하는 데에 힘쓰자는 취지로 구성됐다.

“학문의 국제화는 좋은 논문을 얼마나 많이 해외에 소개하느냐에 달렸습니다.”

국제학술지협의회(회장 문용린) 국제분야 TF팀장을 맡고 있는 김용휘 교수(세종대 · 사진)는 연구논문의 질이 국제화 여부를 결정한다고 강조한다. 김 교수는 “과거 학문의 국제화는 영어로 논문을 작성하는 것을 뜻했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며 “연구자는 논문의 제목, 요약문 등 기본적인 정보만 영어로 병기하되 무엇보다 가장 쉽고 편한 언어로 양질의 논문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학회 및 연구소 등 학술단체의 국제화 지원도 논문 번역을 지원하는 등 연구자가 좋은 논문을 쓰는데 실질적 도움이 돼야 합니다.”

좋은 논문은 어떤 논문일까? 김용휘 교수는 “논문의 좋고 나쁨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읽고 인용했는가에 달렸다”고 말했다. KCI 인용지수의 경우 연구자 개인 뿐 아니라 학술단체의 관리 수준 측정에도 반영된다. 김 교수는 “많이 읽히기 위해서는 인터넷 노출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원 등 접근을 제한한 학회 홈페이지를 누구나 접근해 학술논문을 볼 수 있도록 오픈 엑세스(Open Access) 방식으로 바꾸고, 한국어로 작성된 논문의 기초 정보를 영어로 제공하는 것 등이 인터넷 노출을 늘리는 방법이다.

김용휘 교수는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것은 광고와 동일하다”며 “현재 00미디어 등 일부 정보제공 업체와 제휴해 학술논문을 폐쇄된 공간에 가두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특히 전략적 키워드 사용을 통해 서치엔진 노출 빈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교학계의 경우 영문 표기에 사용될 용어 통일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조언도 이어졌다.

“불교학은 다른 어떤 학문보다 국제화가 빨리 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한국에서 무엇을 하는지, 한국에서는 어떻게 연구되고 있는지 목말라 합니다.”



김용휘 교수는 “한국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국제화된 용어”라며 “불교학계 등 한국 학술단체들이 독창성 · 주체성을 지켜야한다”고 강조했다.

“의학계를 보세요. 국내 의학수준이 일정 수준에 다다르자 이제는 영어를 고집하지 않는 분위기 속에 국제학술대회가 열립니다.”

김 교수는 “불교학 관련 용어 통일과 국제적 선점을 위해 위키디피아(www.wikipedia.org) 등 온라인에서 부지런히 불교 용어들을 홍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동섭 기자

# “불교학 연구 인력 양성 시급”

## 불교학연구회서 이중표 교수 주장

“불교학 연구의 가장 큰 장애는 연구인력 부족이다.”

종교편향 등으로 인재 불사에 대한 교계 관심이 높아진 때 불교학계에도 인재 양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이중표 교수(전남대)는 11월 8일 ‘근대 한국 불교의 자화상’을 주제로 열린 불교학연구회(회장 본각) 추계학술대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근현대 한국 불교철학의 성과와 전망’을 발표한 이 교수는 불교철학 연구의 문제점을 △연구인력 부족 △연구대상 편중 △연구성과 공유부족 △기초연구 부족으로 정리했다. 연구인력 부족은 종립대를 제외한 일반 사립대 철학과에 불교 전공 교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중표 교수는 “불교학 전공자들이 불교철학의 의의를 인식시키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성과 공유와 기초연구 부족에 대해서는 불교용어의 대중화된 통일과 전문연구의 기반이 될 색인 및 사전류의 보완 등을 제시했다.

조동섭 기자

# 진각논문발표회

## 진각종 교육원서

진각종 교육원(원장 경정)은 11월 14일 통리원에서 제10회 진각논문발표회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여래장에 관한 회당심인의 불교사상 연구(이경택) △불교와 진각종의 참회사상에 관한 연구(한진희) △대사파와 무외산파의 불교사상 수용태도에 관한 고찰(장유진) △비말라미뜨라와 삼예논쟁(박운진) △염불수행의 원리와 방법(김주경) △원시불교의 참회방식과 원리고찰(안필섭) 등 6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조동섭 기자

육조사 현웅스님의
禪心으로 본 聖經 강의
[11월 27일부터 시작]
20여년간 서양인들에게 성경을 통하여 禪 불교를 가르치다 온 현웅스님께서 聖經을 직강합니다.


선원장 현웅 스님
1967년 송광사에서 구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 68년 사미계를 받았다. 71년 통도사 극락암에서 월하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20년간 전국의 제방 선원에서 경봉, 성철, 구산, 전강 스님을 모시고 수십 안거를 성만했다. 1986년 미국 시애틀에 돈오선원을 창건한 은사스님의 유지를 이어 미국 버클리 육조사를 통해 해외포교에 매진하고 있으며, 서울 육조사를 창건하여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참선을 지도하고 있다.

성경의 뜻 바로 알면 종교적 다툼은 사라져 버린다.
虛心者 福來,..곧, 마음이 가난한者 天國이 너 안에 있다.

佛經도 바로 보지 못하면 佛을 등지고,
聖經도 바로 보지 못하면 예수뜻을 등지는 미신 신앙이 됩니다.

이 마음이
禪이며, 道이며, 眞理이며, 빈 마음 곧 가난한 마음입니다.

종교 편향화는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론이 분열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이조말 일제 식민지하의 역사를 통하여 보았습니다.
마침낸 타국의 소속국이 되어 슬픈 민족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진리는 모든종교의 근본입니다.
다만 그 설명들을 다른 말로 표현해 내고 있습니다.
진리의 길은 각종교의 방향을 바로 잡아 줄 수 있어야 하고,
다툼이 오면 그 다툼을 그치게 하는 힘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종교란 말만 들으면 그 언어는 같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엔 믿는 이에따라 천지 현격입니다.

〈2008년 11월 27일부터 2달간〉
◆일 시 : 매주목요일 저녁 7시 ~ 8시 30분까지
◆장 소 : 서울 육조사 禪房
◆참가자 : 출 재가자와 他 종교를 가리지 않음, 성인의 뜻을 깨닫고저 하신분에게 다 열려 있음
◆동참비 10만원. 〈예약을 요함〉
◆계좌번호 : 국민은행 016701-04-017439 (예금주 : 육조사)
◆육조사 TEL 02)925-0408
까페 cafe.daum.net/yukjosa
*지방에서 오신 분들은 주무시고 갈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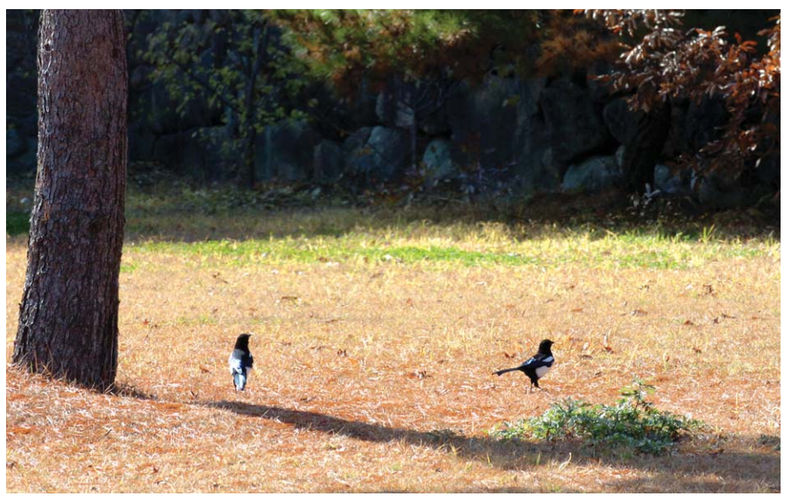
알 림

歸依三密하옵고
이 時代의 佛敎學, 儒敎學, 道敎學에 최고의 강백이신 원조覺性 큰 스님께서 주석 하시는 釜山 華嚴寺(전강원)에서 전강원생 스님들을 모시오니 經典硏究에 뜻있는 스님들 중 20분을 선착순으로 募集합니다.

■ 접수기간 : 2008년도 11월 11일부터 11월 29일까지
■ 자 격 : 강원 대교 졸업자, 중강실력자, 및 동등한자 비구, 비구니스님
■ 법 랍 : 20년 이상 (종단에서 중징계 및 사회범법자 제외)
■ 강의장소 : 부산 화엄사
■ 강의경전 : 唯識 三十誦. 八識規矩. 楞嚴經 (정맥소 한 것)
■ 수 강 료 : 무 료
■ 구비서류 : 조계종 재직 증명서 ..... 1통 / 대교졸업 증명서 ..... 1통
수행이력서 ..... 1통 / 사진(반명함판) ..... 1매
■ 수업일자 : 2009년 1월 13일 매월 셋째주 화요일 오후 3시-6까지
■ 접 수 처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5-1번지 천마빌딩 905호
■ 전 화 : 02)735-1053, 018-242-7070
※12월 4일까지 통지서 발송 (통지후 입회비 일십만원) / 국민은행 390401-04-043930

전 강원 입승 법경



### 마음을 향한 이름 직지사

# 대웅전 문 사이 부처님, 변함없는 미소 등불같아

흙으로 돌아온 낙엽을 밟으며 일주문에 들어선다.
현판에 걸린 '직지(直指)'라는 두 글자가 경전의 한 구절처럼 지나가고, 눈앞의 단풍나무는 어쩔 수 없는 시절로 다가온다.
가을 끝의 바람이 숲에 숨은 불씨를 들춰내듯 황악산 이곳저곳을 불어대며 마지막 남은 가을빛을 찾아내고,
황악산에 안긴 직지사는 그 짙은 풍경으로 또 한 번 물들고 있다.

도피안교(到彼岸橋)를 건너 천불선원 앞에 선다.
까치 한 쌍이 또 다른 세상을 찾은 듯 마당에 날아와 앉고,
다리 밑을 흐르는 개울물과 물 위에 떨어진 낙엽들은 잘나의 망설임도 없이 어디론가 흘러간다.

대웅전 문 사이로 부처님이 보인다. 늘 가까운 눈빛은 무릎을 꿇고 앉은 중생의 사연을 듣고,
변함없는 그 미소는 길을 잃고 앉은 마음에 등불을 밝힌다.
어두웠던 마음, 알 수 없는 물음을 떠나 다시 불단 앞에 앉으면 소리 없이 타오르는 향연(香煙)이 스승을 찾는 운수(雲水)처럼 법당 문을 나선다.

수많은 선지식이 머물다간 길고 긴 시간과 그들이 남긴 단단한 불교의 역사를 간직한 도량 직지사.
오늘도 산문(山門)엔 바람이 불고, 단풍이 들고, 낙엽이 쌓인다. 단풍나무 오솔길을 걷던 스님이 단풍잎 하나를 줍는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 불경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복장의식 상량식 불사 소장용 영가천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 / 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55,000원
10mm×10mm×12mm 65,000원
12mm×10mm×12mm 85,000원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26×16×16cm ~~155,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 1143-12-049474 송명화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 금강약돌 온열복대

온열뜸기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기발생기
전기용품 안정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안출원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앓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냉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 포교사 배출도량 울산 정토사 20주년

울산 도심 포교의 전당 정토사(주지 덕진)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정토사는 11월 7일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을 초청하고 창립기념법회를 열었다. 정토사는 조계종 신도전문 교육기관으로 불교대학, 울산시민선원 등을 운영하며 울산, 양산 지역에서 가장 많은 포교사를 배출하고 있다. 정우 스님은 법문을 통해 "100년도 못살 몸으로 태어났지만 흔들림이 없는 수행자의 길, 불자의 길을 걸어가자"고 당부했다.

박지원 기자

# '부산불교연합신도회' 생긴다

## 11월 11일 발기인대회… 사부대중 동참하는 신행단체로


부산광역시불교연합신도회 창립발기인대회가 11월 11일 열렸다.

불심의 도시, 부산에 출가자 비구·비구니스님과 재가불자를 아우르는 대표 신행단체가 출범한다.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회장 정여)는 11월 11일 오후 4시 양정 금정불교대학 법당에서 '(가칭)부산광역시불교연합신도회 창립발기인대회'를 열고 창립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날 대회는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가단체 소개, 창립취지문 낭독, 연합신도회 창립기조발언, 정관작성 소위원회 구성, 창립총회 일자결정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불교연합신도회 창립준비위원장 정각 스님(불교연합회 상임부회장)은 창립기조발언에서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재가수행단체로 모든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 한층 더 위상을 높이게 될 것"이라며 "최근 종교탄압, 마지막 성시화 지역 선정 등으로 부산불교가 위협받고 있는 요즘 사부대중이 하나가 된 불교연합신도회가 불법을 수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창립 발기인대회에는 조계종, 천태종 및 총 15개 종단, 50여 개 사찰, 총 30여개 재가불자 신행단체가 참여했다.

12월 4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팔관회 및 불교엑스포를 앞둔, 11월 20일 저녁 6시 30분 온천장 농심호텔에서 창립기념법회를 열고 본격 출범하게 된다.

불교연합회 사무총장 자인 스님은 창립 취지문을 통해 "부산불교연합회는 1980년 故덕명 스님(前 범어사 주지)을 초대회장으로 창립한 이래, 28년간 출가 이부중인 비구·비구니스님 단체로서 지역불교의 발전과 종단 화합 및 결속, 부산 대표 수행 단체로 자리매김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 200만 재가불자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의 필요성을 여실히 공감하고, 이사스님 전원 만장일치로 부산광역시불교연합신도회를 결성하게 됐다"며 "부산 지역 모든 종단 사찰의 신도회를 포함한 재가신행단체를 통합·관리하고, 승가단체인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와 유기적 연계를 통해 진정한 사부대중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존 부산광역시불교신도회의 기능과 다소 중복이 예상돼 순조로운 조율이 선결 과제로 떠올랐다.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 관음보살 점안·3주년 법회

## 울산 연화사 도심포교 매진 다짐


울산 연화사 관음보살 점안 및 개원 3주년 법회.

울산 연화사(주지 덕윤)는 관세음보살 점안 및 개원 3주년 기념법회를 11월 8일 장수 죽림정사 조실 도문 스님을 모신 가운데 봉행했다.

법회는 조계종 어산어장 동주 스님과 행자교육원 교수사 정오 스님을 법주로 열린 점안의식에 이어 도문 스님은 법어를 통해 "연화사가 호계불교대학을 중심으로 도심 포교에 매진해 온 지난 3년을 바탕으로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는 계기를 삼아야 한다"며 "굳건한 믿음으로 관세음보살님의 원력을 생활 속에서 성취하는 불자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연태 기자

# "동탑·출토유물 문화재로"

## 창녕 인양사 11월 7일 동탑제 열어

창녕 인양사(주지 혜일)는 11월 7일 술정리동삼층석탑 절터에서 국보 제34호 동탑제를 봉행했다.

올해로 11번째를 맞은 창녕 술정리동삼층석탑 동탑제는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원문 낭독, 문화유산헌장 제창, 前 통도사 주지 태응 스님 법문으로 이어졌다.

석탑지킴이를 자처한 주지 혜일 스님은 "소중한 유물들이 여전히 문화재 지정을 받지 못한 채 잊혀져가고 있다"며 "하루 속히 문화재로 지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탑은 1965년 해체 복원 당시 3층 몸돌에서 뚜껑 달린 청동잔형사리용기, 유리재 담황색 사리병, 오색구슬류 및 부처님 진신사리 7과 등 유물 총 14점이 출토됐다. 그 후 부처님 진신사리 7과는 스테인리스 그릇에 옮겨 보관됐으나 나머지 유물은 모두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로 옮겨져 38년째 방치돼 창녕박물관으로 환수하기 위한 운동을 벌이고 있다.


창녕 술정리동삼층석탑과 출토유물의 문화재 지정을 발원하며 탑돌이 하는 불자들.

박지원 기자

## 바다숲 가꾸기

양산 통도사(주지 정우)와 부경대학교가 생명경시풍조 근절을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바다숲 가꾸기' 행사를 벌였다.

11월 10일 부산 해운대 동백섬 앞 바다에서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과 부경대 박맹언 총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역 포자(홀씨)와 미세 조류, 감성돔 치어 등을 방생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부경대 수산과학기술센터가 7개월간 키운 감성돔 치어 5000마리와 미역포자 암수 배우체 10만개, 미세조류 클로렐라 40ℓ 등을 바다에 뿌렸다. 감성돔 치어들은 클로렐라를 먹고 미역숲에서 건강하게 자라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맹언 총장은 "바다와 생명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통도사와 함께 현대인의 생명경시풍조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기자

## 김장 나눔 후원

### 용호복지관 지원행사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춘성)은 연말연시를 맞아 '사랑의 김장나누기 및 연탄, 보일러기름 지원' 행사를 실시한다.

용호동 지역 내 거주하는 독거노인,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한 부모 가정 등 총 450세대를 대상으로 직접 담근 김장 김치를 전달하고, 각 가정에 연탄 및 보일러기름을 지원하게 된다. 후원금은 김치 1포기 또는 연탄 10장인 3000원 이상이며 김장김치 및 배추, 고춧가루, 김장양념류, 부식 일체, 보일러 기름, 연탄, 전기장판, 각종 난방제품 등의 후원도 받고 있다. 후원금은 소득세법시행령에 의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051)638-6737

박지원 기자

## 국제보살계 수계

### 마산 자비암서 봉행


11월 8일 열린 국제보살계 수계식.

마산시 추산동에 위치한 자비암(주지 청정)은 11월 8일 국제보살계 수계와 선망후망 조상및 영가들의 천도를 위한 기도를 불자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봉행했다.

티베트 달라이 라마가 증명한 텐진 린포체의 마정수기와 티베트 의식으로 영가들의 왕생극락을 발원하는 특별 천도의식이 진행됐다.

청운 경남남부지사장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사)동련 최미선 사무국장

# "절마다 어린이법회 열렸으면…"



22년간 어린이여름불교학교 총 130여 회 참가, 7000여 명의 어린이를 가르친 '부산 어린이 포교의 달인' 사단법인 동련 최미선 사무국장(사진)을 만났다.

세상 모든 어린이들과 어린이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 부처님의 자비로운 미소를 꽃 피우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최미선 사무국장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로 '온 누리의 모든 어린이들을 사랑한다'고 말한다. 1986년 (사)동련의 모태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때부터 변함없이 부산 어린이포교를 지켜온 원년멤버다. 유치원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던 중 어린이법회 교사 일을 시작했다.

신흥사에서 주최하는 '라홀라 포교대상' 어린이부문을 수상하고, 올해 초에는 여성개발원이 뽑은 '여성불자 108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최 국장은 "어린이포교는 알면 알수록 어렵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안전사고가 나면 소용없다. 또 너무 재미만 추구하면 불심을 놓치기 때문에 불교라는 테두리 안에서 아이들이 즐겁게 받아들이도록 해야 하는 신중하고 어려운 일"이라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그녀의 손을 거쳐간 어린이가 7000여 명이 넘을 정도로 부산 어린이포교의 최전방에서 뛰고 있다.

"어린이법회는 청소년, 대불련, 성인불자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현재 부산 불교계는 안타깝게도 위만 있고 아래는 없는 기형적인 양상을 보인다. 어린이포교는 몇몇 단체나 소수의 힘이 아닌 범종단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최근 몇 년간 어린이법회에 대한 반짝 관심이, 갑작스럽고 일시적인 관심이 아닌 거시적 안목에서의 큰 움직임으로 이어지는 지속적인 도움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사실 최미선 사무국장도 어린이법회 출신이다. 할머니의 8년에 걸친 지극한 기도로 태어난 최 국장은, 어린 시절 할머니를 따라간 영도 관음정사에서 유년시절을 보냈다. 절을 놀이터 삼아 뛰어놀며 자연스럽게 불교를 접하고 좋아하게 된 것이다. 이후 대각사에서 고등학생회 활동으로 인연이 닿아 어린이 포교지도교사로 일을 시작하게 됐다. 금천선원에서 어린이법회 지도교사로 함께 일하던, 지금의 남편도 그렇게 만나게 됐다고 한다. 지금도 좋은 일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면 두 아이를 데리고 마음이 닿는 절을 찾아간다.

최 국장은 언젠가 지현 스님(동련 이사장)이 해주신 '항상 깨어있으라'란 말씀을 늘 가슴 깊이 새긴다. "생각은 잡을 수도, 놓을 수도 있는 것이다. 집착을 버리면 내 옆 사람, 내 뒷사람을 돌아보는 눈을 뜨게 된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너 혼자 잘난 사람이 아니라 항상 친구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돼라' 가르친다"고 말했다.

어린이포교의 현주소는 칭찬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높다. 하지만 최미선 사무국장이 그리는 10년 후는 밝고 희망차다. "더 이상 선생님이 없어서, 교재가 없어서, 운영자금이 부족해서 어린이법회를 중단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10년 후에는 세상 모든 사찰에 어린이법회가 운영되는 것이 당연시되는 그 날이 오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 장병 독경대회 열려

### 임실 탄약창서



11월 9일 호국장영사 독경대회가 열렸다.

임실 탄약창(창장 방향석 대령)은 11월 9일 부대 내 호국장영사(지도법사 이성강 포교사)에서 장병 2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독경대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단체부 6개 팀과 개인 21명으로 나눠 진행됐다. 장병들이 독경실력을 뽐낸 대회에서 제2경비 중대와 제1탄약중대 권승호 일병이 각각 단체부와 개인부 우승을 차지해 4박5일 휴가증을 받았다. 동참한 불자 장병들에게는 108염주 세트, 호신불, 불서 등 선물이 전달됐다.

이성강 포교사는 "장병들의 독경실력에 감탄했다"며 "동안거 결재기간 중 부대내 수련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분기마다 독경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전주 천천클럽 10년

### 창립행사서 장학금 전달

1000원의 작은 정성을 모아 이웃들과 더불어 밝고 활기찬 사회를 만들어가는 '전주 천천클럽'과 '전주우리는선우'(회장 오종근, 호원대 교수)가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전주 천천클럽은 11월 9일 전주 관광호텔에서 창립 10주년 기념법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원행 스님(김제 금산사 주지), 도영 스님(조계종 前 포교원장)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오종근 회장은 "1000원은 작은 돈이지만 물 한방울이 모여 강물을 이루듯 작은 정성이 모여 세상을 훈훈하게 할 수 있다"며 "앞으로 법인을 설립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영 스님은 축사에서 "지난 10년 동안 변함없이 우리 이웃을 위해 노력해 온 임원진들과 회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며 "여러분들의 정성이 우리 이웃들에게 큰 희망을 주기 바란다"며 격려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지희종(호원대 3년)군 등 7명에게 장학금 30만원씩이 전달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사찰풍경 렌즈에 담기

### 선운사서 사진촬영대회

가을단풍이 절정을 이룬 산사 풍경을 카메라에 담는 사진촬영대회가 열렸다. 고창 선운사(주지 법만)는 11월 8일 선운사 경내에서 제2회 '고창 선운사 전국사진촬영대회'를 개최했다.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정읍지부와 전북협의회가 주관하고 한국사진작가협회, 고창포토클럽이 후원한 사진촬영대회에는 전국 1300여 사진동호인들이 참가했다.

동호인들은 바람 따라 흔들리는 단풍을 비롯해 선운사 배경의 동자승과 스님 20여 명이 모델로 나서 천년바라춤과 영산작법, 선비춤, 부채춤, 화관무, 승무, 살풀이 등 다양한 모습을 렌즈에 담았다.

법만 스님은 축사에서 "사진은 보이는 것 속에서 감춰진 진실을 찾기도 하고, 보이는 것을 다각도로 해석하기도 한다"며 "현상을 통해 진실에 접근하는 훌륭한 예술작품을 보여달라"고 격려했다.

한편 촬영된 사진은 금 · 은 · 동상, 가작, 입선작 등으로 연말에 전시할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통일쌀' 불전 공양… 개성서 전달

## 구례 화엄사 동안거 결제법회



11월 12일 구례 화엄사 동안거 결제식에는 '통일쌀 짓기 사업'으로 수확한 공양미가 올라 눈길을 끌었다.

운수납자들이 산중 사암에 행장을 풀고 용맹정진에 돌입하는 무자년 동안거 입제일을 맞아 구례 화엄사(주지 종삼)에서는 특별한 동안거 결제법회가 열려 눈길을 끈다.

화엄종찰 화엄사(주지 종삼)는 11월 12일 동안거 결제를 맞아 '통일쌀 짓기 사업'에서 수확한 5000만원 상당의 쌀과 지역농민들의 수확물을 공양했다.

화엄사 스님들과 구례군 농민회, 기아차광주공장노동조합, 조선대 총학생회 등은 지난 봄부터 북한 주민을 돕기 위해 화엄사 소유 토지 2만평에 쌀농사를 지었다.

선원장 현산 스님은 법어에서 "결제에 들어가는 수행자들과 농민들이 진실된 즐거움을 찾는 길이 자기 자신의 진정한 마음자리를 찾는 길"이라며 "이번 결제에서 마음자리의 진성을 깨닫는 시기가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구례군 농민회 정정섭 회장은 인사말에서 "여느 해보다 풍년이 든 올해 '통일쌀 짓기 사업'을 통해 북한의 굶주린 주민들을 돕는 의미 있는 일까지 하게 돼 더욱 감사하다"고 말했다.

수확한 통일쌀은 화엄사 스님 10명과 농민회 45명,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20명, 조선대총학생회 5명 등 전체 80명이 함께 개성을 방문해 전달할 예정이다.

농민회 한 관계자는 "'통일쌀 짓기 사업'으로 화엄사와 지역농민들이 함께 친목을 도모했을 뿐 아니라 지역농민들은 1가마 10만원 당 7000원(7%) 쌀값 상승효과를 얻었다"며 "앞으로 묘목재배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헌공에는 통일쌀 외에 구례군 농민회 산동면지회 김양운 총무와 기아차노조 광주지회 등 '통일쌀 짓기 사업' 구성원들이 준비한 곡물, 과일 등 정성 담긴 공양물이 함께 올려졌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음악으로 자비 나누어요"

## 광주 지장암 소년소녀가장 위한 산사음악회 개최




11월 8일 광주 지장암 경내에서 열린 산사음악회 현장.

차가운 기온만큼 싸늘한 경제 상황으로 온정의 손길조차 뜸한 때 광주지역 사찰 및 신행단체가 어린 불자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전해 훈훈한 미담으로 회자되고 있다.

광주 지장암(주지 서경)은 11월 8일 지장암 앞마당에 특설무대를 마련해 소년소녀가장에 꿈과 희망을 주는 제1회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부산 용궁사 정암 스님, 인천부루나 포교원 선일 스님, 송광운 북구청장을 비롯해 지역 소년소녀가장들과 복지단체 관계자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행사에 이은 산사음악회는 광주불교사암연합회 합창단 공연을 시작으로 탤런트 윤용덕씨의 오카리나 연주, 이보영씨의 시낭송, 판소리 사철가, 태평무, 무상 스님의 팝송, 보공 스님의 아코디언, 주지 서경 스님의 하모니카 연주로 진행됐다.

서경 스님은 인사말에서 "음악은 우리 삶을 정화하고 풍요롭게 하며 인종과 문화, 종교 초월한 세계의 공통언어다. 이 음악회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나누고 더 많은 이들과 함께 사랑과 감동을 상승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음악회의 수익금은 전액 광주광역시 북구청을 통해 지역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전달된다.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현지, 이하 광주생명나눔)도 11월 11일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환우 이웅빈(9) · 이동혁(7)군, 박진식(39)씨에게 각각 치료비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과 헌혈증서 1000매를 전달했다.

전달된 치료비는 10월 22일 광주생명나눔 창립 10주년 기념 난치성 소아암 어린이 돕기 자선음악회를 통해 모금됐다.

한편 전달식에는 환우가족들을 포함해 현지 스님, 명신 스님(연화사), 도제 스님(원각사), 지각 스님(동원사), 범희승 병원장(화순 전남대병원) 등이 참석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광주광역시청 불자회 김상호 회장

# "생각·형식서 자유로운 불교가 좋아"

광주광역시청(이하 광주시청)은 140만 광주시민의 살림을 맡는 곳이다. 광주시청 불자모임(이하 시청불자회) 김상호 회장(사진)을 만났다.

김 회장은 광주시에서 문화수도정책관을 맡고 있다. 광주를 새로운 문화도시로 일신하기 위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프로젝트의 실무자이기도 하다.



광주시청에는 시청사 내 종교단체를 포함해 20여 동호회가 활동 중이다. 이 가운데 시청불자회는 회원 100여 명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시청불자회는 2003년 12월 20일 천운 스님(향림사 조실)과 도영 스님(송광사 주지)를 모시고 현지 스님(원효사)을 지도법사로 탄생했다. 매월 정기법회와 반야심경을 비롯한 경전공부를 펼치는 등 뜨거운 수행열기를 이어온 시청불자회는 매년 사찰순례를 겸한 정기수련회도 개최하고 있다.

시청불자회의 창립은 광주시각 구청 불자회 창립에도 큰 영향을 줬다. 시청불자회가 창립되자 서로 약속이나 한 듯 광산구청, 동구청, 북구청 등에서 잇따라 불자회가 결성됐다.

김상호 회장은 이호준 前 회장에 이은 제2대 시청불자회장이다. 첫눈에 봐도 누구라도 좋아할 호인으로 관음보살의 자비와 문수보살의 지혜로 행정업무를 수행해 호평이 자자하다.

"불교입문은 10여 년 전 우연한 기회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곡성 연화사에서 장모님 49재가 계기가 됐지요. 이후 자연스레 불교에 입문하게 됐고, 원효사, 정안사 등에서 신행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우연한 기회라지만 보통 인연은 아닌 듯해 김 회장에게 불교가 좋은 이유를 물었다.

김상호 회장은 "다른 종교에 비해 편하다"며 "오랜 기간 타 종교에서 신앙생활을 했으나 불교만큼 생각과 형식에서 자유로운 종교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에게서는 어디에도 구속받기 싫은,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대자유인의 모습이 엿보인다.

이런 김상호 회장의 성향은 따로 회장직을 맡아 활동 중인 문화유적답사회 등 그의 활동영역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연말에 사찰에 가면 '예수보살 탄생 축하'라는 현수막을 많이 봅니다."

김 회장은 바로 이런 점이 타 종교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인정하는 대표적 강점이라 설명했다. 개인적 신앙과는 별도로 공적인 업무에 있어서는 종교적 중립과 시민들의 다양성을 인정해야하는 공무원 자세가 배 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김상호 회장은 "시청불자회의 활성화를 위해 회원간 교류에 중점을 둘 것"이라 말했다. "회원들의 바쁜 공무로 시간 맞춰 법회를 여는 것도 쉽지 않다"는 김 회장은 올해 법회다운 법회를 열지 못한 것을 못내 아쉬워했다. 김상호 회장은 "연말 송년법회를 여법하게 봉행해 아쉬움을 달래고 내년부터는 정기법회를 열 계획"이라 말했다.

광주지역 대표적 공무원 불자회인 시청불자회는 공무원 사회는 물론 이웃 단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김상호 회장의 법회 활성화 원력이 광주지역 공무원 불자회를 이끌어갈 원력보살의 탄생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불경학습의 새로운 시작!

보고 · 듣고 · 배우는~

휴대용 시청각 학습기 아이센스 T-108 출시!

불법을 공부하시는 사부대중 –
학인스님, 행자스님, 천도재, 상단불공, 시식 등의 의식을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시죠?
어려운 경전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쉽도록 인도하는 첨단불경 학습기기!

염불(念佛),염송(念誦)모음

■ 염 송 경 • 반야심경 • 천수경 • 불설아미타경 • 금강반야바라밀경 • 원각경 • 관세음보살보문품 • 이산혜연선사 발원문 • 불설약사여래본원경 • 화엄경 보현행원품 • 화엄경 약찬게 • 초발심자경문 • 무상계 • 의상조사 법성게 • 장엄염불 • 부모은중경 • 백팔대참회문 • 대불정능엄신주 • 지장보살본원경 • 천지팔양신주경 • 보왕삼매론

■ 염송의범 • 송주편 • 예경편 • 불공편 • 천도재 · 49재편




• 제 품 명 : 아이센스 T-108
• 제품구성 : – 아이센스 · 염송경집 1부 · 염송의범 1부
– 기기크기 : 9.5㎝×6㎝, 화면크기 : 5㎝×4㎝, 기기두께 : 0.8㎝
• 제품의 특징(개발동기)
의식을 공부하시는 불자분들의 종전 학습방법은 책을 본다든지 테이프를 듣는 식으로 쉽게 이해할 수 없었으나, 본 제품은 염송경과 염송의범을 듣고 화면으로 보면서 본문에 대한 해석(한글로)과 의식까지도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불경을 학습하는데 크게 기여합니다.
• 제품사양
컨텐츠 캡션 MP4 재생기능, 동영상 촬영, 내장형 카메라, 녹음기능, MP3, 멀티태스킹 · 백그라운드 음악, 내장 1G 플래시, 외장 2G, 320×240 TFT LCD 화면, FM 라디오 내장, 터치패드 사용, 게임기능, 전자수첩, 영 · 일 · 한자 전자사전
※영어 · 일어 · 중국어도 함께 공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 하십시오. 도연아카데미
문의 및 신청 (02)2666-0676~8
157-280 |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701-6 상희빌딩 301호
전국 대리점 모집 : 010-3785-9398
신청하시면 택배로 다음날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종단을 말한다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도선 스님

# "생활·실천불교로 정토 구현"

한국불교는 국민들의 정서·문화와 함께 발전해온 생활종교다. 하지만 요즘 불교는 법맥을 중요시 하고, 산중수행만을 강조함으로써 국민들 일부에게만 받아드려지는 '어려운 종교'가 됐다.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된다'는 생각이 분열을 낳았고, 그 분열이 오늘날 종교편향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국생활불교조계종(종정 정관)은 이를 타파하고, 대승불교의 교리를 통해 생활·실천불교정토를 구현하고자 2003년 10월 창종했다. 한국불교 본연의 모습을 찾아, 대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어려운 종교가 아닌 누구에게나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는 불교로 자리매김하기 위함이다.


도선 스님.

본 종단은 자각각타 각행원만(自覺覺他 覺行圓滿)의 '어떤 사상이나 편견에 걸림없이 이(理)와 사(事)가 한결같이 평등하다'는 사상을 근본교리로, 280여 명의 스님·법사가 240여 개 종단 소속 사찰에서 수행과 포교에 힘쓰고 있다. 특히 총본산 관법사(경북 영양군 수비면)는 경내에 폭포가 흐르는 천애자연에 위치한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사찰로, 생활불교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태고종풍을 선양해 상구보리하화중생(上求菩提下化衆生), 호국안민(護國安民)을 실천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생활불교조계종은 생활·실천불교를 구현하기 위해 종단 내실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07년부터 관법사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전국주지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종단소속 스님들을 위해 창종 직후부터 매년 3회 이상 생활·포교방편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수시로 진행하는 소임스님회의 역시 종단 내부화합을 위한 한 방편이다.

생활불교를 더욱 널리 알리기 위한 해외포교도 활발히 진행중이다. 많은 종단 소속스님들이 일본·중국·하와이 등에서 사찰건립 불사를 진행하고 있다.

본 종단은 앞으로 2011년까지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 가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체계적인 종도 교육을 위한 교육관 건립, 포교 기본지침서를 발간해 종단 내실을 보다 확고히 할 예정이다. 또한 각 교구의 역할을 활성화해 지역 복지사업동참을 의무화 하는 등 대중과 함께 호흡하는 한국생활불교조계종으로 자리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총무원(054)682-5808

정리=김진성 기자

## 교리 통해 생활·실천불교 정토 구현코자
## 매년 스님 위한 생활·포교방편 교육 실시

**바로잡습니다** 705호 대한불교대승종 기사에서 종정 천관 스님을 천광 스님으로, 창종연도 1998년을 1988년으로 정정합니다.

# 보살십선계 수계관정불사 봉행

## 진각종, 서울 탑주심인당·대구 희락심인당 삼매야계단

진각종(통리원장 회정)은 11월 10일 서울 탑주심인당 삼매야계단에서 '보살십선계 수계관정불사'를 봉행했다.

도흔 종인을 비롯한 7증사와 3아사리가 참석한 이번 불사는 계청, 계체이운, 헌화, 설계단문, 청계, 성취계체, 설계상, 관정 및 가지, 입지게, 법어 순으로 봉행됐다.

전계아사리 성초 정사는 법어에서 "법신의 대광명 두루 비치어 시방에 충만해 다함이 없다. 진언행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청정계를 받으니, 계행은 능히 보리의 근본을 열었다"며 "금생에 변함없이 마음에 새겨 항상 선지식의 친근함을 얻어 불·법·승을 깊이 믿으니 모든 공덕 구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계자 대표 유태광씨는 입지게에서 "이제 계를 설해 받았으니 금생으로부터 성불에 이르기까지 견고히 가지고 지킬 것"이라며 "차라리 신명을 버릴지언정 물러나지 않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이번 수계과정불사는 총 112명이 수계를 받아 갈마 아사리에게 금강선을, 전계 아사리에게 금강수를, 교수 아사리에게 계첩을 각각 수여받았다. 수계자 임명준씨(45·법명 지연행)는 "수계관정을 받음으로써 진짜 불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든다"며 "앞으로 진각종도라는 자부심을 갖고 부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11월 10일 진각종 탑주심인당에서 열린 '보살십선계 수계관정불사'.

통리원장 회정 정사는 "밀교에서는 관정을 받지 않으면 진언(眞言)과 인계(印契) 등을 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관정을 중요시하고 있다"며 "수계자들은 보살십선계 수계관정을 통해 불자로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살십선계는 △자비한 마음으로 살생하지 말라 △청정한 마음으로 투도하지 말라 △정결한 마음가짐으로 사음하지 말라 △정직한 마음으로 망어하지 말라 △진실한 마음으로 기어하지 말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악구하지 말라 △화합하는 마음으로 양설하지 말라 △보시하는 마음으로 탐욕하지 말라 △환희하는 마음으로 진에를 내지 말라 △지혜를 밝혀 사견을 내지 말라 등 10가지 계율이다.

한편 진각종은 11월 11일 대구 희락심인당 삼매야계단에서도 보살십선계 수계관정불사를 봉행했다.

김진성 기자 yearn@buddhapia.com

# 국민화합 기원 천태예술제 개최

## 11월 30일 안산 문화예술의전당서

음성불사를 통한 문화포교로 불교의 대중화에 앞장서 온 천태예술제가 올해로 제10회를 맞이했다.

천태종(총무원장 정산)은 11월 30일 오후 4시 30분 안산 문화예술의전당에서 '국민화합 기원 제10회 천태예술제'를 개최한다.

이번 예술제는 금강 무용단 20명이 1부 불교창작무용 '하늘꽃'을 공연하고, 서울·경기 천태연합합창단 250명과 △천태전통범패보존연구회 △성악가 김재일(바리톤) △L.M.B 중창단 △한양대 국악과 학생 등이 2부 교성곡 '보현행원송' 공연을 장엄하게 펼친다.

광덕 스님이 작시하고 박범훈씨가 작곡한 '보현행원송' 공연은 2007년도 기획한 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2번의 오디션을 거쳐 출연자를 선정했다. 또한 다수의 공연인원에도 불구하고 2008년 9월부터 일주일에 두 차례 연습을 하는 등 공연준비에 심혈을 기울였다.

예술제를 기획한 광언 스님(문화국장)은 "천태예술제는 지난 9회동안 음악을 통해 부처님 말씀을 설하는 대중적인 공연으로 문화포교에 큰 기여를 했다"며 "이번 공연은 보현보살행을 실천해서 참생명의 가치를 높이자는 의미에서 기획됐다"고 행사의의와 취지를 설명했다.

스님은 "열번째 행사를 계기로 앞으로 보다 수준 높은 불교예술창작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예술제가 사부대중 화합과 국태민안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발원했다.

관문사는 11월 12일부터 선착순 1000여 명에게 초대장을 무료배포하고 있다. (02) 3460-5300 김진성 기자

# 천태종 정기종회 개최

천태종 종의회(의장 도정)는 11월 23~30일 제82차 정기종회를 개최한다.

2009년 종단 예산 및 산하 기관의 업무계획 등을 심의하는 이번 종회는 개회와 함께 구인사에서 각 분과별 심의를 시작하며, 본회의는 29일 오전 9시 인광당 종의회 회의실에서 열린다.

예산심의는 각 분과별로 진행되며 총무분과위원회가 23~25일 △총무원 총무부·교무부·교육부 △금강대학교 △금강신문, 법제분과위원회가 24일 △총무원 사회부·규정부 △감사원, 재무분과위원회가 23~24일 △종단 예산안 △총무원 재무부 △상월원각대조사 탄신 100주년기념사업회 △사회복지법인 △동해건설 △나누며하나되기운동본부 등의 예산안과 업무계획을 심의한다.

김진성 기자

# 천태종 평화통일 사진전 개최

## 황룡사 시작으로 전국 사찰 순회전시

천태종(총무원장 정산)은 11월 9일 인천 황룡사에서 개성 영통사 낙성 3주년 기념 '남북평화통일기원 문화교류 사진전' 기념 법회를 봉행했다.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 종의회의장 도정 스님, 안상수 인천광역시장, 탤런트 김혜옥씨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된 이날 법회는 △테이프 커팅 △상월원각대조사 법어 봉독 △개식사 △총무원장 법어 △축사 △통일발원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정산 스님은 법문에서 "상월원각대조사의 3대 지표에는 남북이 평화롭게 살기 바라는 의지가 담겨 있다"며 "사진전은 남북 평화 정착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사진전은 천태종과 북측 개성 영통사 복원위원회의 2002~2005년 영통사 복원과정과 2007년 영통사 성지순례 등 500여 점의 사진이 전시됐다. 사진전은 황룡사에 이어 천태종 전국 사찰을 순회하며 열릴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영산수륙대법회 봉행




한국생활불교조계종(총무원장 도선)은 10월 31일 충주중앙탑에서 영산수륙대법회를 봉행했다. 종정 정관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법회는 호국영령과 순국선열 영혼의 안녕, 불국정토실현을 기원했다.

김진성 기자

# 제2회 천태종 창작등 경연대회

## 창작도, 활용성 등 4개 부분 심사

천태종(총무원장 정산)은 '제2회 천태종 창작등 경연대회' 출품작을 공모한다.

이번 대회는 천태종 신도등록자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소재, 작품 수에 제한 없이 천태종단 이미지에 부합되는 작품을 출품하면 된다.

최우수상 1팀에 상장 및 상금 100만원, 우수상 2팀에 상장 및 50만원이 수여되며, 심사기준은 △창작도 △활용성 △디자인 △완성도 등 4개 부분이다.

참가를 원하는 대상자는 천태종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은 후, 총무원 교무부에 12월 5일까지 방문·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수상자는 12월 10일 천태종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043)420-7309

김진성 기자

수제화
고무신코 만 행 화
상표등록 614981호, 디자인등록 0407120호, 발명특허 0554383호

방한용털신
• 가격 : 6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검정

조각무명
특 무 명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자연색

최고의 선 물

3-1끈
• 가격 : 90,000원
• 규격 : 220-255mm
• 색상 : 회색,검정

사계절단화
풍산동 99%
지압식 팔창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검정

지압깔창
발명특허원41435
풍산동 99%
• 가격 : 15,000원

■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합장
NAVER 통합검색 만행화 검색
인터넷쇼핑몰 만행화를 검색해 보세요
◆ 본사, 전시장 : 서울 종로구 공평동 143번지 402호 (종각역 2번 출구 100m거리)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나무"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속설에 의하면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 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오대산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 수도하시는 스님들은 혈액을 맑게하여 원기와 기력을 돋우고 관절을 보호하며 몸의 냉기를 제거시켜 혈액순환이 잘되어 추위를 이겨내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마가목 차를 드시며 수행하고 산승이 금강산 유점사에서 득도하신 고승으로부터 고유전래의 비법을 전수 받아 청정한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시주 불자님께서 요청하시면 보시합니다.

대진 승 두손 모음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출연 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상담문의
경기도 양평군 용문산 도솔암
전화번호 031)775-1285

양 지 국 악 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승무북, 모듬북·장고·징·꽹과리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릅니다
◆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갑니다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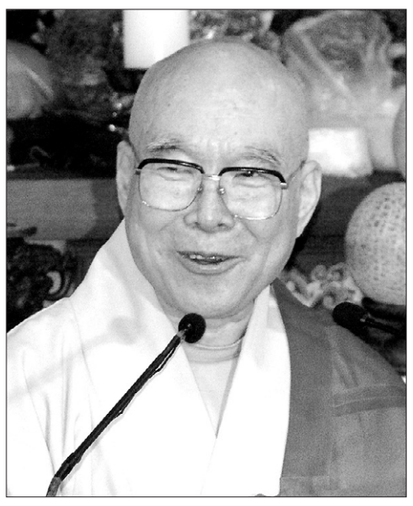
안성 활인선원 개원 기념 법문

# "차별심 평등심으로 바꾸면 모두 행복해요"

법 사 : 고우 스님(조계종 원로의원, 금봉암 조실)
주 제 : 생활 속의 선수행
일 시 : 2008년 11월 9일
주 최 : 활인선원(선원장 대효)
장 소 : 경기도 안성 활인선원 대웅전

제주 원명선원(선원장 대효)은 11월 9일 경기도 안성 죽산면 매산리 비봉산에 활인선원을 개원했다. 원명선원의 중앙연수원격인 활인선원은 대효 스님이 10여 년간 혼신의 힘을 다해 일군 도량으로 법당과 8개 동의 수련시설을 갖춘 간화선전문 수련원이다. 12월 24~31일 간화선 삼매체험과 단식수련회를 시작으로 매월 넷째주 토요일마다 참선법회를 여는 활인선원은 서울 인근에서 가장 큰 전문수련원으로서 조사선풍을 진작시키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4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개원법회에서 조계종 원로의원 고우 스님은 '불교의 본래의미와 수행의 필요성'을 주제로 생활 속의 참선법에 대해 법문해 큰 호응을 얻었다. 고우 스님의 선법문을 통해 '알아도 30방, 몰라도 30방'인 선의 세계로 들어가 보자.


고우 스님.

"안다 해도 아직 문밖의 사람이요, 모른다 하면 송장입니다."

선사들의 이런 표현에 대해 '어렵다' '공허한 화두다'라고 말들 하지만 사실은 공허한 게 아닙니다. 오늘 활인선원 불상에 점안을 하고 낙성법회를 하는 뜻을 제대로 알고,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를 안다면 공허한 표현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화두는 선사스님들이 우리 손에 과일을 놓아주듯이 자비를 베푼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일이 뭔고 하면, 부처님이 발견한 세계입니다.

<법화경>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큰 부자가 어릴 때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들도 집을 기억하지 못해 이 집 저 집 밥을 얻어먹으며 자랐습니다. 하루는 자기 집에 밥을 얻어 먹으러 가게 됐는데, 아버지가 한눈에 아들임을 알아차립니다. 당장이라도 "니가 내 아들이다"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굉장한 부자가 자기 아버지인 줄 믿지 못해 도망갈 것 같기에, 아버지는 일단 "너, 우리 집에서 마당이나 쓸고 살아라"하고 말합니다. 그렇게 아들이 집안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점차 중요한 일을 맡기고 나중에는 집안일 전체를 관리하는 집사에 임명합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고용인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이제는 주인으로서 집을 관리해라."

아들도 정황 이야기를 듣고 비로소 자기가 본래 부잣집 아들이었음을 믿게 됩니다.

이처럼 주인과 고용인으로 사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부처님이 발견한 세계를 몰라서, 주인이 아니라고 착각하고 오해하면서, 우리는 고용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법문을 주고 받는 것도 주인이 돼 행복하게 살기 위한 것입니다.

옛날 당나라 때, 대주(大珠) 선사가 처음으로 강서(江西)에 이르러 마조(馬祖) 스님을 뵙고 예를 표하니, 마조 스님이 물었습니다.

"어디에서 왔느냐?"

"월주(越洲) 대운사(大雲寺)에서 왔습니다."

"여기에 무엇을 구하려고 왔는가?"

"불법(佛法)을 구하러 왔습니다."

"자기의 보물창고는 살펴보지 않고, 집을 떠나 먼 곳을 헤매고 다니면서 무엇을 하는가? 나는 아무 것도 가진 게 없는데, 그대는 무슨 불법을 구하는가?"

대주 선사가 엎드려 절하고 물었습니다.

"무엇이 저의 보물창고입니까?"

"지금 나에게 묻고 있는 그것이 그대의 보물창고다. 그곳에는 온갖 것이 다 갖춰져 있어서 조금도 모자란 것도 없고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데, 어찌 밖에서 헛되이 찾고 있는가?"

대주 선사가 이 말에 크게 깨우치고, 자신의 근본 마음을 알았습니다.

대주 선사가 깨달은 이 보물은 우리한테도 다 있으며, 아무리 써도 다 쓸 수가 없어요. 이런 게 있으니 주인노릇하며 잘 쓰고 행복하게 살라는 게 부처님 가르침의 목적입니다.

불교는 절대 고행주의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고행을 버리고 고행도 쾌락도 아닌 중도행으로 깨달으셨습니다. 법당에 붙여놓은 고행상을 떼어버리십시오. 자기가 가진 보물창고를 열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지 않고 갖게 되면, 우리의 존재원리를 알고 거기에 맞게 주인노릇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면 자기도 힘들고 주변 사람도 괴롭습니다. 집안의 가장이나 나라의 대통령이 그걸 모르고 산다면 더욱 많은 사람이 고통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이 우리보다 한 가지를 더 보는 게 무어냐?

그것은 바로 "조견오온개공 도일체고액(照見五蘊皆空 度一切苦厄)" 즉,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고 일체의 고와 액을 넘어섰다는 말입니다. 오온이란 색수상행식(色受想行識)인데, 이것은 간단히 말해 몸뚱이와 정신을 말합니다. 육체와 정신작용 등 일체가 공(空)했다고 하니까, '현상적으로 만져지는 게 있는데 왜 공이라 하는가' 의심이 갈 것입니다. 사실, 공이란 무엇을 없애치우고 난 뒤의 빈 것이 아니라, 이 컵 그대로가 공입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주고 받는 이대로가 공입니다.

우리는 부처님을 볼 때 32상 80종호를 갖춘 몸짱, 얼짱으로 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형상 이외에 한 가지를 더 보는 데, 그것이 바로 공입니다. 부처님은 형상과 공을 동시에 보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갈등과 대립, 개인의 마음속 고뇌를 하루아침에 없앨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갠지스강의 모래만큼 보시하는 것보다 이 구절을 외는 게 훨씬 공덕이 크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공이라고 하는가? 모든 것이 연기(緣起)돼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물리학자들의 말처럼 수억만 개의 원자 덩어리가 여러분 눈앞을 왔다 갔다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의학자들은 우리 몸의 세포가 60조에 달한다고 말합니다. 단일하게 독립된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포 덩어리가 모여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다에 바람이 불면 산더미 만한 파도나 집채만한 파도가 치거나 작은 물방울이 생기기도 합니다. 모양과 크기는 달라도 물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공(空)이 바로 이런 존재원리입니다.

우리 남녀의 성별을 다르게 보지만, 본질에서는 같은 성품입니다. 본질에서는 남녀도 생사도 없는 것입니다. 이 성품을 우리가 분리해서 이야기할 때는 자성(自性)이요, 연결된 것으로 이야기할 때는 법성(法性)이라 합니다.

여기서 제일 문제 되는 것이 나다, 너다 하는 분별입니다. 이 분별심만 제거하면 물질적, 정신적인 문제들이 모두 해결됩니다. 내가 독립돼 있다는 착각이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소통'을 이야기하지만, 그 분은 자기를 이해하고 따라줬으면 하는 '일방 소통'이지 '쌍방 소통'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미국 대선에 승리한 오바마 당선인은 인종과 종교, 빈부를 초월해 모든 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다함께 더불어 잘 사는 길을 찾는 훌륭한 지도자로 보였습니다. 형상이 달라도 본질은 하나이듯이 차별심을 평등심으로 바꾸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지와 이파리를 딸 것이 아니라 뿌리를 해결해야 합니다. 모든 존재의 보편성이 바로 <반야심경>의 공(空)임을 알아야 합니다. 팔만대장경을 압축한 말이 이것입니다. 이 절 저 절 찾아다니지 말고, 부처님 법문 한 마디라도 깊이 이해하고 확실하게 믿어서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식당 주인보살님께 밥하면서 도 닦는 법을 일러준 적이 있습니다. "보살님, 손님을 돈으로 보면 많이 올 때는 좋고 적게 오면 짜증이 날테니 그러지 마세요. 손님이 보살님 집의 자동차를 사주고 집을 사주는 은인으로 생각하고 감사히 여겨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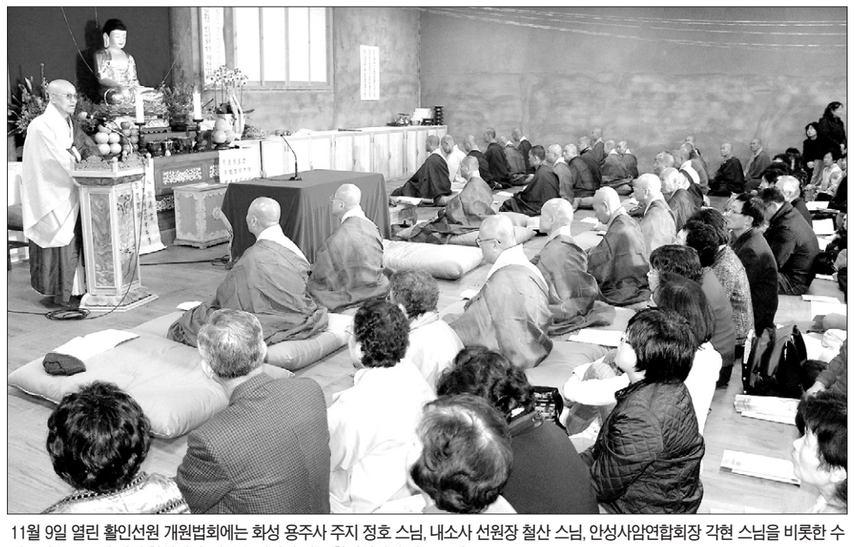
손님을 은인으로 보기 시작하니, "어서 오십시오" 하는 인사말에서부터 정성이 담깁니다. 친절한 마음이 전해지니 손님도 기분이 좋고 더욱 자주 오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식당주인이 한달만에 너무나 장사가 잘 된다고 감사 인사를 하더군요.

이처럼 공(空)을 제대로 이해하기만 해도 삶이 바뀝니다. <서장>에서는 도를 통하지 못해도 정견(正見)만 갖춰도 '도둑놈이 어디에 숨어있는 것을 아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지금 스위스에서는 천문학적인 예산과 1200여 명의 과학자를 투입해 최초의 물질 힉스(Higgs)를 찾기 위해 연구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연인지 모르지만 <금강경>의 1250 비구와 숫자가 비슷한 것이 마치, 불법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실험이 이뤄지는 것만 같습니다. 불교는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그 진리성을 입증받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을 이해하는 만큼 생활 속에서도 변화가 돼야 합니다. 깨달음에 대한 체험이 없더라도 생각이 바뀌면 바뀐 만큼 행동도 그만큼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한 방'으로 깨닫기 위해서는 목숨을 떼놓고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평생 공부를 해도 소득이 없습니다. <서장>에서도 앙산 스님은 언하에 대오하는 사람을 찾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많이 알고 많이 듣는 것보다 일상의 실천이 소중합니다.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소통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리에 맞는 불자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정리=김성우 기자 buddhapia5@hanmail.net


11월 9일 열린 활인선원 개원법회에는 화성 용주사 주지 정호 스님, 내소사 선원장 철산 스님, 안성사암연합회장 각현 스님을 비롯한 수좌스님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왼쪽은 인사말 하는 활인선원장 대효 스님.

"불교는 고행주의 아니야… 중도행으로 깨달으세요
부처님처럼 형상과 공 동시에 봐야 문제 해결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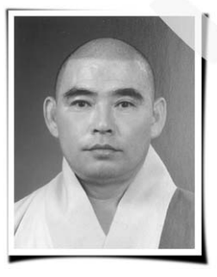
빙의 퇴마 최면을 전수합니다

빙의 치유
●영을 직접불러 누구인지? 무슨 원한인지? 소원이 무엇인지? 천도

전생체험
●원통한 인간의 인과 응보와 원인을 찾아 업장을 소멸하고 사업자 상업자에게 사업성취를, 기도자는 기도성취를, 원인모를 악질증상 등을 좋은 운으로 돌릴수 있습니다.

치유가능한 증상들
●빙의(귀신병), 퇴마,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공포, 불안공포, 불면증, 만성두통, 게임중독, 약물중독, 급한성격, 집중력, 성적향상 등등
●빙의,퇴마,최면을 배우실분
●자기최면,타인최면을 배우실분
●자녀들의 성적향상을 위한 부모님
●포교활동에 꼭 필요하신분(성직자 특별우대,종교불문)

●전수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대체의학, 최면, 빙의, 퇴마 등을 한곳에서 전수가능하며 전수 후에 각 시도 지사도 가능함.
●최단기간 실전교육
●최면시술 누구나 가능합니다.
●어디 아프세요. 불치병 몽땅 상담하세요.
●하는 일마다 안풀리세요. 당신의 사주를 바꾸세요
●빙의(귀신병) 퇴마,최면? 100% 전수 – 치유
●우울증, 공황장애, 산소수맥
●비염, 발기부전 특효



한국 빙의 퇴마 최면 연합회 본부 지 장 사 현오 합장
HTTP://WWW.JIJANGSA24.ORG

서울지사 :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251번지 연세빌딩 후문앞 지장사
☎ 02)796-7579 / H·P 010-3056-3315
●서울교육 : 목, 금, 토, 일 (숙식가능)

부산지사 :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1388-8
(부산 지하철 2호선 화명역 2번출구 전자랜드 후문 앞)
☎ 051)364-5586 / H·P 010-3056-3315
●부산교육 : 연중무휴




# "화두 의심 안 풀려 답답하다고?

## 원각 스님 (해인사 유나)

### 잠 쏟아지고 망상 돋아나도 극복해야 '진전'

### 논리적 사고로는 참선 안돼 … 활구 깨쳐야

### 경제 어려울수록 본래마음 찾는 공부하라

원당암은 '해인사 1번지' 같은 상징적인 암자다. 해인사 원당암은 조계종 10대 종정을 지내신 혜암 스님께서 중창해 열반하실 때까지 주석하셨던 곳이다. 지금은 혜암 스님의 상좌 원각 스님이 주석하고 있다. 원각 스님은 해인 총림의 유나소임을 맡고 있으며, 원당암 달마선원의 선원장이기도 하다.

원당암에 들어서면 산중사찰 같지 않고 도회의 절처럼 말끔하게 단장돼 있다. 보광전, 선방, 심검당, 미소굴, 무설설, 염화실 등 열 채가 넘는 당우들이 가야산 중허리쯤에 자리 잡고 있지만 전혀 산을 거슬리지 않는다. 산과 당우들의 조화로움은 보는 이로 하여금 편안함을 준다.

원각 스님은 혜암 큰스님께서 말년에 머물렀던 미소굴(微笑堀)을 '혜암 스님 기념관'으로 꾸며 놓았다. 그 안에 들어서면 혜암 스님께서 법문을 기록해 둔 원고와 돋보기, 주장자 등이 전시되어 있어 큰 스님의 체취를 오롯이 느낄 수 있다. 미소굴 옆에는 "공부하다 죽어라"는 혜암 스님의 금구(金句)가 새겨진 통나무가 하늘을 향해 높다랗게 서있다. 혜암 스님의 간결한 사자후를 듣는 것 같아 이 앞에 서는 사람은 누구나 다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혜암 스님은 생전에 "마음공부 하는데 어찌 승가와 재가의 구분이 있을 수 있냐"며 원당암을 재가불자들의 수행공간으로 활짝 열어놓았다. 현재 달마선원은 국내 최고의 재가자 참선도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은사 스님의 뜻을 잘 받들어 그대로 행해 온 원각 스님의 숨은 노력 덕분이다.

이곳에서는 재가자들의 하안거와 동안거 결제가 있으며 산철에도 60일씩 결제를 해 공부의 끈을 늦추지 않는다. 음력 7월 1일부터 8일까지, 그리고 음력 12월 1일부터 8일까지 두 차례의 7일 철야 용맹정진이 있으며, 첫째 셋째 주 토요일에는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철야용맹정진이 진행되고 있다. 재가자들에게 무리한 수행이 아닌지 걱정을 하였더니 원각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불법은 많이 배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을 깨닫는데 있으며, 이론보다는 실참이 더 중요합니다. 재가자이든 출가자이든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단지 출가한 스님들은 공부하기 좋은 조건에 있기 때문에 공부인이 많은 것이지, 그 바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원당암에서는 동안거 하안거 때 90여 명의 재가불자들이 결제를 하고, 1주일 용맹정진에는 250여 명이 입방하고 있다. 삼십대부터 팔십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공부를 하고 있으며, 혜암 스님 때부터 지도를 받아 온 20년이 넘는 사람도 있다.

"용맹정진은 혼자서 하려면 하루 저녁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중과 같이 하면 대중의 운김으로 거뜬히 할 수가 있어요. 옛날 스님들께서도 대중과 같이 공부하면 대중이 절반은 공부를 해준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물론 정진을 제대로 해야겠지만 이 공부는 애쓰는데서 까닭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혜암 스님께서 상좌 스님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누누이 하신 말씀이 있다.

"사람 몸 받기 어렵고 정법 만나기 어려우니 좋은 인연 만났을 때 이 몸 제도하지 않으면 어느 생에 이 몸을 제도할 수 있겠느냐? 모든 것은 때가 있으니 때를 놓치지 말라."

원각 스님 또한 세월이 지나고 보니 정말 가슴에 사무치는 말씀이라 행자들에게 강조한단다.

"몸뚱이가 있어야 공부하는 것, 몸뚱이가 말 잘들을 때 공부해야 하고 힘이 있어야 공부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 육신도 말을 안 듣고 정신도 혼미해져서 공부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공부해야 합니다."

재가자들은 어떻게 참선공부를 해야 하는지 물었더니 "자기 힘 따라 애써 정진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인생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로 정성을 드리고 간절히 해야 됩니다"라고 하신다.

재가자들을 지도하신다기에 물 만난 고기처럼 두려움 없이 스님께 여쭈었다. 초심자들은 화두 드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데 좋은 공부방법이 있는지를 또다시 여쭈었다.

"화두는 분별심으로 따져서 알려고 하면 맞지 않습니다. 알 수 없는 의심을 해야 됩니다. 화두가 의심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미 화두에 대한 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답이라고 생각한 이것은 분별심이지 답이 아닙니다. 화두는 꽉 막힌 데서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분별심으로 알아맞히는 것이 아니므로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하는 사람 가운데 화두 의심이 풀리지 않아 답답하고 재미없다고 하면서 게으름을 피우거나 포기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계를 극복해야 만이 진전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원각 스님은 현대인들의 논리적인 사고로는 참선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서 용성 스님의 일화를 들려주셨다.

"하루는 어떤 스님이 용성 스님께 와서 도를 물으니 '네가 허공을 허공과 똑같이 그려 낼 수 있냐?' 고 물었습니다. 그 스님이 '허공은 위도 없고 밑도 없고 가도 없고 가운데도 없고 물을 뿌려도 물이 들지 않고 불에 태워도 타지 않는 것이 허공 아닙니까?' 하니까 용성 스님께서 '언제 허공이 너보고 그렇게 말하더냐? 네가 허공을 화작(化作)해 가지고 허공의 본모습을 매각해 버렸다' 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네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허공에 대해서 설명하지만 그것은 설명이고 말이지 허공자체는 아니라' 는 것입니다. 조사스님들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활구(活句)하에 깨달으면 불조(佛祖)의 스승이 되고 사구(死句)하에 깨달으면 자신도 구제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원각 스님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해인사 약수암에 머물면서 시험공부를 했다. 그때 수많은 성인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의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이 강박관념을 불러 일으켰다. '어떻게 사는 것이 착하게 사는 것' 인지 여기에 집착하다 보니 정신적으로 참으로 혼란을 겪었다. 어느 날 중봉암의 도림 스님으로부터 법문을 듣게 됐다.

"선도 악도 버리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그 생각도 쉬어야 참말로 살 길이 나온다."

'선과 악 양변을 쉬어야 한다' 는 가르침은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처럼 많은 고민들을 단박에 해결해 주었다.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느꼈고, 그때부터 불교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런 나를 보고 도림 스님이 한 번 읽어 보라고 <금강경> <반야심경>, <육조단경> <보조법어> <법구경> 등의 책을 건네주데요. 그래서 하던 공부는 팽개치고 경전들을 읽어 나갔지요. 이런 나를 보고 도림 스님이 출가를 권했습니다."

문득 스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침 저녁으로 갠지스강의 모래알만큼 많은 몸으로 보시하고 이렇게 백천만억 겁을 보시한다 하더라도 경전을 수지독송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 해설하는 것보다 못하다' 는 <금강경>의 한 구절이 떠올랐다.

원각 스님은 계행이 청정하고 성품이 대쪽 같았던 혜암 스님 밑에서 행자생활을 하였다. 지금은 없어진 해인사 중봉암에서 은사스님과 단 둘이 생활했다. 방사가 한 칸 밖에 없어서 은사스님은 아랫목에 원각 스님은 윗목에 앉아서 참선을 했다. 원각 스님께서는 "그때 나름대로 열심히 정진한 것 같았다"고 회고했다.

혜암 스님은 누구에게라도 법문해주는 것을 아끼지 않았다. 중봉암에서 새벽예불을 끝내고 혜암 스님이 입선죽비를 치고 나서 "내가 한 마디만 하겠다"고 말씀을 꺼내시면 밥 할 시간을 넘길 때도 있었다. 그럴 때면 "스님 저 밥 지으러 가야 합니다"하고서는 일어서야만 법문은 끝이 났다. 혜암 스님께서는 '상좌 하나에 지옥이 하나' 라고 생각했기에 원각 스님에게 수행자 노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부터 세세하게 가르쳐 주었다.

"밥할 때는 밥물이 넘으면 안 되고, 빗자루질도 밀듯이 하고 방을 닦을 때도 금방 닦은 곳을 밟지 않고 뒷걸음질하면서 닦게 했습니다. 톱질하는 법, 장작패는 법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출가한지 40년이 넘었지만 은사스님의 십분의 일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행자생활 하면서 때로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불법에 든 것이 너무 좋아 힘든 것도 모르고 살았어요. 은사스님께서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시늉까지도 했어요. 은사스님께서는 잘 못하는 일이 있으면 여지없이 나무라시고 잘하는 일은 칭찬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간혹 '너는 요즈음 사람 안같다' 고 하시던 그 말씀이 그렇게 좋았어요."

아마도 은사스님께서 참으로 많이 아끼신 것 같다.

스님들의 건강관리는 파워봉이 최고!

20년전 어느날 수녀님들이 비구니스님들께 권하셔서 전국 선방에
빠짐없이 보급되었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수많은 분들이 사용중입니다.

- 미국 FDA가 인정한 육각성 파워봉 -

변변한 광고없이 입소문으로 20년을 이어온 힘의 원천은 속효성 때문입니다.
한번만 체험해보면 몸이 먼저 알게되는 초강력 파워!

설명이 필요없습니다. 어디든지 지그시 눌러만 주세요.
목, 어깨, 허리, 좌골, 무릎, 발목, 손목, 등, 고관절

미국FDA등록
MEDICAL DEVICE
NO. 890.3490

특허청등록
디자인 0274541

한번사용해보신분이
선물용으로 여러개씩
구입하는 이유를
알고싶지 않으십니까?

선착순 300명 한정판매



특별보급가 60,000원



특별보급가 39,000원(시중가 36만원)

미국,일본,독일,
러시아 보급중!!

www.chgg.co.kr
천일의학기공 연구회 02)3436-3206~7
농협 1149-12-090771 예금주 : 이영숙

ISA규정번호 890.5660, ACCESSION NO 0780530-000

미국 FDA에 등록된 자동치료기의 놀라운 효과

국제발명특허 획득! wo2004108049 수입독점공급

첨단과학기술로 탄생한 특수 보석렌즈를 통과한 빛이 어혈을 맑게 하는 자동치료기!

심근경색증 · 협심증 · 만성두통 · 생리통

당뇨, 동맥경화, 뇌혈전,
만성피로, 불면증,
뒷목뻣뻣, 갑상선

혈액순환장애로 인한
손발저림은 3~4일,
만성투통은 7~15일

도끼로 찍는듯한 가슴통증으로
고통받는 분에게 희소식!

지긋지긋한 편두통,생리통,
어지럼증 치료!
허혈성심장질환에 탁월!

착용만하면 자동치료


△POLA 팔찌


△POLA 반지

※ 18년간 1만명이상을 대상으로 임상실험!
KBS일요스페셜(07,9,30)방영 / MBC통일전망대(06,11,22)방영
연합뉴스,문화일보,한국경제,내일신문,조선닷컴,동아닷컴보도

콜레스테롤함량,중성지방,
혈소판응집능,
혈액점조도 · 혈액의
주요지표들이
정상화되며 대사장애를
바로잡고 전신면역기능을 높인다.

만병을 일으키는 오염된 혈액을
맑고 깨끗하게 청소한다.
방문시 눈으로 직접 보여드립니다.

※ 혈액순환장애로 인한 통증은
(두통 · 생리통) 즉석에서 완화되는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주시면 자세한
「안내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천일의학기공 연구회 02)3436-3206
농협 1149-12-090771 예금주 : 이영숙
2호선 구의역 1번출구 바로앞 구둣가게건물 205호
◇자매품 : 파워봉,골반사랑101,척추사랑(신선대)




# "화두 의심 안 풀려 답답하다고?

## 원각 스님 (해인사 유나)

### 잠 쏟아지고 망상 돋아나도 극복해야 '진전'

### 논리적 사고로는 참선 안돼 … 활구 깨쳐야

### 경제 어려울수록 본래마음 찾는 공부하라

원당암은 '해인사 1번지' 같은 상징적인 암자다. 해인사 원당암은 조계종 10대 종정을 지내신 혜암 스님께서 중창해 열반하실 때까지 주석하셨던 곳이다. 지금은 혜암 스님의 상좌 원각 스님이 주석하고 있다. 원각 스님은 해인 총림의 유나소임을 맡고 있으며, 원당암 달마선원의 선원장이기도 하다.

원당암에 들어서면 산중사찰 같지 않고 도회의 절처럼 말끔하게 단장돼 있다. 보광전, 선방, 심검당, 미소굴, 무설설, 염화실 등 열 채가 넘는 당우들이 가야산 중허리쯤에 자리 잡고 있지만 전혀 산을 거슬리지 않는다. 산과 당우들의 조화로움은 보는 이로 하여금 편안함을 준다.

원각 스님은 혜암 큰스님께서 말년에 머물렀던 미소굴(微笑堀)을 '혜암 스님 기념관'으로 꾸며 놓았다. 그 안에 들어서면 혜암 스님께서 법문을 기록해 둔 원고와 돋보기, 주장자 등이 전시되어 있어 큰 스님의 체취를 오롯이 느낄 수 있다. 미소굴 옆에는 "공부하다 죽어라"는 혜암 스님의 금구(金句)가 새겨진 통나무가 하늘을 향해 높다랗게 서있다. 혜암 스님의 간결한 사자후를 듣는 것 같아 이 앞에 서는 사람은 누구나 다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혜암 스님은 생전에 "마음공부 하는데 어찌 승가와 재가의 구분이 있을 수 있냐"며 원당암을 재가불자들의 수행공간으로 활짝 열어놓았다. 현재 달마선원은 국내 최고의 재가자 참선도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은사 스님의 뜻을 잘 받들어 그대로 행해 온 원각 스님의 숨은 노력 덕분이다.

이곳에서는 재가자들의 하안거와 동안거 결제가 있으며 산철에도 60일씩 결제를 해 공부의 끈을 늦추지 않는다. 음력 7월 1일부터 8일까지, 그리고 음력 12월 1일부터 8일까지 두 차례의 7일 철야 용맹정진이 있으며, 첫째 셋째 주 토요일에는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철야용맹정진이 진행되고 있다. 재가자들에게 무리한 수행이 아닌지 걱정을 하였더니 원각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불법은 많이 배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을 깨닫는데 있으며, 이론보다는 실참이 더 중요합니다. 재가자이든 출가자이든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단지 출가한 스님들은 공부하기 좋은 조건에 있기 때문에 공부인이 많은 것이지, 그 바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원당암에서는 동안거 하안거 때 90여 명의 재가불자들이 결제를 하고, 1주일 용맹정진에는 250여 명이 입방하고 있다. 삼십대부터 팔십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공부를 하고 있으며, 혜암 스님 때부터 지도를 받아 온 20년이 넘는 사람도 있다.

"용맹정진은 혼자서 하려면 하루 저녁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중과 같이 하면 대중의 운김으로 거뜬히 할 수가 있어요. 옛날 스님들께서도 대중과 같이 공부하면 대중이 절반은 공부를 해준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물론 정진을 제대로 해야겠지만 이 공부는 애쓰는데서 까닭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혜암 스님께서 상좌 스님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누누이 하신 말씀이 있다.

"사람 몸 받기 어렵고 정법 만나기 어려우니 좋은 인연 만났을 때 이 몸 제도하지 않으면 어느 생에 이 몸을 제도할 수 있겠느냐? 모든 것은 때가 있으니 때를 놓치지 말라."

원각 스님 또한 세월이 지나고 보니 정말 가슴에 사무치는 말씀이라 행자들에게 강조한단다.

"몸뚱이가 있어야 공부하는 것, 몸뚱이가 말 잘들을 때 공부해야 하고 힘이 있어야 공부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 육신도 말을 안 듣고 정신도 혼미해져서 공부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공부해야 합니다."

재가자들은 어떻게 참선공부를 해야 하는지 물었더니 "자기 힘 따라 애써 정진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인생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로 정성을 드리고 간절히 해야 됩니다"라고 하신다.

재가자들을 지도하신다기에 물 만난 고기처럼 두려움 없이 스님께 여쭈었다. 초심자들은 화두 드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데 좋은 공부방법이 있는지를 또다시 여쭈었다.

"화두는 분별심으로 따져서 알려고 하면 맞지 않습니다. 알 수 없는 의심을 해야 됩니다. 화두가 의심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미 화두에 대한 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답이라고 생각한 이것은 분별심이지 답이 아닙니다. 화두는 꽉 막힌 데서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분별심으로 알아맞히는 것이 아니므로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하는 사람 가운데 화두 의심이 풀리지 않아 답답하고 재미없다고 하면서 게으름을 피우거나 포기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계를 극복해야 만이 진전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원각 스님은 현대인들의 논리적인 사고로는 참선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서 용성 스님의 일화를 들려주셨다.

"하루는 어떤 스님이 용성 스님께 와서 도를 물으니 '네가 허공을 허공과 똑같이 그려 낼 수 있냐?' 고 물었습니다. 그 스님이 '허공은 위도 없고 밑도 없고 가도 없고 가운데도 없고 물을 뿌려도 물이 들지 않고 불에 태워도 타지 않는 것이 허공 아닙니까?' 하니까 용성 스님께서 '언제 허공이 너보고 그렇게 말하더냐? 네가 허공을 화작(化作)해 가지고 허공의 본모습을 매각해 버렸다' 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네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허공에 대해서 설명하지만 그것은 설명이고 말이지 허공자체는 아니라' 는 것입니다. 조사스님들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활구(活句)하에 깨달으면 불조(佛祖)의 스승이 되고 사구(死句)하에 깨달으면 자신도 구제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원각 스님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해인사 약수암에 머물면서 시험공부를 했다. 그때 수많은 성인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의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이 강박관념을 불러 일으켰다. '어떻게 사는 것이 착하게 사는 것' 인지 여기에 집착하다 보니 정신적으로 참으로 혼란을 겪었다. 어느 날 중봉암의 도림 스님으로부터 법문을 듣게 됐다.

"선도 악도 버리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그 생각도 쉬어야 참말로 살 길이 나온다."

'선과 악 양변을 쉬어야 한다' 는 가르침은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처럼 많은 고민들을 단박에 해결해 주었다.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느꼈고, 그때부터 불교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런 나를 보고 도림 스님이 한 번 읽어 보라고 <금강경> <반야심경>, <육조단경> <보조법어> <법구경> 등의 책을 건네주데요. 그래서 하던 공부는 팽개치고 경전들을 읽어 나갔지요. 이런 나를 보고 도림 스님이 출가를 권했습니다."

문득 스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침 저녁으로 갠지스강의 모래알만큼 많은 몸으로 보시하고 이렇게 백천만억 겁을 보시한다 하더라도 경전을 수지독송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 해설하는 것보다 못하다' 는 <금강경>의 한 구절이 떠올랐다.

원각 스님은 계행이 청정하고 성품이 대쪽 같았던 혜암 스님 밑에서 행자생활을 하였다. 지금은 없어진 해인사 중봉암에서 은사스님과 단 둘이 생활했다. 방사가 한 칸 밖에 없어서 은사스님은 아랫목에 원각 스님은 윗목에 앉아서 참선을 했다. 원각 스님께서는 "그때 나름대로 열심히 정진한 것 같았다"고 회고했다.

혜암 스님은 누구에게라도 법문해주는 것을 아끼지 않았다. 중봉암에서 새벽예불을 끝내고 혜암 스님이 입선죽비를 치고 나서 "내가 한 마디만 하겠다"고 말씀을 꺼내시면 밥 할 시간을 넘길 때도 있었다. 그럴 때면 "스님 저 밥 지으러 가야 합니다"하고서는 일어서야만 법문은 끝이 났다. 혜암 스님께서는 '상좌 하나에 지옥이 하나' 라고 생각했기에 원각 스님에게 수행자 노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부터 세세하게 가르쳐 주었다.

"밥할 때는 밥물이 넘으면 안 되고, 빗자루질도 밀듯이 하고 방을 닦을 때도 금방 닦은 곳을 밟지 않고 뒷걸음질하면서 닦게 했습니다. 톱질하는 법, 장작패는 법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출가한지 40년이 넘었지만 은사스님의 십분의 일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행자생활 하면서 때로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불법에 든 것이 너무 좋아 힘든 것도 모르고 살았어요. 은사스님께서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시늉까지도 했어요. 은사스님께서는 잘 못하는 일이 있으면 여지없이 나무라시고 잘하는 일은 칭찬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간혹 '너는 요즈음 사람 안같다' 고 하시던 그 말씀이 그렇게 좋았어요."

아마도 은사스님께서 참으로 많이 아끼신 것 같다.

스님들의 건강관리는 파워봉이 최고!

20년전 어느날 수녀님들이 비구니스님들께 권하셔서 전국 선방에
빠짐없이 보급되었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수많은 분들이 사용중입니다.

- 미국 FDA가 인정한 육각성 파워봉 -

변변한 광고없이 입소문으로 20년을 이어온 힘의 원천은 속효성 때문입니다.
한번만 체험해보면 몸이 먼저 알게되는 초강력 파워!

설명이 필요없습니다. 어디든지 지그시 눌러만 주세요.
목, 어깨, 허리, 좌골, 무릎, 발목, 손목, 등, 고관절

미국FDA등록
MEDICAL DEVICE
NO. 890.3490

특허청등록
디자인 0274541

한번사용해보신분이
선물용으로 여러개씩
구입하는 이유를
알고싶지 않으십니까?

선착순 300명 한정판매



특별보급가 60,000원



특별보급가 39,000원(시중가 36만원)

미국,일본,독일,
러시아 보급중!!

www.chgg.co.kr
천일의학기공 연구회 02)3436-3206~7
농협 1149-12-090771 예금주 : 이영숙

ISA규정번호 890.5660, ACCESSION NO 0780530-000

미국 FDA에 등록된 자동치료기의 놀라운 효과

국제발명특허 획득! wo2004108049 수입독점공급

첨단과학기술로 탄생한 특수 보석렌즈를 통과한 빛이 어혈을 맑게 하는 자동치료기!

심근경색증 · 협심증 · 만성두통 · 생리통

당뇨, 동맥경화, 뇌혈전,
만성피로, 불면증,
뒷목뻣뻣, 갑상선

혈액순환장애로 인한
손발저림은 3~4일,
만성투통은 7~15일

도끼로 찍는듯한 가슴통증으로
고통받는 분에게 희소식!

지긋지긋한 편두통,생리통,
어지럼증 치료!
허혈성심장질환에 탁월!

착용만하면 자동치료


△POLA 팔찌


△POLA 반지

※ 18년간 1만명이상을 대상으로 임상실험!
KBS일요스페셜(07,9,30)방영 / MBC통일전망대(06,11,22)방영
연합뉴스,문화일보,한국경제,내일신문,조선닷컴,동아닷컴보도

콜레스테롤함량,중성지방,
혈소판응집능,
혈액점조도 · 혈액의
주요지표들이
정상화되며 대사장애를
바로잡고 전신면역기능을 높인다.

만병을 일으키는 오염된 혈액을
맑고 깨끗하게 청소한다.
방문시 눈으로 직접 보여드립니다.

※ 혈액순환장애로 인한 통증은
(두통 · 생리통) 즉석에서 완화되는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주시면 자세한
「안내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천일의학기공 연구회 02)3436-3206
농협 1149-12-090771 예금주 : 이영숙
2호선 구의역 1번출구 바로앞 구둣가게건물 205호
◇자매품 : 파워봉,골반사랑101,척추사랑(신선대)

# 그때가 공부하기 좋은 때야”




혜암 스님은 상좌들에게 참선하기를 권했다. “불법은 본심을 깨달아 진리의 삶을 살라는 공부이다. 팔만대장경을 보아도 마음 깨쳐서 중생제도 하라는 그 말밖에 없음” 을 가르쳤다. 원각 스님은 은사스님의 뜻을 따라 강원에 가지 않고 참선공부에 들어갔다. 혜암 스님께 유일하게 배운 경전이 <초발심자경문>이다.

“혜암 스님께서는 다 가르치고 나서는 어떤 대목이 제일 좋으냐고 꼭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평등성중(平等性中)에 무피차(無彼此)하고 대원경지(大圓鏡智)에 절친소(絶親疎)’라는 대목이 와 닿는다고 답하니 좋아하셨어요. ‘평등한 성품 가운데 너와 내가 없고 큰 깨달음의 당처에는 가깝고 먼 것이 없다’는 이 구절은 수행자로 살아오면서 귀하게 여기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원각 스님은 처음 해인총림 시작할 때 성철 스님 모시고 세 철을 살았다. 가끔 새벽녘이면 성철 스님께서 “송장 같은 놈들아!” 하고 고함치시면서 장군장비를 경책해 주실 때는 정신이 번쩍 들고 신심이 절로 났다. 공부에 욕심이 많아 경봉 스님, 구산 스님, 전강 스님, 성철 스님 등 큰 선지식들을 찾아다니면서 공부했다.

혜암 스님의 “공부하다가 죽어라. 공부하다 죽는 것이 사는 길이다. 옳은 마음으로 옳은 일하다가 죽으면 안 죽는다”는 말씀은 수행의 지침이 되었다. 원각 스님은 당신의 이야기보다는 은사스님의 이야기 하는 것을 더 좋아 했다.

“68년도에 은사스님께서 하안거 해제하고 지리산 상무주암으로 오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상무주암으로 가니 문수암을 지으려고 터를 닦고 계시데요. 그때 영산 스님과 함께 일꾼들의 밥을 해가지고 1km가 넘는 거리를 지게로 져날랐어요. 스님께서는 일꾼들과 같이 일을 하시면서 감독을 하셨어요. 그렇게 힘들게 암자를 다 짓고 나서는 그해 겨울 한철 사시고 뒷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준비해놓고서는 그곳을 떠나옵디다. 간혹 법문해주러 가긴 했지만 그곳에는 머물러 살지 않았습니다. 착이 없다는 것이지요. 스님께서는 어디에 사시더라도 떠나올 때는 다음 사람이 잘 살 수 있게끔 식량이나 땔나무 등을 준비해 놓고 나오셨습니다.”

요즈음 경제가 어려워서 사람들의 시름이 깊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가르침을 구했다.

“목이 마르다고 소금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더 말라지는 것처럼 모든 것을 바깥에서 해결하려고 하니 고통이 끝나지 않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많으면 다 해결될 것 같지만, 부자가 되어도 좋고 나쁜 일은 다 벌어지게 됩니다. 지위가 낮을 때는 지위가 높아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지만 높아져도 좋고 나쁜 갈등이 생깁니다. 물론 상대적인 만족감과 성취감은 있겠지만요. 본래심을 깨달아 거기서 돈도 벌고 일도 하고 생활해야 진정한 행복이 있고 인생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됩니다. 중생들이 모든 것을 아는 것 같아도 몰라서 이렇게 육신과 번뇌와 망상에 속아서 고통 받고 있습니다.”

‘물질로 인생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그것이 바로 고통’이라는 스님의 말씀은 수십 년을 좌복 위에서 보낸 수행의 울림이다. 오방색으로 수를 놓았던 가야산도 묵언정진에 들어갈 채비를 하는 것 같았다. 나무들도 분주함을 접고 저렇게 긴 칩거에 들어가려 하는데, 우리네도 한 번쯤은 분주하고 헐떡이는 마음을 쉬어야만 할 것 같다.

글·사진=문윤정(수필가·본지 논설위원)

**원각 스님**은 1967년 혜암 스님을 은사로 수계. 해인사 극락암 송광사 범어사 상무주암 불국사 상원사 백련사 등 제방 선원에서 수행정진. 그동안 경봉 스님, 구산 스님, 전강스님, 성철 스님 문하에서 공부했다. 은사스님의 지시로 거창 고견사 주지소임을 십년간 맡았다. 지금은 원당암에 주석해 2003년부터 해인사 유나소임을 맡고 있으며, 달마선원 선원장이다.



##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 〈19〉포광 김영수박사

1900년대 우리 불교계에서, ‘불교교리를 가장 깊이 있게 잘 아는 분이 누구냐?’ 하면 ‘김포광 박사(1884~1967)’를 들었다.

필자가 김 박사님을 뵙게 된 것은 대은 스님 덕분이다. 대은 스님이 전주 정혜사나 용인 화운사에 계실 때, 서울에 올라오시면 성북동 아니면 청량리를 꼭 들리고 가셨다. 청량리에는 권상로 박사님이 계셨고 성북동에는 김포광 박사님이 계셨기 때문이다.

“교리에는 김포광, 역사에는 권상로 박사님이니 무엇이든 궁금한 것이 있으면 가서 물으라.”

하도 여러 번 들어 잊지 않고 있다. 대은 스님은 언제나 박사님께서 좋아하시는 눈깔사탕을 사들고 가서, “오늘은 근본불교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하면 물 흘러가듯,

“거금 3000년 인도 가비라에서 대성인이 출세하시니, 그 호가 석가모니불 아닌가. 4문 유관하고 노 · 병 · 사를 비감하여 설산에 들어가 도를 닦아 보리를 이루시니 그것이 무슨 경계인가. 부사의 해탈경계다. 하느님이 어찌 만물을 만들 수 있겠는가. 4성은 평등하여 고하가 없다네.”

하고 쏟아 버린다. 한번은 가니 원불교의 조전권 여사가 와 계셨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원불교의 교리조직을 우리 박사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법신불의 상징인 일원(○)을 <금강경오가해>에서 찾아 주시고, ‘부처님 당시에는 불상이 없었으니, 이 일원상을 신앙의 표본으로 하라’ 하고, <대종경> 이외에 <금강경> <반야심경> <42장경> <현자오복덕경> <업보차별경> <수심결> <목우십도송> <휴휴암 권선문> 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각정행’ ‘4은4요’의 ‘지은보은’ 사상도 불교의 <심지관경>을 배경으로 하여 조직해 주셨기 때문에 불교의 생활화 · 대중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듣는 소리는 아니지만 참으로 놀랄만한 일이다. 종단에서는 대처승이라 하여 중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원불교에서는 원불교 창시에 조언을 해주신 공로자라 하여 매년 특강을 초청하고 보은의 행사를 하고 있으니 말이다.

“사실 원불교는 김포광 박사님과 김태흡 스님이 아니면 지금쯤은 지구상에서 이미 없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 간부들을 모두 잡아 가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김태흡 스님이 ‘불법연구회는 사교(邪敎)가 아니다. 점차 불교의 일원으로 시대에 맞는 불교를 하기 위해서 일본의 일연정종처럼 새롭게 창시한 종교다’ 하고 증명해 주어서 총독부에서 풀어 주었습니다.”

“나는 그날 대은 스님과 함께 김 박사님을 모시고 오장동까지 걸어갔다. 좋아하시는 냉면을 사드리기 위해서다.”

혜화동 고개를 넘으면서 말씀하셨다.

“이것이 한규설 대감의 집이다. 평양 여자와 결혼하여 아이를 낳지 못하자 새 여자를 얻으려 하니, 큰 부인이 ‘이왕이면 내 친동생을 데리고 사세요’ 하여 한 사람이 친자매를 데리고 산 사람은 한 대감뿐이다.”

그리고 오른 쪽 성균관대 쪽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셨다.

“저기가 흥륜사 절터지. 옛날 서울에 2궁 3대 사찰이 있었는데, 덕수궁 · 창경궁과 정동의 흥천사 · 묘동의 원각사 · 혜화동의 흥륜사, 이 2궁 3사의 울타리를 타고 지나오면 비 한 방울을 맞지 않고 10리 길을 걸을 수 있었어.”

처음 듣는 이야기다. 성균관대학이 원래 절터였다는 사실을 언젠가 유림회관에 주례를 서러 갔다가 그 말씀을 하였더니, 유림회 회장께서 사실이 그렇다고 고백하였다.

“원래 이곳이 엄청나게 큰 절터인데 유림회에서 빼앗아 학자들을 양성하는 학교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 대원위 대감 때는 윤경열씨께서 신세진 무당에게 당집을 하나 지어주었는데, 지금 은석초등학교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듣고 보니 아리랑고개를 중심으로 돈암동 미아리 일대에 무속집이 즐비한 이유가 있었다. 원래 정법이 뒤집어지면 사법이 되고, 사법이 성하다 보면 미신화 되기 때문이다. 박사님은 냉면을 잡수시면서 말씀하셨다.

“나는 재 · 불공으로 연명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 차라리 학명스님같은 생활이 훨씬 좋거든. 이대로 가다가는 조선의 이름난 중들은 큰 절을 지키는 당직이가 되고 말 것이여!”

### 1900년대 ‘불교교리 가장 깊게 아는 분’으로 통해

그래서 그런지 박사님 집에 가면 찬 바람이 솔솔 불어왔다. 먹을 것도 그렇지만 입을 것도 없었다. 여름이면 언제나 허름한 마포바지에 노타이. 한번은 정각사 마당에서 큰 재(齋)를 지내게 되었다. 동국대학교 조명기 총장님을 비롯해 기라성 같은 학자스님들이 수십 명 모였다. 그런데 한 스님께서

“오늘 법문은 박사님께서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하니 한 교수가 넥타이를 풀어 매어 주셨다. 보다 못한 스님이 가사 장삼을 벗어 입혀드리니, 넥타이 매고 구두신고 가사 · 장삼 입고 법상에 올라 앉았다.

“영가시여, 나는 당신 덕분에 넥타이도 생기고 가사 · 장삼도 생겨 호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가께서는 이런 옷도 신도 신을 수 있는 몸까지 없이 되었으니, 얼마나 홀가분하십니까?”

하여 모두 박장대소를 하였다.


스님! 빙의로 고통 받는 중생을 구해 주세요

전생, 빙의, 자기 최면, 치료최면 (최면 시술사 과정)

• 개강일 : 11월 27일 목요일반 • 개강시간 : 오후 1시

▶ 교육 기간 : 6주(24시간) ▶ 모집 인원 : 선착순 10명 ▶ 교육 비용 : 60만원 ▶ 대상 : 스님, 포교사, 불자

특기사항

1. 10명의 소수 정예 엘리트 교육
2. 6주 24시간의 최단기 집중 현장 교육
3. 상상할 수 없는 최소의 교육 훈련비
4. 개인 교습식의 일대일 교육, 책임 교육
5. 현장에서 바로 활용 할 수 있는 실전 교육
6. 새로 개발된 테크닉 수시로 전수하는 평생 교육

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유일한 곳

수행과 포교 또 중생 구제에 바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소승은 스님들께서 시간에 쫓기시고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스님들의 사정을 너무 잘 알기에 모든 거품을 빼고 최단기, 최소 교육비로 보시 하고자 합니다. 소승은 자리이타의 정신과 회향하는 마음으로 본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마하 반야 바라밀

– 무초 정 락 합장 –

자기 최면 특별 수련회

● 주제 : 자기 최면 집중훈련
● 대상 : 유마 최면 연구소 평생회원
● 일시 : 2008년 11월 25일 16시 ~ 11월 26일 12시
● 장소 : 정읍 칠보암 수련관

자기 최면 완성을 위하여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 동참을 바랍니다

(사) 유마 정신 건강 최면 연구소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 1번출구 애경백화점 맞은편 세일빌딩 401호 ☎ 02)763-066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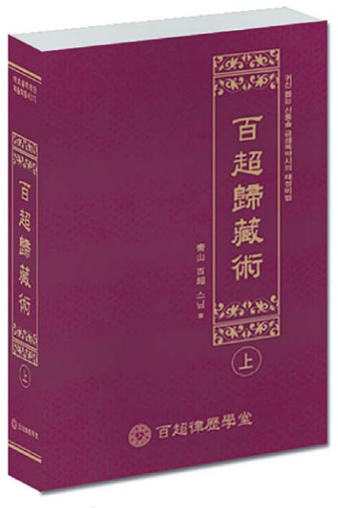
★ 최면을 배우시고도 시술을 못하시는 분, 자기최면이 안되는 분 개인지도 ★



베스트화제작 신간

백초귀장술 개인지도

귀신뽑는 래정비법!




찾아온 일진, 시간만 가지고
왜 왔는지
무엇이 탈났는지
어떤 귀신이 붙었는지
어느 조상이 탈이 났는지
들어오는 순간 알 수 있는
특수 초사법!

명리, 육임처럼 복잡하게 몰라도 간단히 알 수 있는 비법공개!
60갑자 일진별로 한눈에 쏙쏙 알 수 있게 초사를 확실하게 설명!

신국판/양장본/567쪽/정가 120,000원 著者 百超백초스님

百超律歷學堂 Tel : (02) 3667-4446 H.P : 010-3813-4443

입금계좌 (예금주 : 조영신)
농협 023-02-478822
신한 010-3813-4443

# 曉史「육임활용서」신간(新刊)·증보(增補) CD 구입 및 교

## — 정확도가 보장된 단발일성(單發一聲)의 효과를 알거나, 그 효과가 절실히 필요한 분들을 위한 안내

### 「속도성」의 가치가 커진 세상입니다. 「생선」을 원하는 사람에게 「도마」를 내보이며 「중언부언」 하는 것은 공해(公
### 한 눈에 「내것」, 「내말」을 만들어 천둥번개처럼 쓸 수 있도록 된 것, 그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공간」의 차원과 「시간」의 차원이 융합된 「시공(時空)」이라는 4차원의 극점에서 모든 물리현상을 인식하려는 것, 이것이 「육임학정단(六壬學正斷)」의 학문적 논거입니다. 특히 일반인의 종교적 감정의 원천에는 「놀라움」이 있고, 자기 사의(思議)가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경건한 마음」이 곧 신심(信心)이 된다 하였습니다.

여기, 찾아오거나 전화한 사람의 속사정을 미리 알아 먼저 말할 수 있고, 보이지 않되 사람들의 삶에 그 해악(害惡)이 큰 작사귀(作事鬼)·병귀(病鬼)·빌미부정(邪祟不貞)·산소탈(山所脫)을 눈으로 보듯 세세히 써 놓았을 뿐아니라 그 해소방법까지 가차없이 제시해 놓은 한편, 방문하거나 전화한 사람의 생활전반에 걸친 비밀한 사건·사고
했으며, 상대가 묻게될 24개 항목을 정해 그 되고 안되고, 좋고 나쁘고
아놓은 등 치밀한 정확도와 용이한 효과성의 보장으로, 그 권위가 이미
최고의 명품 활인천역자용 「육임활용서」및 「CD 프로그램」이 증보되어

**아래의 「책」과 「CD」는 초판 이래 7년여의 전국적 임상을 통해 꾸준히
금번 마지막 최정련시킨 임상용으로서, 전국 소수정예 「활인천역자
「맞춤형(규격·권수 : 전체 1권·순별6권·매일별60권 중 택일 주문**

### ▣ 효사육임복변집(曉史六壬卜辯集) - 전60권

**「효사육임복변집」** 좌정용의 「증보판」이기도 하다.
60갑자 60일중 하루치를 1권 씩으로 묶어 프로페셔널한 구성으로 명쾌히 증보 시켰다.
오른쪽의 **「효사육임산책」**은 "휴대용"이고, 본 책은 "좌정용"이다. 기존 구입자는 금번 「이것」으로 반드시 교환하여 보다 크게 쓰기 바란다.
매우 잘 만들어놓은 천역서이기 때문이다.

◇좌정용 : ·정가 : 250만원 ·회원 : 200만원 ·교환 : 90만원

### ▣ 효사육임산책(曉史六壬刪策) - 전1권 : 휴대용 임상실기 활용서

「효사육임복변집」 좌정용의 증보판이고, 전 「육임래정비법」혁신판수정보완본의 개정판이기도 하다. 60갑자 60일치를 1권에 묶어 각 날짜마다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다.

◈ 제1면 시보(時報) : 이 사람이 왜 왔는가? 왜 전화했는가?
◈ 제2면 내정(來情) : 지금 어떤 사정에 있는 사람인가?
◈ 제3면 형이상(形而上) : 현재 무슨 귀신 부정·산소탈의 침해를 받고 있는가?
◈ 제4면 사과삼전(四課三傳) : 어떤 말로 점자의 기선을 제압하고 점자로부터 즉시적 감동과 신뢰를 얻을 수 있는가?
◈ 제5면 년명상신(年命上神) : 이 사람의 당면 운세는 어떠하며, 당 나이 때의 1년간 운세는 어떠한가?
◈ 제6면 천강법(天罡法) : 이 사람의 계획사성부·필승좌법·선악인 여부는?
◈ 제7면 성부단정항목(成否斷定項目) : 이 사람이 묻는 일이 되는가? 안 되는가?
◈ 제8면~19면 1년 신수비결(一年身數秘訣) : 이 사람의 매달 내외 운세가 어떤가?
◈ 활용신살(活用神煞) : 이 사람의 매달 악살이 어떤가?
◈ 일주육임궁합법(日柱六壬宮合法) : 이 사람의 배우자 운은 어떠한가?
◈ 대·세·월·일운(大·歲·月·日運)판단 및 육친의 변수 판단 : 이 운에 무슨 일이 있고, 가족중 누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며, 무슨 병이 생기는가? 등등등···

◇휴대용 : ·정가 : 250만원 ·회원 : 200만원 ·교환 : 70만원

### ▣ 효사활인천역집(曉史活人天役集)완결판 CD프로그램

「효사활인천역집」Ⅰ, Ⅱ, Ⅲ의 UP 완결판

1. 기존의 육임대계전서 사과삼전과 천지반표를 최신판 **육임산책** 것으로 **보정**시켰다.
2. 기존의 육임대계전서 과·격을 최신판 **육임산책** 것으로 완벽하게 **보정**시켰다.
3. 기존의 육임대계전서 국수해설을 최신판 **육임산책** 것으로 **보정**시켰다.
4. 조사와 귀신과 부정·산소탈을 **보정**시켰다.
5. 「**효사육임산책**」의 전 내용을 **신규장착**함.
6. 일주별 「**육임궁합법**」을 **신규장착**시켰다.
7. 「**효사육임사주감정법**」 "활용편" 일주별 대·세·월·일운의 사상을 적시하고, 발병(發病) 병명(病名)과 가족의 변수·변화를 알도록 **신규장착** 시켰다.
8. 「**활용신살**」을 **신규장착** 시켰다.
9. 「**육임1년신수비결**」을 크게 보정시켜 **신규장착** 시켰다.
10. 「**도사에게 물어봐**」를 정련 **보정**시켰다.
11. 「**출산운명택일비법**」을 정련 **보정** 시켰다.

◇기존Ⅲ UP제품 ·정가 : 450만원 ·회원 : 350만원 ·교환 : 70만원

### ▣ 오행제례의식집(五

봉도제자 저 고복자 효사는, 심신을 정결히 하고 삼가 우주 천지 음양신과 오방내외 안위제신께 기도하며 본 제례의식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제가 신명의 가호와 인도하심에 이끌려 육임을 수련하고, 신명의 옹호로 다수의 저서를 내고, 신명의 주장으로 전국 강의를 몇 년간 이행하던 차, 어느날 문득 보니, 우리 활인천역자 대다수의 소명의지가 제례의식의 결여로 다소 소침한지라, 감연히 일어나 뜻을 세워 본 법을 펼쳐 보이기로 했습니다.
불교에는 천도와 구병시식의 제례가 있고, 기독교에는 천주기도의례가 있어 형이상의

◇수법(修法)용 ·정가 : 15만원

### ▣ 효사육임사주감정법(曉史六壬四柱鑑定法) - 전1권

사주학의 역사는 깊다.
인간의 천부적 종성(種性)을 파악하고 향방(向方)의 길흉화복을 예지하는데 있어 매우 탁월한 술·학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의 사주학의 선호도는 그동안 다른 오행술과는 월등한 차이를 두어왔다. 사계의 많은 선·후학들이 사주학을 했고 또 가장 먼저 입문하는 것이 상례이다. 그러나 조금만 사려해보면 사주학의 한계를 짚어낼 수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내밀한 문제들에 대한 간결한 판단이 곤란한 구성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오행술학이란 「안 보이는 것으로부터 보이게 되는 현상」을 예지하는 것이고, 따라서 사람들이 묻고, 필요로 하는 것들, 사람들이 과거에 겪었고, 현재 겪고 있고, 앞으로 겪게 될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예언해 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인바, 사주학은 인간에게 내재된 개체 존재로서의 품수성질이 무엇이며 어떤 변화를 일으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비교적 용이한 변별이 가능하나 사람들이 당면한 사건, 사안들의 성부단정에는 미흡함을 면하지 못한다.
특히, 현대인들의 삶은 「속도성」의 가치가 매우 커져서 길흉·성부·진퇴에 관한 좁더 명확한 판단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사주학의 이러한 제한성을 어떻게 극복시키고 정확한 속도성을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 즉 시대성에 입각한 일건적(一件的) 판단들에는 사주보다 앞선 역사를 가진 육임학의 기궁과 천장의 적용으로 일정부분 해결될 수 있다.
사주는 일생적(一生的) 판단이 장점이요, 월가월부(日可日否)가 단점이고, 반면 육임은 일건적(一件的) 판단과 정형화가 장점이기 때문이다. 여기, 사주학에서 간과하고 있는 몇가지 무리 없는 육임법칙에 의한 응용효과를 제시함으로써 육임가나 사주가나 할 것 없이 한층 심층적이고도 구체적인 길흉·변수의 변별이 가능하도록 하고져 한다. 육간가는 한 수 더, 사주가는 크나큰 진화가 꾀해질 것이다...

◇활용·학습겸용 : ·정가 : 20만원 ·회원 : 15만원 ·교환불가

### ▣ 도사에게 물어봐 - 전1권

여기,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六壬人事神示法 두 개를 만들어 보인다. 대단히 크게 활용될 것으로 믿는다. 六壬에서의 이 指示法은, 北斗七星의 기운을 응용하는 법으로서 매우 영험해서 「맹세하지 않으면 전하지 말라」는 경고를 해놓고 있다.
그 영험한 사례는, 수천 년의 六壬史가 말하고, 전국 육임학당과 대학원에서 나와 함께 공부한 육임 학도들의 임상을 통해 검증되어 있다. 북두칠성의 각 기운은 다음과 같다.

제1성 **탐랑(貪狼 : 천추 生氣)** : 生을 연장하는 힘이 있다.
제2성 **거문(巨門 : 천선 天乙)** : 厄을 건지는 힘이 있다.
제3성 **녹존(祿存 : 천기 禍害)** : 命을 보존하는 힘이 있다.
제4성 **문곡(文曲 : 천권 六殺)** : 算을 더하는 힘이 있다.
제5성 **염정(廉貞 : 옥형 五鬼)** : 災殃을 없애는 힘이 있다.
제6성 **무곡(武曲 : 개양 延年)** : 禍를 해소하는 힘이 있다.
제7성 **파군(破軍 : 요광 絶命)** : 衰를 도우는 힘이 있다.

매월 월지방위를 가리키는 파군성 및 북두칠성의 구성도는 다음과 같다.
···

◇활용용서 : ·정가 : 5만원 ·회원 : 3만원

**▣ 위 도서 CD교환신청기간 ▣**

**1. 오는 2008년 11월 23일까지 입금후 접수 확인 되신 분.**
**2. 위 기간 경과후에는 절대 회원가격으로만 교환함.**

### ▣ 육임1년신수비결(六壬一年身數秘訣) - 전1권·CD

찾아왔거나, 전화로 물어 오거나, 만난 그 날짜와 그 시간만 알면, 전문가는 「월장가시(月將加時)」하여 국수를 열면 되고, 초보자는 「국수조견표」만 보아 해당일의 해당국수를 펼쳐 그 사람의 1년 월별 신수를 환히 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1년 월별로 길·흉의 구분이 되어 있는데 활인천역자의 능력에 따라 활용의 근거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좋은 달을 맞기 전 기도를 부친 다거나, 나쁜 달을 맞기 전 계율을 준다거나 당일지지(當日地支), 상신(上神 : 천반지지)에 「진(辰)·술(戌)·백(白)·사(蛇)」가 오르면 고사지내는 것 등이다. 크게 증보시켜 그 효과성을 매우 높여 놓았다.

◇활용서 : ·정가 : 40만원 ·회원 : 30만원 ·교환 : 25만원

### ▣ 육임풍수(六

우리 나라 풍수학의 대 전환을 꾀
찾아온 시간에 의해 앉아서 아래

◈ 묘지육친·남녀
◈ 묘지속 상태
◈ 묘지앞 경관
◈ 묘지 물형좌
◈ 묘지 좌향·고·저
◈ 묘지 미·추
◈ 후손 1·2·3代 생업 및 부귀
◈ 수십
풍수
당장
신뢰

◇활용서 : ·정가 : 30만원

### ▣ 효사육임강론(曉上六壬講論) - 上·下권

저자가 육임학을 국내 최초로 공개 강의하면서 교재로 사용하기 시작한 육임강의록으로서 2002년 제1판에서부터 2008년 제7판까지 거듭 증보시킨 육임학 총서이다. 한문으로된 중국서나 일본 아베번역서 및 국내 육임서들이 육임학의 일부분만을 수록하고 있는데 비해, 본 강론은 각종 육임술수류를 발굴·집대하여 수록하고, 이론·이설을 정립시켰으며, 「사과삼전」및 「천지반」 모두에 「천장」을 접지시키는 등 육임학에 한한 의심이 없도록 한것이 특징이다. 특히, 上권은 「학습서」로 꾸미고, 下권은 「임상실기서」로 꾸민것이 최장점으로 꼽힌다. 또 이 최신 제7판에서는 「과체」상의를 엄중정변하고 「격」상의 및 「체출근거」까지 일일이 명시함으로써 초학이든 전문가든 육임학의 고등성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음은 물론, 「육임고시문제집」까지 수록하여 학습자 스스로 자기의 학습정도를 점검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여기 타의 추종과 모방을 불허하는 저자만의 연구결과가 또 있다. 그것은 바로 효사 「형이상법」이다! 下는 「지리」, 中은 「인사」, 上은 「귀신」이라는 공부법이 있듯 육임학의 뼈미를 거침없이 설시하고, 실기서에도 자신있게 꼭꼭 적기한 이후 수년에 걸쳐 그 적중도가 검증되어 있다.
그 외 「초사」를 적기하여 복자들의 복변능력을 고양하고 그 권위를 담보했으며, 해당국수마다 국수해설을 붙이므로서 점자의 사정을 보다 심층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을 뿐 아니라 육임학의 최난해적 관문인 사과삼전요해에 결정적 도움을 얻게끔 양면일목(兩面一目)으로 구성시킨 것은 가히 육임학의 이정표를 세운 쾌거이기도 하다. 저자가 본 강론을 제1판~제7판까지 증보시켜온 7년간, 공익법인 한국육임학회 총재, 육임학당 효사숙 강주, 전국 육임학당 3년 순회강의, 월간 역학춘추 발행인, 동방대학원대학교 미래예측학과 석박사과정 육임학 지도교수를 역임한 이력과 그 궤를 같이 하면서 그야말로 녹아있는 육임학 교재로 완성시킨 역작인 것이다.

◇운세사이트 ·1회 정단 : 1만원 ·CEO 제왕학육임강의 26회 무료

### ▣ www.taotemple.net

공익법인 한국육임학회 공식 웹사이트로서 본 회 전국조직도, 학당조직도, 월간역학 춘추조직도, 발행표지, 육임서 소개, 운세, 무·유료 강의 등 포털 수준으로 꾸며져 있다.

「한국경제TV」 육임특강 26회 「CEO 제왕학」 강의가 오픈되어 있기도 하다.

▣ 효사육임강론 강의 CD 96개 80만원

### ▣ 효사육임 CD 프로그램들

| | |
|---|---|
| • 효사활인천역집 완결판 CD | 450만원 |
| • 효사육임산책 CD | 250만원 |
| • 효사육임1년신수비결 CD | 100만원 |
| • 효사숙사주 CD | 70만원 |
| • 효사육임사주감정법활용편 | 100만원 |
| • 월영도 | 50만원 |
| • 매화역수 | 50만원 |
| • 도사에게 물어봐 | 50만원 |
| • 길흉성부단정 | 50만원 |
| • 육임강의 동영상 수강 | 20만원 |

### ▣ 출산길일길시택일비법(出

이 책은 활인전문천역자 용이다.
그러므로 군더더기 없이 바로 판단할 수
내가 써 온 책들이 모두 그렇거니와 공부
그런 류가 아니라 분·초를 다투어 기선을
왜냐하면 동역자 여러분께서 공감하고
즉시 점자의 핵심을 간파하여 말할 수 있
겠는가. 또, 이 시대에 와서 복중 태아를
사실 기준없이 좋은 사주를 뽑아 준다는
이 책은 그런 점에서 매우 가치가 클 것이
과오가 없도록, 하늘에 작죄함이 가능한
한가지 꼭 해 둘 말이 있다.
우리 활인천역자는 상담자가 아니라 예언
전국에 계시는 현인·기사·이인 각위의

◇활용서 : ·정가 : 15만원

### ▣ 육임대계전서(六壬大係全書) 보정 휴대용 - 전60권

인지 수년(認知 數年) 이전(以前)에서 선지자(先知者)가 있어 육임 본학(六壬 本學)을 구성한 이래 고금(古今) 시대마다 그 맥(脈)을 힘차게 해 온 현인·기사·이인 각 위가 있었다.
지금(至今)에 이르러 나와, 나와 함께 열렬히 공부한 육임가 선생들의 각고에 의해 시공(時空)을 초월할 육임사(六壬史)에 대획(大劃) 하나를 긋게 되었다.

복자(卜者)는 천역(天役)이요, 판단(判斷)마다 귀중한 인명(人命)의 사활(死活)을 좌우함에, 여기 **좌정용에 이어 휴대용으로 까지 보정하여**, 정직하고 사족(蛇足)없는 복변(卜辯)을 충족시켜 둔다.
이 실용 각법 단정들에 대해 그릇인 자는 크게 쓸 것이요, 종성(種性)자라도 가히 어김은 없을 것이다.

아아, 산천(山川)은 본연(本然)하나 인걸은 스러짐에, 천하 대계를 위해 누군가 해 놓을 일을 대견한 나의 문도(門徒)들과 이루게 되다니 - ,
다만 하늘에 죄가 작기(小)를, 인사(人事)에 민망함이 적기(輕)를 빌 일 뿐이구나!

◇활용서 : ·정가 : 4백만원 ·회원 : 3백만원 ·교환 : 150만원

### ▣ 육임래정비법(六壬來情秘法) 보정판 좌정용 - 전1권

좌정용은 1권, 휴대용은 6권으로 만든 간단 요약적 전문가용 활용서이다.

◈ 시보 (정련시킨 최신판 임)
◈ 내정 (정련시킨 최신판 임)
◈ 과·격 상의 사과삼전, 천지반표 (정련시킨 최신판 임)
◈ 초사 (정련시킨 최신판 임)
◈ 귀신 (정련시킨 최신판 임)
◈ 국수해설 (정련시킨 최신판 임)
◈ 항목별 단정 (정련시킨 최신판 임)

이 한눈으로 구성되어 있어 활용의 효과가 매우 크도록 심혈적으로 되어있다.

◇활용서 : ·정가 : 35만원 ·회원 : 30만원 ·교환 : 25만원

### ▣ 육임래정비법(六壬來情秘法) 보정판 휴대용 - 전6권

좌측의 「육임래정비법 좌정용」과 동일하고,
다만 「휴대용」이므로 순별(旬別)
6권으로 분권시킨 것이다.
우리 활인천역자 제위의 인기가 크다.

◇활용서 : ·정가 : 35만원 ·회원 : 30만원 ·교환 : 25만원

### ▣ 위 신간 「복변집」·「산책」·

1. 지난 2000년부터 2008년 8월
저술 각종 육임학습·활용서
2. 입금·반품 확인 후 교환신청
3. 기존 구입가격의 고·저가 품
(예 : 육임래정비법 30만원·
모두 해당 됨) 보다 정련된 육
4. 특히 「효사활인천역집Ⅲ」 CD
1:1 방식으로 「완결판」을 교

### ■ 왜 「효사육임복변집」(좌정용)·「효사육임산책」(휴대용)·「효사활인천역집 CD프로그램」 "완결판" 이어야 하는가?

아무나 흉내낼 수 없고, 흉내내서도 안되는, 고복자 효사만의 적중도와 효과성을 제고시킨 쉬운(易) 활용서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미리알고 먼저 말할 수 있게 해 놓은 내용들입니다. 차근차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일 제 1면

一. 시보(時報) : 매일 매시간들 마다에 아래 8가지의 답(答)을 달아 놓았습니다.
1. 왜 왔는가? 왜 전화했는가? 무슨 일인가? 2. 바깥 일인가? 집안 일인가? 3. 큰 일인가? 작은 일인가?
4. 어떤 사정이 있는가? 5. 후퇴할 일인가? 전진해야 할 일인가? 6. 될까? 안될까?
7. 오늘 어떤 좋은 날인가? 어떤 나쁜 날인가? 8. 오늘 몇시가 어떤 좋은 시간인가? 어떤 나쁜 시간인가?

각일 제 2면

二. 내정(來情) : 매일 매시간에 의한 해당 국수(局數)마다에 아래 15가지의 답(答)을 달아 놓았습니다.
1. 이 사람의 현재 전체적 사정은 어떠한가?
2. 이 사람의 세부적인 여러 사정은 무엇 무엇이 또 있는가?
3. 지금 어떤 일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박두해 있는가?
4. 이 사람의 현재 가정사정은 무엇인가?
5. 이 사람과 관계된 상대의 실력은 이득·피해·손해·무력인 중 어느 것인가?
6. 이 사람은 부자인가? 귀인인가? 빈한자인가? 천한자인가?
7. 이 사람이 유리한가? 이 사람의 상대가 유리한가? 모두 좋은가?
8. 이 사람이 저지른 일인가? 이 사람의 상대한테 당한 일인가?
9. 일이 이미 벌어졌는가? 앞으로 벌어질 일인가?
10. 이 사람의 윗사람이 유리한가? 아랫사람이 유리한가? 여자쪽이 유리한가? 남자쪽이 유리한가?
11. 새로운 일인가? 오래된 일인가? 반복되는 일인가?
12. 드러내도 좋은 일인가? 감추고 싶은 일인가?
13. 이 사람의 정황을 요약해 말하자면 어떤 것인가?
14. 이 사람이 시험·선거·관공직사에 대해 묻는다면 될까? 안될까?

각일 제 3면

三. 형이상(形而上) : 매일 매시간에 의한 해당 국수(局數)마다에 아래 6개 큰 항목과 15개 작은 항목마다 답(答)을 달아 놓았습니다.
1. 이 사람에게 어떤 귀신이 침범하여 일이 꼬이고 있는가?(어떤 방법으로 해소 시킬 것인가?)
2. 이 사람에게 어떤 귀신이 침범하여 병이 생겼는가?(어떤 방법으로 해소 시킬 것인가?)
3. 이 사람에게 무슨 부정빌미(邪祟)가 들어 우환이 있는가?(어떤 방법으로 해소 시킬 것인가?)
4. 이 사람에게 해당되는 산소탈은?
가. 산소탈 해당 육친(肉親)은? 나. 산소탈 해당 묘지 주산(主山)·좌향(坐向)은? 다. 산소탈 이유는?
라. 산소탈 묘지 물형좌(物形座)는? 마. 산소탈 해당 묘지 앞 경관(京觀)은? 바. 산소탈 해당 묘지 속 상태는?
사. 산소탈 침범 재해(災害)는? 아. 해소 시킬수 있는가? 어떤 방법을 쓸것인가?
누가 수법(修法)을 해야 효과가 있는가?
자. 수법 택일을 당장 해야 좋은가? 아니면, 며칠 후 언제로 택일할 것인가?
5. 이 사람의 흉세(凶勢)는 언제 끝나는가?(기도 일수를 어느 시기로 맞춰야 효과적인가?)
6. 이 사람의 모망사(계획)가 되는 日·月·年은 언제인가?

각일 제 4면

四. 사과삼전 : 매일 매시간에 의한 해당 국수(局數)마다에 초사(初辭 : ㉮"**효사요결**„ ㉯"**직지요결**„을 담고, 사정·형편·전개 길흉을 다음 "**예**„와 같이 적시해놓았습니다.
1. 예문(例文) : 庚寅日 第四局
가. **"가장은 집을 걷돌고 집은 옮겨야 겠고 소송사는 벌어지고···
낮 - 전사귀, 밤 - 변사귀 침범 때문이네? 지금 시작하는 신규사까지 방해 받고있겠어!"**
나. **"내가 상대에게 구하니 예를 다하여야 한다. 누가 재앙을 일시 풀어준다해도 도리어 나중에 재앙의 씨앗이다"**
2. 내외(內外) 어느 쪽에서 발단된 일인가? 3. 내방 조짐은 어떠한가?
4. 길방(吉方)은 어디인가? 5. 택일(擇日)은 몇 일로 할 것인가?

각일 제 5면

五. 천강법(天罡法) : 매일 각 시간마다 아래 3개 항목에 대한 답(答)을 달아 놓았습니다.
1. 계획사가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2. 이 사람의 천성이 선(善)한가? 악(惡)한가? 보통(普通)인가?
3. 승부·쟁패·상담·담판 등의 승리를 위해서는 어느 쪽에 앉아야 하는가?(장(長)시간일 경우와 단(短)시간일 경우로 구분했음)

각일 제 6면

六. 천지반(天地盤) : 「띠」를 알고 판단하는 법칙을 적용, 각 「띠」마
11가지로 나누어 달았습니다.
1. 부정침범자 2. 관재자 여부 3. 질병자 여부 4. 곤궁자
5. 불성산기(종교·신명·복명등)자 여부 6. 운명전도자 여
8. 승진이동자 9. 귀인발현자 10. 본인재액자 여부 1

각일 제7·8면

七. 성부단정(成否斷定) : 여기에서는 - 찾아오거나 전화한 사람이
항목으로 정(定)해 모두 그 성부 여부를 달아 놓았습니다.
1.모망사 2.공명사 3.구재사 4.구직사 5.시험사
9.이동사 10.소송사 11.질병사 12.매매사 13.출행사
17.면접사 18.채용사 19.투자사 20.승부사 21.가격사

각일 제9~20면

八. 1년신수(一年身數) : 매년 각 월의 내외 길흉사를 해당 국수별

각일 통 합 면

九. **육임임상활용신살표 :** 우리 활인천역자가 요긴하게 쓰게 되
十. **효사육임사주감정법 활용편 :** 사주(四柱) 뽑고 대운(大運) 정
알면 명(命)·운(運)·병(病)·육친(六親)의 변수까지 모두
법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十一. **출생일주(日柱)육임궁합법 :** 일주(日柱)에 의한 평생 배
내는 육임비법이 활용 양식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十二. **부록이 따라갑니다 :** 본 활용서는 고도의 육임비법을 항목마
정곡을 찔러갈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사족(蛇足)일 망정 각
학습하면 판단의 효과성이 더욱 커지겠습니다.
十三. **설명 CD가 따라갑니다 :** 다시 위 각 면의 항목 비술들에 대
저자께서 해주셨습니다. 2시간 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 모두는 가장 어렵다는 육임학을 공부하지 않
념만 있다면 누구든 즉시적으로 사용하여 큰 효과를 볼 수 있
에 걸쳐 빼고 보태고 갈고 닦아 최후로 완성시킨 신력서(神力書
나 효과성에 비하면 매우 싼 값 임을 주지해 드립니다.

## 한 국 육 임 학 회 www.taotemple.net 총재 고복자 효사

**서울본회 02-833-8683 담당 : 임근홍 ( 우리1002-037-559214 정용철 ) / 부 산 지 회 051-908-8683 담당 : 진민경 ( 농협 121059-56-02**

**선어입문: 마음을 밝히는 100가지 공안**
쿠스모토분유 지음|지성 옮김|클리어마인드 펴냄|1만2000원

# 禪語를 통해 인생 처세술 배운다





초조 달마에 의해 중국에 전해져 6조 혜능 선사 이후 오가칠종(五家七宗)으로 분파해 화려한 꽃을 피운 선(禪)의 세계가 일상을 노크한다.

중국 송나라 유학승으로 일본 차조(茶祖)로 불리는 에이사이 선사(榮西, 1141~1215), 가마쿠라 불교를 대표하는 조동종(曹洞宗) 종조 도겐 선사(道元, 1200~1253), 중국 명나라 유학승으로 일본의 음다풍 전차법(煎茶法) 시조인 인겐 선사(隱元, 1593~1661)로부터 전등(傳燈)돼온 선어를 갈무리했다.

**#현대인의 고정관념, 그 틀을 전환하고 확장하라.**

역자는 "생각이 바뀌면 습관이 바뀐다. 습관이 바뀌면 삶의 질이 윤택해 진다. 세상살이가 갈수록 어렵다고만 여겨지는 까닭은 물질로만 치닫기 때문이다. 보이는 물질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를 바라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출 때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전한다.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선어에 담겨 있고 이를 통해 새로운 인식의 안목을 갖추게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선어입문: 마음을 밝히는 100가지 공안>은 백선(百選)된 선어의 진수를 평이하게 해설해 선에 대한 부담과 거리감을 덜었다. 언어문자를 희롱하거나 지나치게 유희하지도 않으면서 행에 의한 체득의 종교인 불교의 진리를 추구한다. 불성인 순수한 인간성과 대면하는 자양분을 제공하고자 한 것이다.

**#선사의 의단(疑團) 속에서 찾아낸 삶의 해답.**

<무문관> 제1칙 '무(無)'자 화두는 선어의 시작이다. 개의 불성에 과한 유(有)·무(無)는 상대적이고 상식적인 유·무를 초월한 차원이다. 상대적인 유·무에 사로잡히면 미혹과 번뇌를 일으켜 분별하게 되고 본래면목을 잃게 된다고 경고한다. 이로써 선종의 관문이 열리고 100가지 공간 속으로 궤도열차는 달려간다.

순수하고 진실한 본래 주인공을 돌아보려 하지 않고 그것을 잊거나 놓치는 일상을 살아가는 원인은 스스로 주인공을 무시하는 이유다. 인간소외, 인간 상실이라는 말로 외부 현상 탓만 하고 있으니 현대인의 불안은 해결되지 않은 것이 당연하다.

선사들의 의단(疑團) 속에서 찾아낸 삶의 해답. <선어입문: 마음을 밝히는 100가지 공안>을 따라 선의 오솔길을 동행하다보면 내가 머무르는 이곳이 선당(禪堂)임을 알게 되고 본래 자아의 현전과 마주하게 된다. 인생의 진실성, 본래 자기를 출현하는데 있어 본래 마음자리를 다독이고 재점검하는 진솔함과 만나는 시간이다.

가연숙 기자 omflower@buddhapia.com



**결가부좌 연습**
정암 지음 | 선(禪)펴냄 | 1만원

현대인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상대적 박탈감 등 온갖 스트레스에 신음하면서 산다. 어떻게 하면 일상생활의 압박에서 벗어나 불이정신(不二精神)과 중심본성이 계합된 깨어 있는 삶을 실현할 수 있을까?

정암 스님은 8세에 입산수도를 시작으로 제방 선지식에게 명상과 참선수행의 가르침을 받았다. 스님은 <결가부좌 연습>에서 "깊은 선정(禪定)과 명상(冥想)에 몰입 됐을 때 자재인생(自在人生)이 가능하다"며 "명상 또는 참선 수행의 중요한 목적은 깨어 있는 마음의 생명인 혜명(慧命)의 등불을 밝히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결가부좌연습>은 명상에 입문하거나 긴 시간 선정에 몰입하고자 하는 수행자, 그리고 명상과 참선을 지도하는 선지식이 참고하기에 알맞은 내용의 '해설'과 '수련'편으로 구성됐다.

해설 편에는 결가부좌연습의 △각 신체부위의 한기정화 △근육이완 △완성자세 △1~3시간 결가부좌 등 결가부좌 연습의 이론과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수련'편에서는 '해설'편에서 다룬 이론을 바탕으로 그림·사진과 함께 실제 수련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나은 기자



**광덕스님 시봉일기**
송암 지원 지음 | 도피안사 펴냄 | 1만2000원

한국 불교계의 대각구국구세(大覺救國救世)의 사상가 금하당 광덕 대선사(金河堂光德大禪師) 입적 10년을 맞이해 <광덕스님시봉일기> 11권이 완간됐다.

"나는 죽는 몸이 아니야! 다시 돌아와서 불광 운동을 계속 할 테야" 광덕 대선사가 생전에 자주 했던 말이다. 광덕 스님의 상좌인 송암 스님은 스승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스승이 다시 태어나셨을 때 조금이라도 더 빨리, 쉽게 일을 시작할 수 있게 준비했다. 이러한 일환으로 <광덕스님 시봉일기>는 송암 스님이 범어사 행자생활 때부터 대각사·보현사·불광사 등 여러 곳에서 스승을 모시면서 직접 받은 교훈, 감명 깊은 현장, 스승의 인연담을 생생한 현장일기 시리즈로 엮은 책이다.

이 책은 초기불교 때부터 '여시아문(如是我聞)'의 전통으로 이뤄진 불경의 결집과정이나, 또는 서구나 동양에서 소크라테스나 예수, 공자의 기록, 경전들이 역시 제자들에 의해 완성된 과정에 비견되는 소중한 자료로서도 큰 의미가 있다. 제자가 스승을 모시는 자세의 전범을 보여준 감동의 사례이자, '구술사' 연구 자료로서 유례가 드문 일대 장거다. 이나은 기자



**마음에서 부는 바람 - 내가 사랑한 부처님의 말씀들**
김의정 지음 | 이른아침 펴냄 | 1만5000원

"시시비비(是是非非)를 끊으니 두두물물(頭頭物物) 부처님이네"

어머니와의 깊은 인연으로 어린 시절부터 불교를 접한 저자가 부처님말씀을 들려준다.

우리는 부처님께서 살아계시던 때보다 안정되고, 평화롭고 풍요로운 사회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리는 윤택한 일상에 비해, 정신적으로 감당해야하는 번뇌와 망상의 무게는 더욱 무거워져만 간다. 어떻게 해야 이 번뇌와 망상, 탐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그 모든 해답이 들어있다. 저자 김의정씨는 어려서부터 부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그가 스트레스와 온갖 번뇌로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린 행복과 마음의 평화를 나눠주고자 그가 사랑한 부처님의 말씀들을 선별해 책을 펴냈다.

어려운 경전 구절을 쉬운 우리말로 옮기고, 자신의 경험과 역대 큰스님들의 이야기들을 덧붙였다. 혼돈의 세상에서 '참나'를 찾아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전한다. 이나은 기자

##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 순위 | 도서명 | 저자 | 출판사 |
|---|---|---|---|
| 1 |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 월호 | 마음의 숲 |
| 2 | 인과경 | 현담 | 선 |
| 3 | 성철스님 화두참선법 | 원택 | 김영사 |
| 4 |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 월호 | 불광출판사 |
| 5 | 아발로키테슈와라, 당신은 나의 연인 | 월호 | 운주사 |
| 6 | 이와 같이 살았으면 | 무비 | 염화실 |
| 7 |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이야기 | 과경 | 불광출판사 |
| 8 | 아름다운 인생은 얼굴에 남는다 | 뜰 | 원철 |
| 9 | 하루 108배 내몸을 살리는 10분의 기적 | 김재성 | 아름미디어 |
| 10 | 위없이 심히 깊은 미묘법이여 | 김일수 | 도피안사 |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간단 명료한 불교**
스티브하겐 지음 | 우리출판사 펴냄 | 1만원

"너 자신의 등불이 되어라. 너 자신 외의 그 누구에게서도 피난처를 찾지 마라"

인간의 삶은 지속적인 괴로움이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괴로움은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 근원은 우리 스스로가 밝혀 가장 심오하고 실존적인 상태로 이끌어 낼 수 있다. 그러한 깨우침은 스스로에게 마음의 자유를 준다. 부처님의 네 가지 진리(四聖諦)를 쉽게 표현한 책, 바로 <간단명료한 불교>다.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을 부처님이 깨달은 법을 통해 고찰한다. 우리를 속박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혼란스러운 마음 상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삶을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라고 약속해주지 않는다. 철저히 문제의 근본을 파고들어 그 근본 위에서 행동하게 하는 것이다. 자체로서 깨어 있음, 방심하지 않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과의 만남을 의미한다. 부처님은 기도드릴 대상도,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는 대상도, 엎드려 절할 대상도 아니다. 부처님은 단순히 깨어있는 사람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즉 깨어있어 마음의 자유를 얻는다면 누구나 바로 부처님이 되는 것이다.

이 책은 불교적 색채를 띠지 않는다. 간단명료하고 쉬운 말들로 독자들을 깨친다. 총 3부중 1부에서는 사성제, 2부에서는 고집멸도(苦集滅道) 중 '도(道)'에 초점을 두고 삶의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길을 제시한다. 3부에서는 고·집을 면밀하고 자세하게 고찰하면서 인간의 의지와 깨달음의 문제를 다룬다. 이상언 기자

한 권의 불서 성불의 씨앗
불서읽기 캠페인



월운 스님에게 듣는 **경전이야기** <9>

# 경전의 이름은 어떻게 지어졌을까

이상과 같이 결집된 경전은 각기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들은 어떻게 지어졌을까.

이른바 무명지중강안명(無名之中强安名), 즉 이름이 없는 자리에 억지로 이름을 붙였다는 것이다. 왜 그랬을까. 이름이 없으면 관리(管理)나 유통이 불편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편리하고 기억하기 좋은 방향으로 이름이 붙여졌을 터인데 그 요체는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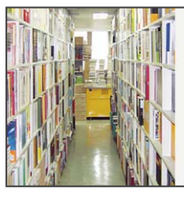
모든 경전의 소전(所詮), 즉 모든 경에서 강조하신 내용은 주로 인법(人法), 즉 사람[人]과 법(法)에 관한 것인데 그것을 다시 사람에는 설(說)하시는 이와 청(請)하는 이도 있고, 범부[凡]와 성현(聖賢)의 차이도 있다. 다시 법에는 법설(法說)과 비유(譬喩), 또는 체(體)와 용(用), 또는 인(因)과 과(果), 염(染)과 정(淨) 등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들이 혹은 홀[單]으로, 혹은 겹[複]으로 경의 이름을 이루고 있다. 이를 표(表)로써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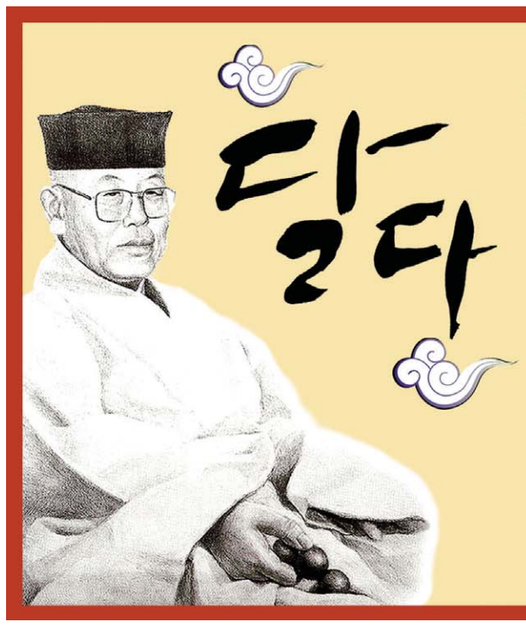
| | | | |
|---|---|---|---|
| 人 | | 從請人得名 | ①사익범천소문경(思益梵天所問經)等 |
| | | 從說人得名 | ②무진의보살경(無盡意菩薩經)等 |
| | | 從所依人得名 | ③수달라경(須達羅經)·우전왕경(優塡王經)等 |
| | | 從所說人得名 | ④금색동자경(金色童子經)等 |
| 經 | 法 | 法說因 | 從法體得名 ⑤반야경(般若經)等 |
| | | | 從法用得名 ⑥신족경(神足經)等 |
| | | 法說果 | 從因行得名 ⑦정공경경(正恭敬經)等 |
| | | | 從因位得名 ⑧십주경(十住經)等 |
| | 喩 | | 從全喩得名 ⑨대운경(大雲經)·보적경(寶積經)等 |
| | | | 從法喩得名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等 |
| | | | 從人法雙擧 □승천왕반야경(勝天王般若經)等 |
| | | | 從體用雙明 □십주단결경(十住斷結經)等 |
| | | | 從因果雙融 □점비일체지덕경(漸備一切智德經)等 |
| | | | 從說時得名 □시비시경(時非時經)等 |
| | | | 從說處得名 □밀엄경(密嚴經)等 |

이상 15종의 경명 중 종청인득명(從請人得名)은 설법을 청한 사람의 이름을, 종설인득명(從說人得名)은 부처님을 대신해서 설법한 사람의 이름을, 종소의인득명(從所依人得名)은 부처님께서 잠시 의지하고 계시던 집 주인의 이름을, 종소설인득명(從所說人得名)은 그날 화제(話題)로 삼으신 주인공의 이름을, 종법체득명(從法體得名)은 설하시려는 진리의 이름을, 종법용득명(從法用得名)은 설하시는 법의 기능, 즉 공덕을 따랐다.

종인행득명(從因行得名)은 설하시는 인행을, 종인위득명(從因位得名)은 인행이 성숙된 상황을, 종전유득명(從全喩得名)은 순전히 비유를, 종법유득명(從法喩得名)은 법과 비유를, 종인법쌍거(從人法雙擧)는 수행하는 사람과 그의 법 모두를, 종체용쌍명(從體用雙明)은 체와 용 모두를, 종인과상응(從因果雙融)은 인과 과 모두를, 종설시득명(從說時得名)은 설법하시던 시기를, 종설처득명(從說處得名)은 설법하시던 곳을 따랐다는 내용이다.

혹자(或者)는 말하리라. 우리의 고려대장경(高麗大藏經)만 해도 1511부, 6802권, 8만1258매요, 일본의 신수대장경(新修大藏經)은 비록 자기조상들의 저술까지를 포함시켰지만 2500여부인데 겨우 이 십오항(十五項)으로 경전의 대의운운(大義云云)하시니, 과장(誇張)이 아닌가라고. 그렇다. 맞는 말이다. 창해일속(滄海一粟)으로도 비유가 안 되지만 이야기를 하자니, 이렇게라도 얼개를 쳐야겠기에 늘어놓은 것이다. 마치 서산에 지는 달을 설명하는데 부채라도 들고 떠들어야 흥(興)이 나듯이 말이다. 봉선사 조실, 동국역경원장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전화 02)3672-7181 팩스 02)3672-7188


조계종 77조
전강 대선사님 법어집

이제는 전설이 된 한국 근대선의 거목인 전강 선사님의 최상승법과 예리한 지혜, 선기로 넘쳤던 삶이 생생하게 담겨 있는 전강 대선사 법어집 〈 달다 〉!
전강 대선사님의 인가 제자인 대원 선사님께서 전강 대선사님의 법거량과 법문, 일화를 재조명하여 보였습니다. 전강 대선사님과 대원 선사님의 특별한 인연과 고수명창같이 어우러진 두 분의 법거량도 자세히 실려 있습니다. 섬광과 같은 지혜로 수놓은, 최상승법의 자취없는 문양과 향 없는 향기에 흠뻑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 달다 〉는 선(禪) 수행자들에게 10년 가뭄의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바른보인 전등록 전5권 / 바른보인 무문관 / 바른보인 벽암록 / 바른보인 천부경 / 바른보인 금강경
바른보인 신심명 / 바른보인 증도가 / 바른보인 반야심경 / 바른보인 선문염송 전30권 중 11권
바른보인 환단고기 전5권 / 바른보인 법융선사 심명 / 바른보인 선가귀감 / 바른보인 법성게
주머니 속의 심경 / 영원한현실 / 앞뜰에 국화꽃 곱고 북산에 첫눈 희다
선을 묻는 그대에게 1,2권 / 세월을북채로세상을북심아 / 달다
법회 안내
매월 첫째 일요일 서울 정맥선원 선가귀감 법문 02-3494-0122
매월 둘째 일요일 국제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31-531-8805
매월 셋째 일요일 광주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62-944-4088
매월 넷째 일요일 부산 정맥선원 반야심경 법문 051-503-6460
02-3494-0122 www.zenparadise.com




함영의 **밥맛 나는 세상**

❹ 노모와의 절 여행2

# '수돗가 만찬'의 비밀을 아시나요?

여든의 노모와 친정 같은 절로 떠난 여행 이튿날, 종협이 보살님이 이른 아침부터 절에 당도했다. 제사가 있기 때문이란다. 아랫마을에 살고 있는 종협이 보살님은 절에 크고 작은 행사가 있을 때면 공양간일을 돕는 이른바 '비공식 공양주'. 고된 농사와 치매에 걸린 아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도 소녀와 같은 마음을 간직한 효부다.

워낙에 넘치는 것이 전라도 인심인지라, 제사 일을 마치고 오후엔 고추를 따러 밭에 가야 한다고 설레발이던 종협이 보살님이 저녁에는 댁에서 공양접대를 하겠단다. 몸이 둘이라도 모자랄 지경인데, 스님들과 멀리 서울서 온 팔순의 객을 그냥 보내기가 서운한 모양이다. 그런 황송한 접대를 받기가 미안한 노모는 함께 고추를 따러가겠다고 나섰다. 빠듯한 살림살이에 마음을 내준 것이 갸륵한 노스님은 장에 나가 손수 찬거리 몇 가지를 사다주시고, 공양주 보살님과 나는 공양 준비를 돕기 위해 일치감치 출동했다.



종협이 보살님 댁 부엌에 이심전심 함박웃음이 피어난다.

"우리 집이 겁나게 누추혀요."

옛 형태를 고스란히 갖춘 시골집의 방과 부엌, 화장실, 쪽마루, 그리고 입구에서 낯선 손님을 반기듯 연실 짖어대는 순돌이와 헛간의 누렁소까지 서울촌놈 눈에는 풋풋하고 정겨울 따름인데, 종협이 보살님은 겸연쩍기만 한 모양이다.

한 동네로 시집와 십 수 년을 친자매마냥 지낸 사이인 만큼 공양주 보살님은 알아서 부엌 한편에 자리를 잡고, 종협이 보살님은 냉장고에서 온갖 김치와 밑반찬을 꺼내기에 여념이 없다. 곧이어 부엌바닥에는 연근조림에 깻잎장아찌, 매실장아찌, 병치젓갈까지 줄지어 놓였다. 무엇보다 압권은 보기만 해도 시원달달한 동치미에 총각김치와 배추김치다. 얼마나 푸르싱싱한 자태를 뽐내는지, 주책도 없이 절로 손이 간다.

"무시에다 물 넣고, 소금하고 고추 넣고 별것도 읍서. 하나 먹어보더라고."

입 크기는 생각지도 않은 채 큼지막한 무 하나를 양껏 베어 무니, 우적우적 대는 싱싱한 소리마저 뱃속에 다부닐게 흘러들어가는 것만 같다.

"어이, 서울 보살님. 거시기 홀티스 좀 쪼까 줘보쇼잉?"

한쪽에서 전골을 준비하던 공양주 보살님이 난데없이 '홀티스'라는 정체불명의 물건을 찾는다. 그 정체를 알아먹을 길이 없는 나는 난감할 따름. 급하게 입에서 나오는 대로 엉겁결에 붙인 홀티스의 정체란, 알고 보니 주방에서 흔히 사용하는 일명 '키친타월'을 말함이었단다.

이심전심의 마음이면 무언들 통하지 못할까. 어디 한두 해 맞춰본 장단이랴, 언니보살이 마음대로 지어낸 말의 실체를 척하니 알아듣는 아우보살의 이심전심이 기막힐 따름이다.

어느새 압력솥에선 딸랑거리며 밥이 지어진 신호를 보내오고, 한 마리에 만원씩이나 줬다는 물오른 갈치가 불 위에서 짭조름하게 익어간다. 헛간에서 뽀얗게 먼지를 뒤집어쓴 자개상도 모처럼 외출했다. 한편 방금 전까지 "나라 상감도 일단은 간을 봐야하는 구먼~"이라며 전골 간을 보던 공양주 보살님이 이번에는 수돗가 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끓는 물에 몸단장을 하고나와 따끈하고 통통하게 익은 오징어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보니, 그냥 넘어가기가 아쉬운 모양이다. "종협아, 거시기 좀 없냐?" 그 마음 어찌 또한 모를쏘냐. 대령된 것은 재작년에 담가두었던 매실주다.

"시골이 다 이런 맛이재 뭐시 있간요. 손님 상에 놓을 건 먼저 빼두고 잠깐 맛이나 보면서 쉬어 가드라고."

초장을 듬뿍 찍은 오징어 다리에 폭하니 발효돼 약차가 된 매실주가 한 잔씩 돌아간다. 새콤달콤한 곡차 한 잔에 오징어다리 한 쪽이 그윽한 맛의 조화를 이뤄낼 줄이야. 삶의 시름이 곰삭아 발효된 맛일런가. 즉석에서 '수돗가 만찬'을 치르고 나니, 서너 살쯤의 연륜을 거저 하사받은 듯 한 감회다.

자개상의 고운 자태 위로 음식들이 차려질 즈음에, 손님들을 반기는 순돌이 신호가 들려온다. 순돌이와 해후하는 노스님의 발랄한 목소리도 들린다. 잠시 후,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진 성찬에 '우와~'하는 이구동성 감격의 소리도 들려온다. 그들은 알까. 수돗가에서 일치감치 치러진, 진짜 만찬의 비밀을. 자유기고가



능인향당 이완로 처사의

**침향 이야기** ❻



# 침향서 추출한 '수지'에 기운 응집

전설에 의하면, 애초에 침향은 부처님 진신사리처럼 세상의 모든 이들이 천상의 향을 고루 나눌 수 있도록 작게 만들어 세상에 보내졌다고 한다. 크기가 크지 않은 침향 염주는 공예품 등급의 침향을 염주알로 가공해 수지를 코팅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진다. 애초에 약용으로 쓸 수 있는 침향을 가공해야겠지만 염주알로 가공할 만큼의 크기가 나오는 것이 거의 없어 대용으로 조그만 조각들을 모아 수지를 추출한 후 목걸이나 염주알 등을 만들어 거기에 수지를 먹인 것이다.

침향의 기는 수지부분에 응집돼 있으므로 인체에는 똑같은 기를 보내는 점이 참으로 신기할 뿐이다. 중요한 점은 침향 염주는 반드시 그 성분구조가 같은 침향 수지를 먹여야만 인체에 무리 없이 기를 통하게 하는데 과연 얼마나 순도 높은 침향에서 추출한 수지를 사용하느냐의 문제다.

능인향당에서는 이 문제로 오랜 연구 끝에 직접 침향을 구해서 각 등급에 맞는 침향의 수지를 추출해 염주를 생산하고 있다. 실제 염주의 제작 재료는 무수히 많으나 보석이나 다른 여타의 재료들을 불문하고 기도시나 몸에 지닐 때 '침향의 기를 능가하는 소재는 없다'고 평가 받고 있다.

침향의 기운에 관한 웃지 못 할 이야기 하나가 있다. 중동지방의 한 부호는 수십 년째 침향을 구하러 베트남에 가는데 그 사람은 침상에 아예 침향을 가득 채워 소위 침향 침대를 만들어 생활한 지 수십 년이 넘었다고 한다. 침향의 기를 온몸으로 흡수하기 위한 이유다. 현재 그의 나이는 80세가 넘었는데 자식이 17명이나 된다고 한다. 68세에 막내 자식을 보았다면서 지금도 침향 침상에서 자고 나면 온몸이 개운하고 상쾌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한다. 그 놀라운 자금력과 집착은 무서울 정도이지만 침향의 기운을 느껴본 필자로서도 한번쯤 그런 침상에서 자봤으면 하는 꿈을 꾸게 되는 이야기이다.



불가의 신성한 5단향을 찾으며 맺은 침향의 인연이 신비롭다.

침향의 기운을 단적으로 설명한 예지만 실제로 침향은 조그만 조각이라도 벽사의 기운을 내고 몸의 악취나 악기를 털어내 몸에 이로운 작용을 하는 물질로 이 세상에서 거의 유일한 물질이다.

필자는 능인향당을 운영하기 전에 30여 년을 국악인 대금 연주자로 지냈었다. 그 동안 사찰에서 소리공양을 하면서 육법공양을 많이 보았는데 향은 육법공양 중에서도 그 으뜸이다. 향의 중요성은 부처님 재세시에 직접 언급한 바도 있거니와 항상 부처님의 면전에 유일하게 독대하는 공양물 아닌가? 그래서 제대로 된 공양물을 만들어 보고자 시작한 것이 바로 능인향당이다. (02)3663-6777 (계속)

행복한 삶을 위한, 선과 禪 심신건강 心身健康

❶❶ 뇌 활성화로 건강한 삶

박지숙 소장 한·양방 의료센터 salm 마인드힐링연구소

# 몸·마음의 사령탑 뇌, 오감으로 활성화시켜라

**# 두뇌는 인간 사고 · 행동의 핵심 소프트웨어**

뇌는 우리 몸과 마음의 사령탑으로 무한한 능력을 가진 불가사의한 존재다. 뇌를 알면 인간을 알 수 있다 한다. 뇌가 하는 일은 참으로 많다. 우선 모든 근육을 강화시키며, 교감신경도 통제하고, 통증 또한 뇌에서 조절해 통제한다.

예를 들어 뇌기능이 떨어지면 가장 먼저 통증에 민감해지며 통증이 더 크게 느껴진다. 교감신경은 주로 흥분하거나 긴장할 때 주로 작동한다. 뇌신경이 약해지면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흥분해 문제를 일으킨다. 맥박이 빨라지고, 혈압이 오르며, 입이 마르고, 눈이 충혈 되며, 손발이 차면서 땀이 나고, 피부가 거칠어지고, 소변을 자주 본다.

감정조절 또한 뇌에서 이루어지고 균형감각, 정보의 전달 등 뇌의 역할은 무궁무진하다. 우리 몸과 마음, 사고와 행동의 핵심 소프트웨어이자 사령탑이란 말은 과언이 아니다.

**# 두뇌의 감정조절 능력**

두뇌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가 바로 우리의 기분 무드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일 것이다. 인간의 감정 상태는 인간의 행 · 불행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다. 즉 똑같은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어떤 감정 상태로 받아들이냐에 따라 스트레스를 받아 뇌기능이 떨어져, 육체적 심리적 고통을 겪으면서 결국에 불행해질 수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로 행복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뇌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감정조절 능력, 인간의 감정이란 것은 결국 우리 '마음가짐' '한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 차이일 수도 있다.

현대의학에서는 마음을 '뇌기능'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심리학적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음은 의식과 무의식 행동을 결정하는 본질적인 요소이다. 그러므로 심리학적 마음, 두뇌가 몸을 조절하는 능력이 있는 또 다른 마음과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룰 때 우리 인간은 인간답게 살 수 있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 두뇌를 활성화하는 방법**

인간의 두뇌는 크게 10개의 부분으로 나뉘는데 그 중 10%만 활동하고 나머지 90%는 잠자고 있다. 우리가 인지하는 모든 활동은 뇌의 10%에서 나오는 결과다.

많은 스트레스와 잘못된 식습관들은 우리의 행불행을 결정짓는 감정을 조절하는 전두연합영역의 기능을 떨어뜨린다. 전두엽이 약해지면 괜히 불안해지거나 초조, 산만, 주의력 결핍, 통증 과다 느낌, 우울증, 화병 증세 등 욕을 하게 되고 인내심이 없어지며 화를 잘 내게 된다. 또한 전두엽이 덜 발달한 아이의 경우 쉽게 짜증을 내고 지루해 하며 잘 참지 못하고 산만하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는 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오감을 활용한 기본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오감을 활용한 뇌 활성화 방법**

① 시각-컬러테라피(Color Therapy), 시원하고 평온한 사진이나 이미지 등을 통한 자극.

② 청각-뮤직테라피(Music Therapy), 긍정적인 언어나 기도 만트라 등.

긍정적인 언어를 들으면 뇌는 즉시 활성화되고, 감동하지 않으면 뇌는 노화된다.

③ 후각-아로마테라피(Aroma Therapy) 등.

④ 미각-음식(식이요법)과 비타민 요법 등.

⑤ 촉각-유산소 운동이나 호흡법을 통한 명상 등.

유산소 운동은 두뇌의 혈류량을 증가시키는데 뇌의 혈류량은 두뇌의 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늘어난 혈류량은 두뇌를 깨우는 역할을 한다. 명상을 통한 호흡은 횡격막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면서 뇌간(대뇌와 척수를 이어주는 뇌의 가장 아랫부분에 있는 구조물)의 기능을 향상시킨다. (02)576 -7575 (계속)


## 특수 기술로 개발 조성한 부처님



개금불



비취옥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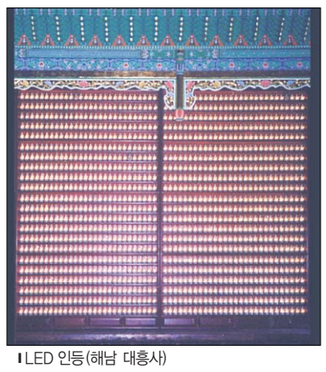
백옥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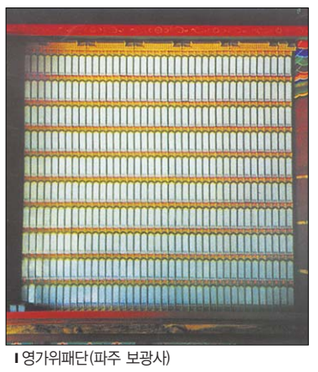
대나무숯불

규격 : 소불 - 5치. 7치. 9치. 1자(108-1,000불)
대불 - 2자. 2자반. 3자. 3자반(법당 內)

## LED인등 및 영가 위패단 디자인 등록 제 30-0477206호 실용신안등록 제 20-0439285호



LED 인등(해남 대흥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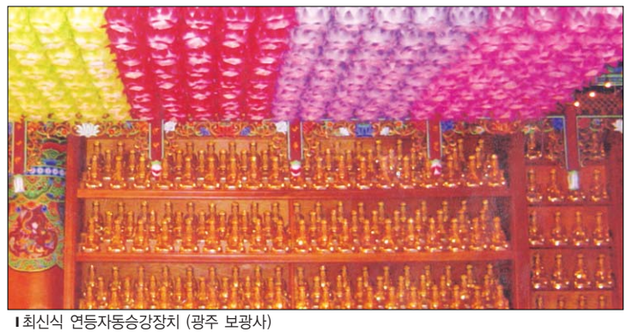


영가위패단(파주 보광사)

- 안전하고 편리하며 누전이 없습니다.
- 전기료가 기존인등의 1/10 미만입니다.
- 화려하고 장엄합니다.
-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설치해 드립니다.



## 최신식 전선 자동 연등 승강장치



최신식 연등자동승강장치 (광주 보광사)



LED 전구 (국내 공장 자체 제작)

- LED전구는 국산품만 사용합니다
- 전선은 KS 케이블을 사용하며 안전합니다
- 전문기술진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 버튼 하나로 上 · 下 조절하며 명찰과 연등 달 때 편리합니다

**정우불교예술원(구. 정심원) 취급품목**

각종불상. 특수불. 옥불. 대나무숯불. 영가위패단. LED인등.
LED전구(연등용). 옥촛대. 연등전선승강장치

**正宇불교예술원 (구. 정심원) www.jeongwoo.info**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식사동 1474 전화 031)969-6310 / 직통 011-724-0455 대표 **이정옥(진성)** 합장

※ 전화주시면 전국 어디든지 방문하여 상담하여 드립니다.

# 寫經은 또다른 '법신 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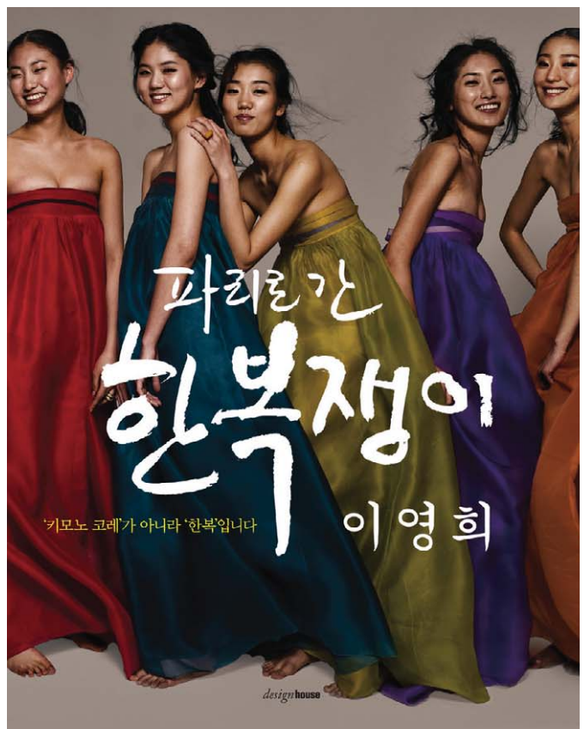
## 외길 김경호 선생 '사경' 특별展

1mm의 공간에 우주를 담는다.

지식이나 지혜로 헤아릴 수 없는 화엄의 세계를 탐구해온 외길 김경호 선생(한국사경연구회 회장 · 원광대학교 서예학과 강사)은 '일미리중함시방(一米里中含十方)' 사경 특별展을 11월 17일~12월 2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 불교중앙박물관에서 개최한다.

1mm의 공간에 금색 실선 물결이 일렁인다. 직경 4cm가 안 돼는 공간에 2만5000개의 금선으로 형상화 된 무궁화 한 송이가 피어오른다. 억천만겁의 시간과 삼라만상을 응축하려는 듯 사경행자 김경호 선생의 호흡은 깊고 잔잔하다.

김경호 선생의 12번째 전통 사경 개인전인 이번 전시에서는 과거 다양한 종류의 사경 유물도 함께 전시된다. 국보 제196호 신라 백지묵서 <대방광불화엄경> 영인본 등을 관람할수 있는 기회다. 가연숙 기자




## 한 권으로 만나는 30년 패션 도전기

'바람의 옷' 디자이너 이영희!

한복 치마저고리에서 저고리를 벗긴 파격적인 발상으로 세계인의 시선을 사로잡은 그녀의 패션 여정 30년을 회고한다. 그녀가 기억하는 '내 인생의 옷 이야기' <파리로 간 한복쟁이>에 감각의 주파수를 맞춰보자.

NO! 키모노코레(한국기모노)! YES! 한복을 외친 그는 프랑스 파리 프레타 포르테(prête porter)에서 1993년 한국 디자이너 최초로 참가해 한복의 멋과 아름다움을 선보였다. 브랜드 디자이너로 거듭나 뉴욕 맨하탄에 '이영희 한국박물관'을 연 것은 순전히 오기의 인과다.

이영희는 그의 색을 회색이라고 부른다. 회색은 만물의 기원이자 궁극의 색이며 부처님의 설리와 같은 색이라고 여긴다. 세상의 모든 색과 화합을 이루며 부처님의 마음과도 같은 회색에는 아버지와의 유년 시절 대구 팔공산 동화사의 추억이 어렸다. 인간 이영희의 패션 도전기에 얽힌 성공 신화와 그의 자존심을 여실히 드러낸다. 디자인하우스 펴냄 | 1만2800원 가연숙 기자

## '피고지고 피고지고'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서 11월 28일까지

# 연극으로 그려낸 꿈꾸는 인생 막장

"작가 이만희 선생의 말마따나 펑펑거리며 살았든 죽을 쑤며 살았든 삶은 똑같은 것일 수밖에 없어. 살아가노라면 별 다른 도리가 없는 경우가 있지. 공수래 공수거(空手來 空手去)라고 하잖아. 삶의 단면, 그 안의 진솔함을 공감할 수 있다면… 연출가의 소망일 테지."

한국의 사무엘 베케트(Samuel beckett)로 인정받는 연출가 강영걸 · 극작가 이만희가 연극 '피고지고 피고지고'로 재회한다. 보이지 않는 보물에 대한 미련한 기다림은 욕망이 있는 한 결코 버릴 수 없는 삶의 이유가 되어 또 하나의 '고도'를 그려낸다.

서울 극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11월 14~28일 무대 위에 올려지는 '피고지고 피고지고'는 1993년 초연 이후 국립극장 50년사를 대표해 찾아온 여섯 번째 무대로 2008년 우수레퍼토리 선정 작이다. 희곡 · 연출 · 배우의 연륜이 내뿜는 노련미가 빚어낼 한 편의 연극이, 무루 익은 가을 진정한 삶의 음미를 선물한다.

"백일홍이 피었다 진다한들 어찌 세월을 탓할 쏘며 이 몸 죽어 무소귀(無所歸)면 산천 또한 더불어 황천행 아니던가. 인간이 신선의 경지에 달하면 어찌 재물이 재물일쏜가, 어찌 권력이 권력일쏜가, 죄는 욕망을 좇음이요, 욕망은 무지를 좇음이니 욕망의 개꿈 속에 머물다 간 세월들이 못내 아쉽도다."



나이 칠십을 바라보며 천진난만한 욕망에 부푼 세 명의 노인. 도박, 사기, 절도, 밀수 등으로 점철된 일상을 살아가던 왕오(이문수), 천축(김재건), 국전(오영수)은 생의 화려한 마지막 베팅을 절터 돈황사 도굴에 건다. 프로젝트명은 '신왕오천축국전(新往五天竺國傳). 돈황산 아래 굴을 파 오로지 보물을 발견하겠다는 일념뿐이다. 하루하루 한 움큼 흙을 파들어 가며 현재의 나이테를 그려가던 이들은 인생 막장 참 삶의 의미를 관조한다.

연극 '피고지고 피고지고'는 자가당착적인 삶의 모순을 거짓 없이 고백한다. 온 우주의 아픔을 혼자 이고 있는 양 난리법석 치는 건방진 인간의 군상임과 동시에 가파른 인생 골목길 세 노인이 펼치는 마지막 발버둥은 절실한 희망이다. 피고 지는 삶은 마치 인생의 피고 짐이 욕망의 피고 짐을 의미하는 듯하다. 인생 막장에 피어난 일확천금의 환상이 만들어낸 꽃 몽우리는 한 겨울에 피어난 개나리처럼 엉뚱하지만 그 향기는 천진난만하다.

2001년 공연 이후 7년 만에 관객과의 만남이다. 변한 것이 있다면 실제 배우 나이가 극중 인물들과 연배가 됐다는 것. 넘치는 에너지와 거칠음은 정리되고 마치 낡은 수채화를 감상하듯 애잔함을 나누자는 것이 연출 의도다. 무대 위에서 피고 지는 욕망의 희로애락 속에서 관객은 제각기 색다른 재미와 슬픔을 공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출가 강영걸 · 극작가 이만희는 한국 연극의 명콤비다. 이만희 12개 작품 가운데 5개 작품에서 호흡을 맞춰온 연출자는 "연극을 통해 휴머니즘을 구현하고 싶다"고 말한다. 그가 말하는 휴머니즘은 '배려'다. 왕오, 천축, 국전이 쉼 없이 충돌하는 것도 배려하는 이유다. 욕망의 개꿈을 정리하고자 한 이들이 펼치는 아름다운 열정의 현장으로 초대한다. 티켓 2-5만원, (02)2280-4115

가연숙 기자 omflower@buddhapia.com

# 불교미술이 전하는 '無言의 설법'

## 동국불교미술인회 회원展

불교가 현대예술에 말을 건넨다.

동국불교미술인회(회장 송근영)는 11월 20~25일 서울시립미술관 경희궁 분관에서 제8회 '전통미술의 현대인식' 회원展을 연다. 불화, 조각, 공예, 사진 등 폭넓은 장르에서 활동하는 회원 30여 명 가운데 26명의 작가가 참여 해 100여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전통에서 정통성을 획득하고 동시대적인 흐름을 이해해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모색하는 자리다.

무인 송근영 선생의 작품 '번뇌를 여의고'는 "과연 번뇌를 여의었을 때 어떠할까"라는 화두로 완성된 수작이다. '한 생각 잊으니 밝음 나타나 아미타불 다른 곳에 있지 않나니 온 몸이 앉거나 눕거나 바로 연화국이니 어느 곳 극락 아닌데 어디 있으리. 마음에 이르러도 부디 잊지 말라. 생각이 다해 무념에 이르면 네 몸에서 부처의 빛 절로 일리라'는 나옹 선사의 말씀을 불교조각으로 실현하고자 했다.

국내에 자생하는 다릅나무, 티크, 피나무, 대추나무를 사용해 총 125cm로 조각된 작품 '번뇌를 연의고'는 작가의 평소 육바라밀 실천 수행의 결실이다. 연화대의 부처님과 자연은 "모든 번뇌와 망상을 녹여냈을 때 수미산 정에 아름다운 법계가 열려 진여의 광명이 타오르는 불꽃을 형상화 했다"는 것이 작가의 의도다. (02)723-0455 가연숙 기자

# 우주의 진리 '불화' 특별展

## 목아박물관서 11월 30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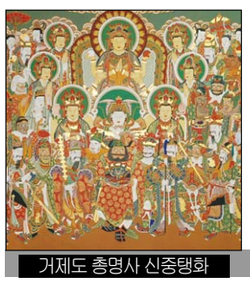
경기도 여주 목아박물관(관장 박찬수)은 소장 불화를 중심으로 '우주의 진리-불화' 특별展을 11월 30일까지 전시하고 다채로운 체험 행사를 갖는다.

조선시대~근 · 현대 불화와 밑그림인 초본 약 160여 점을 통해 옛 장인의 숨결을 느끼고 불교미술의 역사와 이해를 돕고자 하는 취지다. 시대적 양식 및 재료의 변천과정을 한눈에 살피는 기회가 될 이번 특별전에는 11월 22일 경기도 여주지역 장애인 100명을 초청해 중요무형문화재 제108호 목조각장 박찬수씨가 불상 조각을 시현하고, 28일에는 목조각장 이수자가 나무불화 채색을 시연한다. (031) 885-9952

가연숙 기자

구독신청 · 기사제보 | 02-2004-8200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6-219-7180 / 011-743-5167



우담바라 [신묘장구 대다라니 만독]
정 진 기 도

귀의 삼보 하옵고,
경주 남산 천선사 에서는 매월 둘째, 네째 주 토요일 철야법회를 2008년 5월 24일부터 2011년 2월 14일까지 천일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천선사 신도님들께서는 많은 기도정진 하시어 부처님의 자비광명과 불보살님에 가피력으로 각 가정마다 공덕을 길이길이 쌓으시고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선종 총무원
천 선 사 주지 정관 합장
전화 054)748-0462 / 휴대폰 016-509-0462
FAX 054)771-6606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1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30,000원 → 27,5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5,000원 → 50,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 웃음보살 불등거사 〈24〉

구성 : 김흥인




## 소 떼를 죽여버린 사람 [백유경(百喩經)]



어떤 사람이 250마리의 소를 항상 풀 있는 곳으로 몰고 가 때를 맞춰 먹였다. 어느 날 호랑이가 와서 소 한 마리를 잡아먹었다. 그는 '이미 한 마리를 잃었으니 이제 완전한 것이 못 된다. 이 소를 어디다 쓰겠는가' 라고 생각했다. 그는 곧 깊은 구덩이로 소를 몰고 가서 모두 구덩이에 넣어 죽여 버렸다. 어리석은 범부들도 이와 같다. 부처님의 계율을 받들어 가지다가 혹 한 가지 계율을 범하면 부끄러워하거나 참회하지 않고 "나는 계율을 완전히 갖추지 못하게 됐다"고 여긴다. 그것은 마치 저 어리석은 사람이 소 떼를 모두 죽여 한 마리도 남기지 않는 것과 같다.

옛 판화의 세계

## 호수의 신을 제도하다
## 공정도망(鄭亭度蟒)



고판화박물관소장 〈석씨원류(釋氏源流)〉중 공정도망 편 불암사판 1679년간행, 반곽(半郭) 27.2×18.0cm

<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이 삽화는 고승 안세고가 공정호에서 구렁이 모습으로 나타난 호수의 신을 제도하는 장면이 사실적으로 묘사돼 있다. 안세고(安世高)는 이름 청(淸), 자는 세고로 이란 북동부에 있던 안식국(安息國:파르티아)의 왕자였으나 숙부에게 왕위를 양보하고 출가해 아비담(阿毘曇: 經律論 중 논부의 총칭) 연구와 선정(禪定)에 힘썼다고 하며, 후한 시대인 148년경 중국 뤄양(洛陽)에 정착한 후 20여 년간 30여 부(部)의 경전을 한역(漢譯)해, 우리에게는 중국 초기의 불전(佛典) 번역자로 알려져 있다. 본문을 살펴보면 영제 말년 관락지방이 어지러워지자 뱃길을 통해 여산에 당도한 후 예전에 함께 공부한 동료를 제도하기 위해 공정호에 이르렀다. 호수를 지키는 신은 안세고에게 "나는 지난 세상에 그대와 함께 출가해 도를 배웠다. 나는 보시하기를 좋아하고 성질이 노여워하는 일이 많았다. 그리하여 지금은 이곳의 묘신이 돼 1000리를 관할하고 있다. 그러나 과보로 받은 형체가 지극히 추악하다. 곧 죽게 돼 반드시 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나에게 몇 필의 비단과 아울러 온갖 보물이 있으니 이것으로 나를 대신해 탑을 조성하고 절을 지어 나를 좋은 곳에 태어나게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발원하자 안세고가 범어 소리를 내어 염불을 올리니 구렁이는 슬픈 눈물을 비같이 흘렸다. 호수의 신이 목숨이 다해 죽은 후 한 소년이 배에 올라 무릎을 꿇고 말했다. "추악한 몸에서 벗어나 좋은 곳에 태어나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산의 서쪽 못에서 죽은 구렁이를 발견했는데 길이가 몇 리가 됐다. 안세고는 그 후 예장(豫章) 땅에 이르러 대안사(大安寺)를 세웠다. 이란으로부터 중국 여산에 이르기까지 쉼 없이 펼쳐지는 안세고 조사의 전법활동이 눈앞에 생생하다. 이러한 조사스님들의 전법으로 오늘날 세계 속에 불법이 꽃 피우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선학 스님(명주사고판회박물관장)

## 허허당의 세상만사



■ 13월의 춤

달이
개굴 하구나.
개굴한 달은
개구리 우는 밤에
붉게 휘어져
개골개골 뜬다더라.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양 화 사

양화사 건강원 — 卍 자원봉사의 집 卍 — 서금요법수지침술

▷ 전국불우 이웃 및 소년 소녀가장 「무료봉사」 건강찾아주기 "자원봉사의 집" ◁

인간 생명의 존중과 복지사회구현을 실현하여 건강백세의 아름다운 동반자가 되기위한 전국불우이웃 "무료봉사" 건강찾아 드리기 "자원봉사의 집 "양화사 입니다.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근본이념으로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전국에 계시는 몸이 불편하신 불우이웃(생활수급자 · 생활보호대상자 · 소년소녀가장)분들에 대하여 건강을 찾아서 사회의 일원이 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는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양화사 "자원봉사의 집"입니다.

※ 전국에 거주 하시고 계시는 몸이 불편하신 불우 이웃분들에 대하여 관할지역 읍 · 면 · 동사무소의 "확인서"를 지참하시고 방문하여 주시면 최선의 노력으로 "무료봉사"하여 건강을 찾아 드리는 일에 성심을 다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성인성,부인성 질환)(아토피,피부질환)(신경통,관절질환)(디스크,혈압질환)(불치,난치성질환)(희귀성질환) 등에 대하여 "서금요법" "수지대체요법" "자연치유요법" 등으로 "무료건강상담"하여 드립니다.
(서금요법, 수지대체요법, 자연치유요법, 체질개선)(수지기능식품, 체질개선 자연식품, 건강식품)등으로 "무료봉사"하여 건강을 찾으시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서금요법 · 수지대체요법 · 수지침 · 무료출장교육하여 드립니다. ●

※ 전국불교종단, 사찰, 불교대학, 불교단체등에 "무료출장교육"하여 드립니다.
※ 서금요법,수지침은 건강관리와 "수지침자원봉사" 고령화시대에 가장효과적인 대체의학이며 "자격증"을 취득하시게 되면 "자원봉사"에 참여 하실수 있습니다.
※ 서금요법,수지대체요법,수지침,전국각종단체 등 "무료출장교육"신청상담을 받고있습니다.

서금요법 · 고려수지침술요법학회 남수원지회. 분회 (지회장 : 한상기 / 분회장 : 천광)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67-4번지 201호

※ 문의 및 상담전화 : 031)251-2213,254-2213 / 휴대폰 010-3013-2213 / 팩스 031)258-2213 ※ 불자님들의 정성이 어둡고 그늘지고 소외된 이웃에 밝은 희망의 등불이 됩니다.
※ 후원계좌 : 농 협 207186-51-050820 / 국민은행 877001-01-362102 / 제일은행 604-20-378236 / 우체국 104323-01-001733(예금주 : 한국근본불교조계종양화사)
※ 불자님들의 후원금과 불사금 및 수익금 전액에 대하여서는 전국불우이웃 "무료봉사" 건강찾아주기 "자원봉사의 집"에서 포교 및 복지기금으로 사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한국 근본불교조계종 양화사 (자원봉사의 집) 주지 천광 합장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자비하심의
뜻을 받들어
"건강"의 기쁨과
"삶"의 행복을
함께 나누는 집!

양 화 사
卍 자원봉사의 집 卍

# 불자생활정보 | 전면광고 | 21

▷ 문의 : TEL 02)2004-8219,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parkwonbum@yahoo.co.kr
▷ 가격 : 1Box(4.4×4.4) 4만원, 1Box( 9×4.4) 8만원
▷ 계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주)현대불교신문사
▷ 원고마감 : 매주 월~수요일(입금을 하셔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정부지원금 서류대행**
**전통사찰 교부금**
**문화재시설 지원금**
**템플스테이, 화재방지**
**등록:전통사찰 및 문화재**
02)3411-3773 금강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드립니다

**약수암쉼터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손비법**
신비의 약손을 가진 석정수 스님은
질병으로 고생하는 불자님의 건강은 물론
전생업장소멸,사업성취등을 상담해드립니다
※ 노숙자,장애자들에게 대중공양(주먹밥)을 하고있습니다 / 각종빙의나 질병을 상담을 통해 치유할수 있는 수행도량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54 선일빌딩701호 약수암쉼터
010-7232-0384, 011-756-5997

**전통사찰 등록**
**문 화 재 등록**
**법 인 등록**
"비법인 설립"
(서 류 대 행)
성 산 개 발
011-9476-9001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전통불교 문화예술대학**
문화재9호 영산작법무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 문의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 (부산)
금정사 대명 합장

**역 학 개 인 지 도**
한문과 용신격국 몰라도 물상으로 철학 배우면 바로 상담할 수 있음
역학을 물상으로 실제 감정 위주로 배워 영가 빼내어 천도재 지낼 수 있음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051)333-3258
011-591-5277

**각종 불공 범음 · 범패전문**
점안식, 49재, 천도재, 구병시식
영산재, 수륙재, 각시식, 불교의식,
사물, 바라나비춤, 명리활법
실전 위주 교육. 학인행자모집
031)953-3328
011-9923-3329
대광명사 (동양불교대학)

**역학 비밀 출장 개인지도**
초보자도 30일이면
사주를 통달할 수 있는
옛스님들의 비법을
시원히 전수해 드림
(비구, 비구니, 일반인)
010-5668-5775

**건강 · 역학비법전수**
- 2박 3일 체험 코스 -
심신 평생 무병 건강법
구궁 당주역 간편 비법
건강도원 신불정사 무구 합장
☎052)264-8183
011-855-8180

**비구니 스님 되시렵니까?**
45세 이하 결심 된 여성분
전화 상담하십시오
070-7769-8484
011-354-8484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입제 · 회향),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구병시식,
각종불공(바라, 승무춤)
010-2200-8176

**卍불교전통의식卍**
부처님 점안식 · 이운식,
불공. 49재(입제 · 회향)
천도재,산신기도,
방생기도, 작법,바라
*성심,성의껏 모시겠습니다.
- 원효 -
010-4007-0178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최면요법(수강생모집)**
(빙의, 퇴마, 악령퇴치,
영적신병, 전생...)
1:1 책임지도, 종교인
특별기법전수
인터넷 네이버:울산 최면 클릭
(울산)
010-9932-7656

**보 살 선 방**
• 1인1실 : 방1, 주방, 거실, 욕실
/ 방1, 주방, 욕실
• 부부실 : 방2, 주방, 거실, 욕실
절에서 수양하며 기도하고
불교공부하면서 노년을 보내실분
(일부시주금 내시고 종신제)
불광사 · 불광대학
053)656-6766

**본각사 일두 스님의 수맥파 상담**
수맥파를 알면
건강을 찾을겁니다
02)391-8540
010-6395-1644
한국 생활불교조계종 수맥협회 자문위원
본각사 일두 합장

차량보시 원합니다
저는 서울 도심에서 포교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미승 입니다
9,12,15 인승 승합차를 저렴한
가격이나 무상보시로
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011-9927-6023
02)2699-6023

영어 배우면서
주지소임 사실분
필리핀 비구니스님 조계종
016-428-6665

氣
★ 그대는 이미 천지를 얻었다 ★
꿈을 찾는 이에게 꿈을....
평생교육불교강좌. 참선염불지도
명당 · 음양택 · 생활 풍수 강좌
개인 단체 강좌 출강 · 우울증세
흥망성쇠 · 시기적중 · 평생궁합
당선 · 시험합격 · 영험도량
공양주 구함. 행자 출가자 선발
안성백마사 031)674-7188
백마사불교대학 017-203-9400

대한불교도서관
설립준비 중입니다
뜻있는 분들의 책
불사 받습니다
헌책도 대 환영합니다
대한불교 도서관 추진위원회
010-7625-4455

신심있는 종무소
보살님 구합니다
(45세미만)
숙식가능
▷흥국선원
016-9224-2727
010-4939-9192

가족처럼 함께 수행하실
비구니스님과
부전 스님 모십니다
(조계종 사찰)
▷경기도 광주시 퇴촌
011-742-889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성남
011-9854-9810

부 전 스 님
모십니다
(대구 개원사)
053)981-0664

행자스님,
공양주,
사무장 모십니다
▷경기도 평택
031)682-3169

부전기도자리 원함
청정비구승, 50대초반으로
염불 목소리 굵음.
착실하고 조용한 성품
술, 담배 못함
도시근교 사찰 원함
(한달후 천일기도 계약환영)
010-2606-1299

부전소임을
원합니다
스님이 필요한 사찰은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9204-0040

비구니 사찰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 경산시 하양읍
금락1리 향림사
053)854-217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안양
011-241-0408

인연있는
사찰을 찾습니다
비구스님(53세)
법납 20년, 철학경력16년
010-4478-9299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대구 신암동 독불사>
053)952-4720
010-5555-472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부부도 가능)
▷경기 부천
011-9707-349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가평군
011-9723-0967

**사회복지법인 성불복지회 아동복지시설 진여원**
● 공양주보살님 구함
● 조건 : 여, 55세이하, 고졸
● 급여 : 보건복지부 기준 (4대보험 적용, 건강, 국민,고용,산재)
월 평균 134~140만원
● 숙식제공
043)851-6013 / 043)856-1895 / 011-9244-33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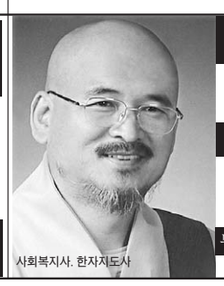
생활역학강의 : 전문교육처 초급 중급 연구(격국)
● 초급 3개월 중급 3개월 연구 3개월 :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학문
● 특강 사주통변실전반 : 수시접수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 / 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 작명학 연구반 : 11월초 개강
본명사주의 격국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억부법 /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형이정의 수리법 자원보충법 / 음령법 호성법의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체질법 등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 합니다. http://kr.blog.yahoo.com/han103051
단원역리학회 지현역리학연구원 동대문구 전화 02)2243-9598, 018-470-6314

**고급 만다라 액자 특별 원가 분양 안내**
분양가 5만원 크기(가로×세로 48cm 두께 5cm 이중액자)
만다라의 효험-------- 대표적인 불교의 상징이며, 우주공간의 축소된 그림이다. 각 가정에 걸어두면 뒤숭숭한 꿈자리가 없어지고 수맥이 차단된다. 점포에 걸어두면 가계영업이 활성화된다. 만능 부적과 같다. 걸어놓고 기도 가능
※ 전국영업할분 초빙 법사나 일반신도 차량소지자 환영
● 조 성 :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초지리 새절 봉선사
● 공급처 : 02)470-7329 016-261-2068

**지리산 천일기도 회향 죽비**
소승 천일기도중 지리산 깊은숲에서 채취한 대나무로
산중토굴에서 한자루씩 깎았던 108 죽비를 이제 회향하려 합니다
● 마음의 채찍으로 평생 소장하실 인연있는 불자님께 올립니다.
뜻있는 불자님은소승의 원력불사에 정재의 밝은빛 되어 주시길 두손모음니다.
● 108개 한정품으로-대죽비 (3종) 30만원 / 중죽비 (2종) 15만원 / 소죽비(1종) 5만원
지리산 백운동천 약수암 홍일 합장
문의전화 055)973-0552 / 010-3769-0552

**힘을 세게하는 초능력요법 탄생**
● 세계 최고의 염력과 천기를 운용. 생명에너지 발생(31년간 연구)
● 정신병, 관절염, 당뇨, 위장병, 오십견, 신경통, 두통,
탈모증, 신병 (아주간단히치유 무료체험)
● 모든 운동선수(골프,야구,역도,축구..... ) 기록을 갱신하고 싶은분 상담
● 병원치료로 효과가 없는분 무료상담
광명사 氣연구소 054)974-4788/010-9554-5149

**대방등 대집경 특별강좌**
● 강좌내용 : 28숙 ● 대상 : 승려에 한합니다
● 신병(신을 받아야 된다는)이 28숙 기도로 해결됩니다
● 위치 : 부천 북부역 소명 4거리 3층
☎ 032)664-0048 / 011-741-0867


사회복지사. 한자지도사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
문의 051) 867-8438
진각 심리상담 아카데미
"麟"막힐 을, 답답할 울, 성낼 울, 걱정할 울, 원망할 울,
우울이란 마음이며, 마음을 다스리는 행복한 마음을,
상담이나 회면을 통해서 찾아봅니다.
부산시청 뒤 커제리청과시장에서 양정동 150m 삼화탕 앞 송광정사

**행자 (예비스님) 모십니다**
● 성별 : 남자 ● 학력 : 고졸이상
● 연령 : 48세 이하
● 1인1실 및 개성존중의 민주적 수행
● 산중 감포분원 및 대구큰절 중 택일
● 수행, 공부의 모든지원,
최적의 교육 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 행자문의 : 010-2488-8228
◇ 대구 도심 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
● 최첨단 시설, 편리한 교통,
한발 앞선 장례문화 시설!!
● 언제나 염불, 기도소리 들리는 법당안에
모셔져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설 · 추석 · 제사천도 · 기일에
천도 축원해 드립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053)474-8228 www.TVbuddha.co.kr

**유 명 표 구 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 종 부 합장
문의 ☎ 02)374-9886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 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통장입금하시고 상담하세요
명리학 [사주첩경통달 이석영저자]
명리학 질문 10초내 답변
(만세력 책없이 5초 이내에 두뇌로 일주 통달, 양력)

격국 · 조후 · 통관 · 용신 · 신약 · 신강 신경쓰지 마세요.
핵심은 년 · 월 · 일 · 시 와 지장간 전체의 대흐름 판독입니다.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가출,
부부간의 갈등, 혼사지연, 부모와 자식간의 불화,
학업성적부진 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리고
퇴마와 천도방법을 상담으로 알려드립니다

궁합보실분 10곳을 다녀보세요.
8곳은 ○표 2곳은 X라면 ○표를 믿겠죠.
X표는 내시경으로 본듯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찍어냅니다. 또 백호대살, 형살,
원진살 등흉살이 있다고 해도 고민하지 마세요.
사주첩경 6권을 보면
오히려 음덕이 있음을 많이 봅니다.

011-498-5067/02)826-5067
031)774-5067 (토요일 10시~일요일 4시까지)
〔통화관계로 방문 사절〕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제대로 만든 사주프로그램
**명 리 보 감**
**命 理 寶 鑑**
정확한 용신
정확한 만세력
사주, 육효, 대정수, 자미두수
양택풍수, 궁합, 작명, 택일
고객관리, 해외출생자사주
제품구성 :
정품CD, USB락, 사용설명서, 명리보감책자
www.goodcycle.com
Tel. 02-3472-5933
H.P. 010-9273-5850

706호 | **불자 정보**
TEL 02) 2004-8219(直)
732-1522
FAX 02) 737-0696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사상구 모라동
● 스님이 외국불사관계로
운영하실 원력스님을 찾습니다
● 4층 중 4층
● 석가모니불,관음지장,삼존불과
후불 및 신중탱화 봉안
관음원불,132불, 법당 외
방2개,주방1,화장실 45평
● 보증금 3000만원, 월10만원
시설비 2천만원
● 인연있는 스님을 기다립니다
010-2304-2221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시 수성구 만촌1동 망우공원내
● 3층 건물중 1층 약 128평(주차장 넓음)
● 대지 400평, 텃밭 50평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 법당(48평)방5,거실,욕실,주방및 공양간
대형에어컨,엠프시설 완비 비품일체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월 85만원
시설비 2천만원(절충가)
비품일체 모든시설 갖춰져 있음
011-817-5921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강릉
● 부지 500평 임법당 30평
● 요사 40평, 산신각
● 좌청룡 우백호 뚜렷한
포란형(남향)
● 가액:2억5천만원
(융자 3500만원 포함)
011-452-8374

**포교당(급)안내**
● 부천역에서 도보 약 15분
● 특징 : 3층건물중
2층 80평
시설A급 신도 많음
● 몸만오시면 즉시법회 가능
● 금액 : 상담후 절충
사정상 급매
010-8264-7000

**포교원 안내**
● 부산 북구 최고의 위치
지하철 바로 앞,대로변
● 평수:70평 6층건물중 6층
옥상이용 주차편리
● 보증금:6000만원(조정가능)
월세(조정가능)
● 불교대학 운영중
011-840-9890

**서울 도심 포교원**
● 위치:서울역 도보 10분거리
● 4층건물에 3층법당, 상담실
4층 요사방, 부엌
● 보증금 시설비 2300만원
월세 50만원
● 법당시설 완비
011-9105-0024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무안면 운정리 노루실
● 대지 450평, 법당 25평,
요사채 25평
● 가액 : 9500만원
055)356-5322
051)254-301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내
시외버스터미널에서 15분거리
● 대지 33평, 건물 2동 도로인접
● 전망좋음, 집기일체 야도
● 가액 : 7천만원
055)744-4879
010-8223-4879

#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기본 규격 50.000원
규격 5× 7cm 70.000원
규격 5×10cm 100.000원
● 계좌번호 : 국민은행 222-25-0005-381
농협 053-01-269088 (주)현대불교신문사
● TEL 02) 2004-8219 / 02)732-1522 (直)
FAX 02) 737-0696
● 원고접수기간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e-mail : parkwonbum@yahoo.co.kr

##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양평
● 법당 : 20평
● 요사 : 60평
● 부지 : 330평
● 가액 : 12억

● 위치 : 부산
● 법당 : 22평
● 요사 : 15평
● 부지 : 2000평
● 가액 : 4억5천

● 위치 : 서울
● 법당 : 28평 ● 요사 : 38평
● 부지 : 167평
● 가액 : 10억
● 도심속 산끼고 조용한 주택지로도 최고임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 사찰 및 토굴안내

● 부산시내 천년고찰 (약 800년)
● 대지 약 2700평
● 법당(목조)35평, 산신각(목조)10평
● 대종각(목조),요사채,와가 약 40평
● 6m 도접,주차장 500평
● 보물일부 소장, 남향
● 가액 : 15억

● 위치 : 부산 기장(바닷가 5분거리)
● 대지 총평수 550평
● 법당 25평, 요사채 30평
● 60년 역사(기도도량 최고)
● 주변 아파트 대단지 5천세대 사찰 뒤 산세수려
● 양도가 : 7억원

부산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
051)863-6622
※부산 시내 및 암자토굴 소액 7천~100억까지 다량확보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소재
● 부지 : 1500평. 종교용지
● 법당 : 50평(삼포,칠포,단청)
● 요사 : 70평(닷집)
● 기타 : 산신각, 종각. 연못, 석등
● 가액 : 15억
● 특징 : 대작불사된 대가람임

토굴안내 2건
● 위치 : 경북 영천시 소재
● 부지 : 150평
● 건평 : 70평(임법당 ,방3)
● 가액 : 8천만원
● 위치 : 경북 청도읍 소재
● 부지 : 150평 건평 40평(임법당, 방2)
● 가액 : 3천 5백만원

좋은인연 됩시다
※ 전국 소재 사찰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동진불사 대구 010-9636-0455/서울 010-5828-0455

## 지리산 사찰 및 토굴안내

● 위치 : 경남 함양군 마천면 금대봉
● 부지 : 11,000평
● 대지 : 2,000평
● 건물 : 150평
● 계곡, 기암, 부지전체 소나무 지리산 천왕봉 조망, 정동향 도로 및 전기전화 완벽
● 양도가는 답사 후 결정

● 위치 : 전북 남원시 산내면 금대봉
● 부지 : 130,000평,대지 : 1,000평
● 논밭 : 3,000평
● 법당 및 요사채 : 50평
● 계곡, 기암, 부지전체 소나무, 지리산 천왕봉조망, 정남향 도로 및 전기전화 완벽
● 양도가는 답사 후 결정

011-9516-3326

## 포교당 안내

● 위치 : 김해시 부원동
● 평수 : 54평
● 거실, 방2칸, 공양간, 사무실大, 법당
● 아미타불, 소불(小佛) : 50분 후불탱화, 신중탱화
● 보증금 1500만원,월세30만원 시설비 2000만원(절충가능)
011-238-3990

## 포교원 안내

● 위치 : 울산시 남구 공업로터리 주변 울산대공원 등산로입구
● 6차선 도로변,2층건물중 2층전체
● 건물 25평 법당,종무실,공양실
● 가액:전세 500만원에 월 25만원 시설비: 400만원
055)365-0234
010-6528-1234

## 도심사찰안내

● 위치 : 울산
● 대지 : 318㎡
● 법당 176㎡(58평)
● 요사채 386㎡(128평)
● 가액 : 15억원
010-4752-8822

##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 도봉구 창동
● 2층 35평
● 시설 최고급, 즉시 법회 가능
보증금 1000만원, 월 70만원
시설비 3500만원
(답사후 절충가능)
010-9414-5601

## 사찰(급) 안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 대지 약 1000평
법당 28평(현대식 조립식 건물)
산신각,용왕각, 요사채(75평)
● 가액 : 급매. 싸게드립니다
비품일절 양도
(일부후불가능. 스님직)
010-2536-8774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주시 외동읍 구어리
국도 4차선에서 300m
● 대지 279평, 답 117평
하천 64평(등기필)
● 건물 : 법당(목조기와) 20평
단청완료
● 요사채 33평, 식당 20평
● 인수 하실분 연락바람
● 가액 : 4억 5천만원
011-878-4593
054)746-2080

## 지리산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산청 시천 중태리
● 대지 374평(실평수 약 600평)
● 법당30평,요사30평,산신각2.5평
● 차실, 텃밭 760평 총 2800평
● 뒷산 홍송, 절옆 폭포
● 가액 : 2억 6천만원(절충 가능)
전세 및 대출 일부 후불 가능
011-9393-4965

##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김제시
납골공원 내 있는 절
● 법당15평. 삼존불, 시설일체
몸만오시면 됩니다
● 전세 1500만원
● 법사님, 역학하시는 분 환영
063)543-5551
018-427-2256

## 사 찰 안 내

● 신비의 바다 보배의 진도
(전남 진도군 내) '살기좋은 진도'
● 대지 : 2,500평
● 법당, 산신각, 요사채
전기보일러, 산세수려함
● 가액 : 2억 7천만원
※꼭 사실분만 연락바랍니다
011-9928-0005
061)544-0484

##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 강북구
● 법당 1, 방 3개
● 몸만 오시면 즉시법회가능
시설일체완비
● 보증금 1000만원,월50만원
내사후 절충
02)902-4070

## 포교당(급)안내

공찰 주지 발령관계로 급매
● 위치 : 대구시 성당못역 10분거리
● 평수 : 2층건물중 2층(70평)
● 가액:1000만원 월60만원
시설비:답사후 절충
● 몸만 오시면 즉시법회 가능
주차시설완비
017-501-2438

## 임법당 안내

● 위치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갈월리
● 평수 : 대지 300평, 법당 25평
방3, 욕실, 주방
● 아미타 삼존불, 집기일체
● 시설비 없음. 조용한 기도처
● 전세금 : 2000만원
010-4662-1042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북부 2개의 신도시 부근
노송우거진 풍치수려한 절
● 부지 630평(실사용 1000평이상)
법당 20평 요사채2동(100평,30평)
창고 2동 시설좋음
● 시청에서 차로 5분거리,
전철 개통 예정.포교수행의 최적지
● 가액 : 시세절반 상담후 절충가
주변 주택가 평당 1000만원에서
500만원선)
010-5290-3709

## 암 자 안 내

● 위치 : 밀양시 얼음골 근교
● 평수 : 약 1만평
● 명산 계곡절경, 경관수려
● 가액 : 8억
010-4876-5535

## 사찰(터) 안내

● 위치 : 경북 청도군 매전면 지전리
배산과 전망이 뛰어남
● 평수 : 1706평(전,답)
토목 공사 완료
● 가액 : 평당 8만원(주인직접 매매)
011-1751-0357
011-889-9464

## 포교원 안내

● 위치 : 인천광역시
● 평수 : 85평
● 구조 : 법당, 공양간, 삼존불 방,욕실,큰방 등. 심야 보일러
● 모든시설 갖춰져 있음
● 주변환경 : 주차장, 공기청정
● 보증금 4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1-319-7791

##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천안시 쌍용1동 대로변
전철역 5분거리
● 평수 : 40평
● 상가 : 4층건물중 2층전체
● 구조 : 방3개 법당
시설완비 즉시법회
● 보증금 5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1500만원(절충가능)
010-2259-6787

## 임법당 안내

● 위치 : 경남 창녕군 국도변
● 부지 : 대지 150평
(실사용 평수 200평),
건물 2채,창고,욕실,화장실2개
● 마을 뒤 산자락 접함
주차 3대이상 가능
● 가액 : 6천만원(시설일체포함)
010-9545-9444

## 사찰(급) 안내

● 위치 : 보문동
● 대지 : 160평 법당45평
● 산신기도 토굴 40평
● 요사채130평, 해우소 별도3개
● 2층건물중 1,2층 모두사용
● 서울시내에서 개인사찰로 가장 큰 사찰입니다
● 전세가 : 5억(시설비 포함)
018-575-4002

##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신월동
토월시장 입구
● 평수 : 약 50평
● 방, 법당, 주방, 욕실
● 보증금 2000만원 월80만원
시설비 2000만원
055)274-1755
011-624-1755

## 토굴(암자)안내

● 위치 : 강원도 고성
● 법당 13평, 방 2개
● 면적 : 235평
● 철학, 오행배우신분 환영함
010-6357-5860

##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 3층건물중 3층 전체사용
● 법당 70평, 요사채 30평,
● 공양간 10평,휴식공간 30평
사무실 1, 방 6개
시설최상급
● 보증금 3천만원 월 30만원
전세만가능
시설비 상담후 절충
010-4199-0047

##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부천역 5분거리
대형재래시장입구
● 구조: 5층건물 2,3층 각30평
시설완벽,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60만원
시설비 최저,답사후 결정
010-7742-0152

## 포교당 안내

● 위치 : 울산 신정 시장 옆.
2층 45평
● 보증금 1,000만원, 월25만원
● 시설비 1,900만원(가격절충)
● 삼존불 그 외 / 몸만 오시면 됨
010-3167-5225

##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전
● 평수 : 25평
● 큰방2, 작은방1, 거실, 욕실, 주방
● 주차가능, 옥상사용 가능
● 산세수려, 큰대로변에서 50m
● 보증금 1500만원, 월 10만원
010-7158-7316
016-204-3563

## 포교원 안내

● 위치: 대구광역시 달서구
죽전동 4거리
(죽전지하철역 2분거리)
● 평수 : 약 42평(2층)
● 구조 : 법당 약 20평
(삼존불 모셔져있음)
● 방 2개, 주방 겸 거실,
단독 남 · 여 화장실
● 가액 : 보증금 5백만원에
월30만원(시설비 별도)
010-6835-7370

##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 서대문구
3호선 홍제역 도로변 3층
● 법당겸 주방 약 15평, 옥탑방 1
● 보증금 800만원 / 월 33만원
삼존불 후불탱화 등 시설비
700만원
● 법당 시설만 인수할 경우 500만원
● 법사 역학 , 무속인 보살님 가능
02)723-3577

##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천호동 15분거리
대도로변 50m 야산접
● 대웅전, 지장전
● 동굴산신각, 요사채 및
폐도로 2000평 접유
● 가액 : 10억원
010-9164-1253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서해안고속도로 발안 IC부근
● 대지 : 220평
● 건물 : 1층 요사채47평
2층 법당23평, 산신당 4평
심야전기, 차고15평
● 가액 : 5억원(절충가능)
011-9114-9935

##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청원군 북이면
호명리 107번지
● 문중방, 400평에 텃밭 200평
년세 100만원
● 가액 : 1800만원
● 몸만오시면 즉시법회가능
010-9159-3112

## 사찰매도 및 전세

● 위치 : 부산시내
1. 대지 760평
(매12억/전4억)
법당 36평(요사 100평)
2. 대지 233평
(매6억/전1억7천)
법당22평, 요사합 100평
010-4741-3446

##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기도 안양시 평촌
4층건물중 4층 80평
● 삼존불,호신불,냉난방시설
엠프시설,CCTV
● 방2, 사무실1, 공양실
● 보증금 4천만원
월 250만원
시설비:답사후 절충
010-4371-0412

## 사찰(급)전세

● 위치 : 충북 보은
● 법당 : 목조신축12평
● 황토요사채, 방, 거실 5칸
● 바위에서 나오는 생수
● 전세가 2500만원
018-406-3073

## 고속터미널부근. 포교당

● 88만 신도시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
① 평수= 200평.
② 시설 내용 = 대법당, 소법당, 일주문
③ 삼존불 및 천수천안 목불 ,
작은원불 800불 ,원목 운각 단청
④ 주지실 및 작은방등 접견실 -차실
⑤ 종무소및 판매소 부엌및 목욕탕
⑤ 법당 및 200평 전체를
고급 나무문양 인테리어 됨
※ 보증금 1억 / 월세 120만
※ 절충가능 / 시설비 5천500만원
011-339-2015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 부지 : 370평
● 법당 : 10평
● 요사 : 50평
● 가액 : 2억

● 위치 : 서울
● 대지 : 90평
● 법당 : 18평
● 요사 : 20평
● 가액 : 5억 급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소개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 토 굴 안 내

● 위치 : 하동 악양 지리산 자락
● 부지 : 680평 ● 가액 : 2억 2천
● 가옥 : 신축 황토 기와집
● 특징 : 마을 외각 경치 좋음
010-4782-2112

## 사 찰 안 내

● 위치: 전북 김제시 순동 127-1(전주,군산,익산 20분거리)
● 대지 : 416평, 요사채 약 50평(옛날구옥;문화재급)
2층 벽돌기와집(총 60평)
1층 40평 법당 20평, 2층 20평
● 경관이 수려하고 조경수 좋은 정원있음
● 가액 : 1억 8천만원(절충가능)
063)547-8895/016-9231-5355

##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내 중심지 사찰
● 대지 230평, 법당25평, 요사50평,주차시설 완비
● 가액 : 6억5천만원
● 위치 : 부산시내 최고 요지
● 신축 불사중 대지186평, 법당건물 목조 25평
건축중. 주차시설 완비 ● 가액 : 3억 3천만원
018-554-6198

##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역세권 교통중심지
KTX · 경의선국철 · 전철 행신역앞
● 도심최고의 포교원 ● 68평 시설특 A급
● 법당, 삼존불, 영가단, 신중단, 상담실,
대형룸 1개,방 2개,주방, 모든시설 최신식완비
● 원불(소불 1000불)엠프시설
냉난방자동시스템 ●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2000만원 / 월130만원, 시설비 4000만원
010-3390-2145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왜관 낙동강변 동향
● 부지 : 800평, 공유지 500 여평 활용
● 법당 : 목조단청 10평, 임법당 35평
● 요사 : 24평(2층), 부속건물 40여평
● 교통 : 왜관 10분, 대구 30분 거리
● 특징 : 강변고절처로 기도처 최고
● 용도 : 도시인근 포교도량 최적지
● 용처 : 평탄하여 노후생활 최적지
● 환경 : 경관도 좋고 도로포장 완료
● 가액 : 3억 2천 5백만원
● 사진 : 사찰넷에 첨부파일 있음
010-4600-0408 ※꼭 하실분만 연락바랍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 총평수 900평, 법당, 요사채
● 산세좋고 물좋음
● 가액:1억 8천만원
055)672-0340

##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기장대변입구 주공 아파트앞
2층 건물중 2층 옥상사용
● 평수 : 35평 시설 A급,몸만 오시면 법회가능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35만원
시설비 1800만원
010-4870-8359

##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횡성 IC 10분거리 이내
● 평수 : 5,800평 ● 가액 : 22억. 물물교환가능
● 법당 3동, 요사채 5동, 창고 1동
010-8507-9909

## 포교원 안내

● 위치 : 포항시 중심가. 평수 : 32평 2층
※ 법당, 방2개, 주방
● 보증금 200만원, 월 32만원
시설비 500만원(시설완벽)
016-436-6579

## 한국불교불광종 입종안내

종단이나 역학협회 전통민속협회 기타 소속없는 분 전종 종지 종풍이 맞지 않아 탈종 하신분 신규 입종을 원하시는분 타종단으로부터 받은 승랍 도첩 구족계 대덕 종사 법계는 본 종단 법계와 동등하게 인정한다.

**수계 도첩 구족계 승려 사찰등록증 발급**

**행자모집**

각단 불공을 배우고자 하는 예비승 철학사 보살 법사 수행인을 위한 책

| | | |
|---|---|---|
| 상단불공법 | 신장불공법 | 지장불공법 |
| 용왕불공법 | 구병시식법 | 조상천도법 |
| 칠성불공법 | 각단예불법 | 불명짓는법 |
| 산신불공법 | 법문하는법 | 불상점안법 |

책마다 순서대로 천수경 정삼업진언 거불 불공 축원까지 각 단권 맞춤형보시

**사물다루는법 각종제반 의식수강생 모집**

**한중불교주역대학 · 대학원** 학인모집 역학교수초빙
**국제역술인협회 · 천운전통민속협회** 회원모집

**한국불교불광종 총무원**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 2,3동 923-142번지
TEL 053)561-4440,567-2220,011-9422-1885

## 한국불교조계종 입종안내



한국불교조계종은 청정한 종단입니다.
아름답고 행복한 화합종단입니다. 우주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마음과 영혼이 순수하여 해탈 열반의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탁마하고 수행정진으로 한국불교의 미래를 고민하고 인류평화통일에 동참합시다.

**행자 모집합니다**

■ **구비서류 :** · 주민등록 초본 1부 · 이력서 1부 · 사진 5매 · 사찰내외부사진

재단법인 한국불교중흥교원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보현 합장**

인천시 계양구 오류동 155-2번지
문의 : **032)518-1588. 011-9524-8080**

## 제8기 불교의식 (범음,범패) 학인모집

◆ **초급반(3개월) :**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불공시식 등

◆ **중급반(3개월) :**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기초범음, 범패)

◆ **고급반(3개월) :**
49재, 천도재, 수륙재, 예수재, 기타모든의식

◆ **특수반 :**
천수바라 작법(나비춤) 요잡바라
사다라니바라 살풀이 연화무

■ 불교무용에 관심있으신분 환영함
(특수반수업은 매일 가능함)

■ 매주 강의요일 : 수 · 목 오후 3시 ~ 5시

본원은 초종파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함.

사무실 : 부산시 금정구 장전2동 598-12 보리원
전화 051)555-0969 / 핸드폰 011)849-0961
불교모든행사와 의식을 근기에맞는 스님들을모시고 여법하게봉행하여 드림.

**전통범음범패전수원 원광사**

실버형 노인 주거 복지시설

## 상락정토마을 입소자모집

**'상락정토마을'**은 전북 최초의 불교전문실버타운으로 어르신들에게 노후를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도록 하는 양로시설입니다.

**'상락정토마을'**은 완산칠봉 산자락에 위치해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어 등산 및 가벼운 산책을 즐길수 있고 교통이 편리해 어르신은 물론 가족들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혜사내에 자리하고 있어 기도와 수행 등 종교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상락정토마을'**은 협력병원과의 연계의료 서비스와 건강검진, 물리치료, 한방진료, 골프 연습장 무료이용등의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말벗과 전문가에 의함 상담, 다도, 노래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정서함양에 노력하고 있으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효도관광, 공연관람, 경로잔치 등의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근의 온천 나들이, 보호자 간담회등을 통한 가족과 생활을 연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상락정토마을** | 063)286-2020 063)286-2021(팩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696-1



2009년의 신수 비결이 출간 되었습니다.

## "효타비결 = 신수비결"

- 2009년 개인의 사주를 감정하여
- 직업, 재물, 사업, 이성 운과 인연
- 성적 및 진학 운, 일진 및 외출하는 날
-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나 운세를 바로 볼수 있고
- 정확하여 적중 율이 높습니다.

정가 25,000원.

## "이름 대사전"

- 대법원 선정 한자만 사용하여 이름 풀이까지 되어 있고,
- 320여개의 성씨별로 삼원, 수리, 음령 오행을 맞추고,
- 성씨별로 2000-3000여개의 이름들로 구성
- 개명, 작명, 법명, 상호, 등에 바로 사용할 수 있음.

정가 : 50,000원

## "효타 비결전서(상 · 하)"

- 일년이면 최고의 프로가 될 수 있는 비서.
- 한글 전용으로 누구나 쉽게 독학 할 수 있음.
- 책에 대한 질문은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립니다.

정가 : 각 권 50,000원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 테이프로 공부하는 四柱 특강

타고난 운명을 비롯해서 인간만사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감정의 원리와 요령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터득하도록 설명함으로서 들을수록 감명과 실감이 날것이다. 古典命理學은 10년을 공부해도 用神잡기가 어렵고 오판과 실수가 많치만 太極四柱는 四柱감정이 정확하고 논리가 정연하므로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다. 필자도 20여년간 命理學을 연구하였으나 답을 얻지 못했다. **10년을 공부해도 用神잡기가 어려운 命理學을 녹음-테이프로 하루 한시간씩 2개월이면 완성할 수 있다.** 재운이 있느냐 없느냐, 성공할것인가 실패할것인가, 시험에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배우자 덕이 있느냐 없느냐, 해로하느냐 이별하느냐, 궁합은 좋으냐 나쁘냐, 자식덕이 있느냐 없느냐, 관재구설수와 교통사고는 언제 일어나느냐, 나에게 맞는 직업은 무엇인가, 승진운은 있느냐 없느냐,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위기의 해와 달은 언제인가? 등을 확실하게 감정할수 있다. 비록 테이프로 공부하지만 선생의 강의를 직접 생생하게 듣는것과 같다. 初步에서 最高과정까지 철저히 이해시키는 독특한 강의는 들을수록 감명과 실감이 날것이다. 더욱이 有名人士들의 四柱를 실제로 풀이 하였으므로 공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것이다.

**(현재 대구에서 20기생 강의중, 수강희망자 상담환영)**

◆ **주문방법 : 아래 계좌로 송금하시면 속달우편으로 보내 드립니다.**
◆ **강 사 : 孫中山 會長 (74세) 太極四柱 著者**
◆ **테이프13개와 敎材代 포함 : 20만원**
◆ **계좌번호 : 농협 100080-56-022361**(예금주 : 손선영)

**學術團體 韓國陰陽學會 中央會**
**053)324-2468 / 010-9391-5699**

육갑납음풀이

## 자연속에서 인연을 찾을 수 있다

오행육갑 납음속에서 가장 단순한 이치로 우리 실생활과 접목을 시키고 그 원리를 찾아서 인연의 관계를 풀어가며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제까지의 음양과 오행은 전문가를 위한 학문으로 알고 있었으나 이 글을 읽고는 누구나 알고 이용 할 수 있으며 이번 기회로 육갑납음이 정립 될 수 있는 희망이 보였으면 합니다.

알고 있는 인연의 관계가 궁금하면 좋은 인연을 만난다면 나에게 힘을 실어줄 인연을 찾으려면 부모는 선택할 수 없어도 배우자는 맞는 인연을 찾아야 한다. 좋은 자식을 얻으려면 출생전부터 선택을 하여야 한다.




혼자는 살아 갈수 없는 것이 자연의 이치다.
900가지의 예문이 길을 안내해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 총판 : 법우당
**02)994-4437~8**

## 21세기 불자 자가(自家) 기도법



해조(解祖) 범산(梵山)큰스님이 쓰신불자 한 사람이 꼭 한 권씩 수지 독송해야 할 **"21C 불자 자가 기도법"**이 드디어 불자님들께 선을 보입니다.

이책은 한글만 아는 사람이면 자기 집에서 혼자 충분히 기도할 수 있도록 저술하였음으로 불자님들에게는 필수적인 경서 입니다.

· 해조(解祖) 범산(梵山)스님
· 1949년 전남 순천출생
· 東山 無盡 큰스님을 은사로 득도 수계
· 법무부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역
· 대한불교 원효종 경남종무원장, 중앙종회의원 역
· 현)해동불교대학,대학원교수
· 현)몽골불교대학 객원교수
· 현)여래암 주지

[논문]
· 인도불교의 철학적 고찰
· 원시불교의 선정사사에 대한 연구
· Buddkism과 인도철학과 제학파의 비교 연구
· 공사상에 대한 일 고찰
· 독서문화의 정착 방안에 관한 고찰 등

[저서]
· 그 속에 길이 있었다 · 웃으며 가는 저승길
· 공저 국역상용법요집 · 외 전문분야 다수

신간




[차례]
제 1장 - 기본학습
제 2장 - 중요경전
제 3장 - 불공편
제 4장 - 진언과 다라니
제 5장 - 각종발원문
제 6장 - 기도체험수기
제 7장 - 불서출판수지공덕
제 8장 - 내면탐사와 여래33천통기도
제 9장 - 자가기도법
제10장 - 불교기초지식
제11장 - 권선문

◆ 택배발송(발송비 무료) ◆ 정가 30,000원
◆ 문의 : 055-761-7462 / 011-552-3222
◆ 계좌번호 : 농 협 801032-51-032261
우체국 610790-01-001194 (예금주 : 여래암)
홈페이지 www.yeraeam.com / cafe.daum.net/yeraeam

## 기름값의 1/8 이하로 절약되는 대우돌고래 슈퍼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1호!

기름값 대비 80%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합

**사찰 · 포교당 ·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 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대우돌고래 슈퍼 에너텍**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길동 334-5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daewoosuperenertec.com

## 패철 보는법




나경은 나침반이다. 복잡하거나 어려울 이유가 없다 괜히 어렵게 가르치기 때문이다. 누구나 이 책 한권이면 하루밤에 나경 사용법 뿐만 아니라 음택, 양택, 수맥, 명당 잡는법까지 확실히 배울 수 있다.

**문학박사 전용원저. 표지본문 올칼라 46배판 영구보존 정장본. 정가 25.000원 할인가 22.000원. 무료배송 + 월간역학 1개월(8천8백원) 함께 증정. 한번에 2권 이상 구입시 권당 2천원 추가 할인. 농협 185-12-229450 예금주 김영주. 주문전화: 1688-1137** 한국역학협회

## 명당 탐지기 관룡자!!



관룡자를 들고가면 혈(穴)자리에서 정확하게 옆으로 회전합니다.
1990년부터 월간역학을 발행해오고 있는 문학박사 전용원(나경 사용법 저자)이 1970년대에 개발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로까지 판매되는 기구로 국내외 유명 지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100% 정확하게 명당혈을 찾아냅니다. 사찰터, 집터, 건물터, 묘지터를 잡거나 감정할 때 꼭 필요한 기구로 설명서대로 하시면 누구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관룡자는 본래 88만원이지만, 지금 구입하시는 분께는 66만원으로 할인해드리고, 케이스(2만원)+월간역학 1년분(10만5천6백원)+수맥 탐지봉(1만5천원) 등 푸짐한 상품을 무료로 드립니다.

구입방법: 농협 185-12-229450 예금주 김영주로 66만원 입금하신 후 전화 주시면 즉시 안전하게 등기로 보내드립니다.
서울 중구 광희동 2가 303-15호 한국역학협회
전화: 1688 - 1137

## 전통불교의식 수강생모집

| 기본과정 | 49재 및 천도재 의식 |
|---|---|
| 사물 다루는 법 | 범음범패 |
| 각단예불 | 상단권공 및 대령관욕시식 |
| 각단 각청 불공의식 | 천수바라무 · 오공양작법무 |

초 급 반 : 매주 목요일 금요일 오후 4시
중 · 고급반 : 매주 목요일 금요일 오후 6시
수 강 신 청 : (051)243-3165 H·P : 011-887-8600

※ 영남의식을 기준으로함
※ 승속 관계 없이 재가불자도 수강 가능
※ 꼭 필요한 의식만을 집중적으로 교육

**범음범패 홍보원**

**홍은사** 주지 성 각 합장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 3가 31-153번지
전화 : (051)243-3165 H·P : 011-887-8600

# “삼구는 하나입니까, 셋입니까?” “하나도 셋도 아니다”

## <22> 선사(禪師)문하의 거사들(3)

우두선(牛頭禪)이 절강(折江)지역에서 흥성하던 시기, 지금의 사천(四川) 성도(成都) 일대에는 보당선(保唐禪)이 활약하고 있었다. 보당선의 선구자는 자주(資州; 지금의 四川省 資中) 덕순사(德純寺)의 지선(智詵) 선사이다. 실제 창립자는 성도(成都) 정중사(淨衆寺) 무주(無住) 선사이고, 무주의 스승은 정중사의 무상(無相) 선사였다. 보당선과 정중선(淨衆禪)은 사자상승(師資相承) 관계일 뿐만 아니라 선학(禪學)에 있어서도 내재적인 관련을 갖고 있다.

종밀(宗密) 선사의 <중화전심지선문사자승습도(中華傳心地禪門師資承襲圖)>에 따르면, 지선 선사는 홍인(弘忍) 선사의 십대제자 가운데 한 분으로, 출가 후 먼저 현장 법사를 사사(師事)하다가 후에 홍인 선사의 제자가 됐다고 한다. 홍인 선사를 떠난 후에는 사천 자주의 덕순사에 주석했다. 만세(萬歲) 통천(通天) 2년(697), 측천무후(則天武后)가 천관랑중(天冠朗中) 장창기(張昌期)를 파견해 지선 선사의 입경(入京)을 청했으며, 지선 선사는 이에 응하여 장안(長安)으로 가서 내도량(內道場)의 공양을 받았으나 오래지 않아 병을 이유로 사직하고 돌아왔다.

서령(中書令)을 겸하다 남강군왕(南康郡王)에 책봉됐다. 덕종(德宗)의 재위기간에 거사는 남쪽의 운남(雲南) 만족(蠻族)과 연합해 서쪽의 토번(土蕃)의 침략을 물리치고, 서남지역 변방을 안정시켜 당조(唐朝)에 공헌했다. 그는 유명한 불교거사로 <가주미륵여래석상기(嘉州彌勒如來石像)> <재수성도부대성자사금동보현보살기(再修成都府大聖慈寺金洞普賢菩薩記)> <보응사기(寶應寺記)> <보원사전수비니신소기(寶圓寺傳授毗尼新疏記)> <사천앵무사리탑기(四川鸚鵡舍利塔記)> 등을 찬술했는데, <전당문(全唐文)>에 게재돼 있다. 신회 선사가 입적하자 위고 거사는 친히 비석을 세우고 비문을 써서 그에 대한 존경심을 보였다.

무상 선사의 또 다른 제자가 무주지만, 무주는 일찍이 진초장(陳楚章) 거사에게 법을 얻었다. <역대삼보기(歷代三寶紀)>와 <원각경대소초(圓覺經大疏抄)> 등 자료 기록에 의하면, 무주의 속성은 이(李)씨며, 봉상미현(鳳翔眉縣; 지금의 陝西省 眉縣) 사람이다. 북방에서 종군할 때 신안왕(信安王)의 중용을 받았다.

### 위고·진초장·최령·두홍점 등 지방세력 보당선 지원

### 귀의했던 거사들 사후 세력약화… 송대 ‘잊혀진 가풍’



무상 선사의 속성이 김(金)씨였기 때문에 김화상(金和尙)이라고도 불렸다. 신라(新羅) 왕족(王族) 출신이다. 출가 후에 서해를 건너 당(唐)에 와서 스승과 불도를 구했으며, 처적(處寂) 선사에게서 법을 얻었다. 후에 대부(大夫)인 장구겸경(章仇兼瓊) 거사의 청으로 성도(成都)에 들어와 약 20여 년 선법을 폈고, 정중선(淨衆禪)을 창립했다. ‘정중선’의 건립은 필시 장구겸경 거사의 도움과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겠으나, 애석하게도 거사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무상 선사는 신회(神會) 등의 많은 제자를 두었다. 신회는 정중사(淨衆寺)에 기거했고, 남양(南陽)의 하택신회(荷澤神會)와는 다른 인물이다. 그는 남강왕(南康王) 위고(韋皐; 745~805) 거사의 귀의를 받았다. 위고 거사는 자(字)를 성무(城武)라 하며, 경조(京兆) 사람이다. 정원(貞元) 초(785)에 검교호부상서(檢校戶部尙書)의 벼슬을 받았고 성도윤(成都尹)과 어사대부(御史大夫), 검남서천절도사(劍南西川節度使)를 겸했다. 후에 검교사도(檢校司徒)로 승진하고 중

어느 날 “선지식을 만나지 못하고, 일생을 허비할 수 없다”고 느껴 관직을 버리고 구도(求道) 생활을 했다. 먼저 진초장 거사를 만났다. 진초장 거사는 홍인의 법사(法嗣) 가운데 한 명이다. 그는 숭산(嵩山) 노안(老安)의 재가 제자였다. 진 거사는 무주를 위해 ‘돈오법’을 설하고 노안 선사의 선법(禪法)을 전수했다. 이 당시 무주는 아직 거사의 몸이었다. 후에 거사불교 생활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태원(太原) 자재(自在) 선사 아래서 출가했다. 수년 후 다시 성도 정중사에 들어와 무상 선사를 참알했다. 무상 선사는 세상을 떠나기 전 동선(董璇) 거사를 청해 비밀리에 가사(袈裟)을 주며 무주에게 전하게 해 정중선법(淨衆禪法)을 전승했다. 영태(永泰) 2년(766), 무주 선사는 두홍점(杜鴻漸) 거사의 청으로 성도 보당사(保唐寺)에 머물며 선법을 펴며, 보당선(保唐禪)을 창립했다. 보당선의 창립과정에 진초장, 동선, 두홍점 등 여러 거사들이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을 엿볼 수 있다.

두홍점(杜鴻漸; 709~769)의 자(字)는 지선(之選)이며, 재상 두섬(杜暹)의 혈족이다. 숙종(肅宗)시에 병부시랑(兵部侍郞)으로 임용됐고, 지중서사인사(知中書舍人事)를 역임했다. 두 거사는 대종(代宗)시에 병부시랑(兵部侍郞)과 동중서문하평장사(同中書門下平章事) 등의 고관을 맡았다. 영태(永泰) 2년(766)에 재상에 등용되고, 또한 성도윤(成都尹), 산남서도(山南西道), 검남동천부원수(劍南東川副元帥)를 겸했다. 신(新)·구(舊) <당서(唐書)> 기록에 의하면, 거사는 불교에 대한 신앙이 대단히 진실하고 성실했다. 재상과 성도윤을 겸하면서 검남서천절도사의 임무를 수행하는 기간에 촉(蜀)의 땅에 보당선이 흥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다른 불교도이 지역에서 발전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공헌을 했다. <신당서> 권126에 실린 그의 전기에는 수천 여 스님들에게 공양 올렸다는 기록이 보인다. <구당서> 권108에 실린 전기에는 거사가 만년에 선리(禪理)를 추구하다 스님에게 부탁해 삭발수계를 받았고, 죽은 후에는 다비(茶毘)하라고 자식들에게 유언을 남겼다고 전한다.

거사는 처음 익주(益州)에 도착했을 때, 사자를 백애산(白崖山)으로 파견해 무주 선사를 청하고 법을 물었다. <역대삼보기(歷代三寶紀)>에 의하면, 거사는 무주 선사를 추종했기 때문에 현지 여러 장군들의 지지를 받았다고 한다. 이는 무주 선사가 이미 현지에 견실한 지지기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또한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에는 거사와 무주 선사 사이에 다음과 같은 선문답을 나눈 내용을 기록한다.

거사가 무주 선사에게 묻기를, “김화상(무상선사)이 설한 무억(無憶), 무념(無念), 막망(莫妄)의 삼구(三句)를 들었습니까?”라고 묻자 선사는 “들었다”라고 말했다.

거사가 “이 삼구는 하나입니까? 아니면 셋입니까?”라고 묻자, 선사는 “무억은 계(戒)의 이름이요, 무념은 정(定)의 이름이며, 막망은 혜의 이름이다. 한 마음[一心]이 생하지 않으면, 계정혜를 갖춘 것이기에 하나도 셋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시 거사가 묻기를, “선사께서도 이 삼구를 사람들에게 보입니까?”라고 말하자 선사는 “초심학인에 대해서는 생각을 쉬게 하고, 식(識)의 파도를 멈쳐 맑게 하며, 물을 맑게 해 그림자를 비추게 하고, 무념체(無念體)를 깨닫게 해 적정(寂靜)이 현전하게 할 뿐으로, 무념은 또한 세우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로부터 거사는 무주 선사에게서 깨우침을 얻고, ‘마음에 선열이 깃들었다[棲心禪悅]’고 한다.

보당선의 성쇠와 상류층 거사들과의 관계는 대단히 밀접하다. 무주 선사는 파촉(巴蜀)지역의 군벌(軍閥), 관료(官僚), 사자(士者)와 모두 교류가 있었다. 두홍점 거사는 성도(成都)에 들어온 이후에 현지군벌 최령(崔寧)과 인연을 맺고, 최령 거사를 통해 무주 선사에게 산을 나와 그들을 위해 선법(禪法)을 보여주기를 간곡히 청했다. 이로부터 보당선계가 형성됐다.

최령 거사의 본명은 간(旰)이며, 조정에서는 두홍점의 요청으로 그를 서천절도사행군사마(西川節度使行軍司馬)로 임명하고, 령(寧)이란 이름을 내렸다. 파촉에 10여 년을 재직하면서 지역의 용맹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조정에서도 어찌 할 도리가 없어 관직이 상서우부사(尙書右仆射)에 이르렀다. 이렇게 두홍점과 최령 두 거사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보당선은 파촉지역을 중심으로 상당히 번창했다. <역대법보기(歷代法寶記)>에 따르면, “무주 선사가 익주에 도착하자 주의 관리들이 직접 영접했고, 현(縣)에 이르자 현령이 직접 길을 안내했다. 집집마다 깃발을 달았으며, 향을 피웠다”고 전한다. 이는 지방 세력의 불교에 대한 직접적인 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두 거사가 세상을 떠나고 최령 거사 또한 정치적 세력을 잃은 후에 보당선은 급속히 쇠락했다.

무주 선사 이후 제자들의 행적은 분명하지 않다. 송대(宋代)에 이르러 보당선의 역사와 사상에 관련된 것은 이미 사람들에게 잊혀졌고, 그에 따라 <송고승전(宋高僧傳)>에는 무주 선사의 전기도 실리지 못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법을 펼침에 있어 선사의 뛰어난 선법도 중요하지만, 그를 지지해주는 재가 거사의 적극적인 지지도 역시 상당히 중요한 인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짐작된다.

■ **김진무**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

빙의, 제대로 알자



빙의의 시대2

지은이 / 일 광(逸廣)
신국판 / 10,000원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원인 모르는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무당하기 싫은 분, 귀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신경통이나 좌골신경통으로 오래동안 고생하시는 분
귀신이 몸에 있다고 하여 고민하시는 분은
반드시 이 책을읽고 상담하여 주세요.

일광 _ Tel. 010-5040-7679
오리출판사 Tel. 02-313-5047

제1기 불교 상례 전문지도사 과정 모집

*불교 상례 전문지도사* 란
불교 상·제례 관련교육과 실무서비스를 교육받아 장례, 납골당, 자연장, 수목장, 상가봉사조직 등 운영 및 관리자로 진출하게 되는 전문직종입니다.

교육기간중 장례관련 아르바이트, 취업 가능!

◇ 교육기간 : 2008. 11. 29 ~ 2009. 7. 11 (8개월 과정, 총 160시간)
◇ 정규반 : 매주(화)오후 7시 ~9시 30분 매주 1,3주 (토)오후 4시 ~ 8시
◇ 통합반 : 매월 1,3주 (일)오전 10시 ~ 오후 7시
◇ 장 소 : 조계종 중앙신도회 교육관
◇ 모 집 : 선착순 40명(사찰 종무원 환영)
◇ 등록금 : 80만원(교재포함)
◇ 강사진 : 동국대 불교대학원 생사의례학과 (장례문화학과)출신 석·박사

◇ 교 육 내 용 :
- 불교 상·제례 이론과 실습
- 장례법규와 공중보건학
- 장례 및 상조문화, 납골당, 자연장
- 불교장례 관련시설 현장학습
◇ 수료후 취업 및 활동 :
- 사찰 상가봉사조직 활동, 운영관리
- 납골당, 자연장, 수목장 운영 및 관리
- 상조회사 행사, 관리, 홍보
수료 후 불교상례 전문지도사 자격증 발급

“ 사찰,신행단체에서 불교상례 전문지도사 양성 지원을 통하여
조직적인 상가봉사활동으로 신도 수 2배 증가 실현 ”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준)불교생활의례문화원 02) 723-0444






# 여러분이 계시는 까닭에 부처님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지난 호에 이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두 불교가 그런 것이 아니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절간에만 불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침 먹고 저녁 먹고 잠자고 똥 누고 이러는 자체가 그대로 불교입니다. 그런데 모두 40분이고 한 시간이고 앉아서 좌선을 하려고 생각들을 하거든요. 좌선하는 게 참선인 줄 알아요. 왜 참선이 못 되느냐 하면 앉았다 일어나면 참선하는 게 끊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앉는 거 서는 거 자는 거 일하는 거, 즉 말하자면 좌선 입선 와선 행선 이것이 몽땅 다 참선입니다. 스스로 자유롭게 시간이 나면 좀 앉아 있기도 하고, 서 있기도 하고 일하기도 하고 그냥 눕기도 하고, 이러는 게 그대로 참선이에요. 그러니까 참선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겁니다. 앉았다 눕고, 눕다가 앉고, 서다가 일하고 이러는 게 다 참선이니 그냥 일상생활이죠. 일상생활이 그냥 참선이죠. 마음은 꽁지에 꽁지를 물고 들떠서 망상에 훌떡 그냥 넘어가는데 몸만 앉혀 놓으면 뭘 합니까? 마음이 안정돼야 그게 좌선입니다, 네? 서나 앉으나 일하나 마음이 안정된다면 그것이 바로 좌선이며 참선입니다.

그냥 우리 생활이 종교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없다면 무효입니다. 부처가 어디 있고 중생이 어딨습니까? 미생물에서 나왔다는 증거가 여러분 오장 육부의 세포 하나하나 속에 있지 않습니까. 증명하느라고 벌써 그렇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미생물에서부터 인연에 따라서 형성돼 가지고 이렇게 사람으로까지 등장을 하게 된 것은 자꾸자꾸 화해서 나투면서 진화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도 있죠. 짐승으로 화해서 쫓기다가 내리막을 내려가는데 앞다리가 짧고 뒷다리가 기니까 도무지 내려갈 수가 없더랍니다. '아, 이거 앞다리가 짧고 뒷다리가 기니까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선 그냥 잡아먹혔죠. 그래서 그다음에 태어날 때는 앞다리와 뒷다리가 거반거반 같게 나왔더랍니다. 이게 마음의 진화입니다!

임신을 했을 때 태교를 중요시하는 것도 그런 탓입니다. 이미 낳았는데 그러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가설이 돼 있기 때문에 전력이 전달되듯이, 이미 낳은 어린애하고도 마음과 마음이 전달되거든요. 이 방에 전구가 이렇게 많고 모습은 다 각각이지만 전력은 다 똑같으니까 여기서 스위치를 올리면 저기까지도 다 불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와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식구 중에 한 사람이 병이 들었다거나 친구가 병이 들었다 하더라도, 실험을 하는 공부니까 거기다 마음을 주든가 내 마음에다가 넣든가 해서 맡겨 놓고 지켜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실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아, 전력이 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 안의 스위치를 누르니까 전구에 불이 들어오듯이 다 들어오는구나. 그러니까 다 밝게 살 수 있구나!' 이러는 거를 여러분이 느끼고 알고 그래야지 말로 해서 그게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림 · 최주현

그러면 오늘 진주에서는 처음 개원식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꼭 알아둬야할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신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심안으로 볼 줄 아는 거, 심안으로 들을 줄 아는 거, 심안으로 과거에 어떻게 왔는가 아는 거, 심안으로 남의 속을 다 아는 거,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오는 거, 이런 거를 오신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오신통을 다 해도 도가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건 왜냐하면 숙명통을 지금 현실의 컴퓨터라고 한다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입력이 다 돼 있거든요. 그러면 현실에 나오는데 그것을 다 거기다가 일임하고 맡겨야 다시 입력이 됨으로써 앞서의 입력된 거는 없어지죠? 그렇죠? 그거는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업보로 인해서, 유전성으로 인해서, 영계성으로 인해서, 세균성으로 인해서 오는 그 애고를 다 무너지게 할 수 있다 이 소립니다. 그건 왜? 거기다 입력을 다시 해 버리니까요! 나오는 데다가 되맡겨 놓으니까, 입력이 되니까 앞서 입력이 없어지죠. 없어지니까 내 마음이 편안하고, 속에 들어 있는 의식들이 다 편안해지니까 내 마음도 편안하고, 내 마음이 편안하니까 가정도 화목해지고, 가정이 화목하니까 생활이 잘되고, 생활이 잘되니까 사회도 마음이 건전하게 돌아가죠. 허허허…,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전부 좋은 겁니다.

그러니 숙명통을 지금 말로 심성 컴퓨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자동적인 컴퓨터입니다. 지금 그 컴퓨터를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입력이 자동적으로 되는 거죠. 정말입니다. 거짓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팔자 운명을 누가 갖다 주고 뺏어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하고 그 자리에서 입력이 돼서 그 자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모르고 어떻게 그냥 가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방치하겠습니까? 이렇게 부처님이 가르치신 건데 지금은 전부 기복으로다가 가르치고 있으니 자기 속에서, 이게 오신통이거든요. 어떻게 오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신통을 안다 하더라도 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물컵을 들어 보이시며) 지금 이거를 목마른 사람에게 주기도 하고 내가 목마르면 먹을 수도 있어야만이 바로 누진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오신통 그릇 안에서, 항아리 안에서 딱 벗어나서 보면 자유스럽게 항아리를 굴릴 수가 있죠. 항아리 속에서는 항아리를 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내 속에서 내가 벗어나야 여기 앉아서도 어디든지 갔다 올 수 있죠. 한 가지 가르쳐 드릴까요? 여기 앉으셔서 집에 좀 갔다 온다 해도 한 찰나에 갔다 오실 수 있지요? 지금 집에 갔다가 오실 수 있겠죠? 허허허…. (대중 박수) 그렇게 마음이 지구 바깥에도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구라는 것이 버스라면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서 버스가 어디로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사는 형편입니다. 그러니 지금 몸속에 들어 있는 중생들도 여러분이 마음을 그렇게 내서 공부하지 않는다면 오장 육부의 모든 중생들이 지금 여러분이 부산을 가는지 진주에 왔는지 그거 모를 겁니다. 이게 참 아주 묘한 도리죠! 여러분이 움직이고 다니게끔 속에서 모두 작용은 해 주지마는 자기가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그걸 몰라요. 지구에 붙어서 살면서도 지금 지구가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우리 중생들은 몰라요. 지금 인간에게 붙어서 사는 것인데도 인간이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또 몰라요.

그러니 모두가, 삼합이 사부주가 맞아야 같이 혼합해서 돌아가는 걸 알게 되죠. '이런 것이 시공을 초월했다는 것이구나. 이런 것이 백 개라도 하나로 할 수도 있고, 천 개라도 하나로 할 수가 있다는 거구나! 그래서 바로 평등공법이며 활궁공법이며 수레공법이구나!' 이런 도리를 진주 여러분이 모두 공부를 해서 하나하나 내 몸으로부터 내 가정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체험을 하고 아신다면, 핼리 혜성이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우리 지구 동네에 와서 해를 입힌다 하더라도 내가 그 핼리 혜성이 될 줄 알 겁니다.

구렁이가 사람들 못 다니게 길을 가로질러 걸쳐져 있으니까 달마 대사가 구렁이 속으로 들어가서 구렁이를 끌어다가 딴 데 갖다 놓고 다시 오듯이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얼마나 현명한 도리입니까? 그러니 이 세상을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이 도리를 여러분은 꼭 배우셔야 될 겁니다. 이런 인연 만나기도 참 쉽지 않습니다. 천 년 만에 한 번 만나기도 어렵다는 공부입니다. 여러분이 모두, 마음의 구조도 바꿀 수 있고 체질도 바꿀 수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자유자재권을 가지고 있고 정신계의 대권, 자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질문을 좀 해 보시죠. 이해가 안 가시는 점도 많겠습니다마는 처음부터 배부르지 않습니다. 내가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떠 넣고 그래서 한 밥그릇이 다 비워져야만이 배가 부른 것을 알게

☞26면으로 계속

2008년 불교교육능력평가를 위한

## 제7회 연합회 포교사고시 실시 공고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에서는 불교교양대학을 졸업한 불자들을 대상으로 불자로서의 기본소양, 불교교리의 이해, 사회봉사 참여의식, 불자로서의 가치관등에 대하여 불교교육능력평가고시를 시행하여 실천불교를 위한 정법포교의 선구자역할을 할 불교포교사를 배출하고자 제7회 연합회 포교사 고시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공고함

**포교사고시 응시대상**
· 연합회에 등록된 교양대학(교육과정 1년 이상)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시험일시**
· 2008년 12월 7일(일) 오후 1시 ~ 오후 6시
(필기시험 및 면접)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08년 10월 20일(월) ~ 11월 20일(목)

**응시장소**
· 박문각행정고시학원
(서울 종로구 조계사입구, 제일은행 본점 뒷편)

**포교사 고시 구비서류**
· 응시원서(소정양식) · 졸업(예정)증명서
· 자기소개서(소정양식) · 성적증명서
· 수계첩 사본 · 사진 4매(반명함판)

**응 시 료**
· 응시료 60,000원
(국민은행 023501-04-131317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접수방법**
· 학교별 일괄접수

**접수유형**
· 서류전형 → 필기시험 및 면접 → 최종합격자발표 → 최종합격자연수 및 품수

**합격자발표**
· 2009년 1월 10일(개별 및 학교별 통지)

**문 의**
· 연합회 사무국 TEL 02)734-9595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에 신규가입할 교육단체 및 교양대학은 사무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한 국 불 교 교 육 단 체 연 합 회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TEL 02)734-9595 FAX 02)732-1207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 천/년/초를 아십니까?



천년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노지에서 자연상태 그대로 자라는 다년초 식물로 혹한의 영하 20℃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토종 선인장입니다.
특히, 어떠한 병충해에도 죽지 않고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자연식품이며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식물" 이라 불릴만큼 어떤 식물과도 비교할수 없는 높은 성분을 함유한 소중한 우리의 자원입니다.

**직접 몸으로 느껴 보십시오.**

한겨울 영하 20℃의 혹한 속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의 천년초!
천년초의 놀라운 생명에너지를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천년사랑에 사용하는 천년초는 유기농 천년초 100%를 사용해 만듭니다.

천년사랑 무료샘플신청 02)780-3989
(천년초 책자와 농축액 2일분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생각 생각 나는 것이 바로 나를 성장시키는 재료!

☞25면에서 계속

되죠.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질문자1(여)** 스님, 전생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들이 전생을 알 수 있다면 좀더 어리석음을 짓지 않을 것이고 깨달음도 빠를 것인데, 저희들은 어째서 깨닫기 전에는 전생을 모르는지요? 부딪치게 될 때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스님** 아, 조금 아까도 전생인데요. 하하하…. 한 시간 전의 전생에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현생에 닥치죠. 그리고 오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일 닥쳐오죠. 그러니까 전생이다 후생이다 할 것이 없습니다. 알고 보면 시공을 초월해서 만 년 전이라도 오늘이 됩니다. 그 도리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삼정례를 하다가도 바쁠 때는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 한데 합쳐서 일심으로 일정례를 해도 된다! 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며 뛰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발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한생각에 일정례로 만 번의 절을 할 수가 있고, 삼정례로 삼만 번, 삼십만 번의 절을 한 것이 될 수도 있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아주 여유가 있고 내가 절을 좀 하고 싶다 이럴 때 그냥 절을 하는 것이 진짜고, 내가 절을 하고 싶지도 않고 바쁜데 이걸 꼭 해야겠다 하고 하는 거는 진짜가 아닙니다. 삼십만 번을 해도 진짜가 아닙니다.

목에다 염주를 걸고 다니죠? 이거는 그냥 세상 우주를 짊어지고 다니는 겁니다. 촐나촐나 돌아가는 것을 염주로다가 해 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백팔 번뇌를 그걸로 비유를 해 놨는데, 그걸 백팔 번뇌라고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생각을 하지 못하면 목석이죠? 육체가 없으면 무효죠? 생명이 없어도 무효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생각 생각 나는 것을 망상이라고만 밀어붙이겠습니까? 생각 생각 나는 것이 바로 나를 성장시키는 재료라고 봐야죠.

팥죽을 끓이는데, 익으려고 그러면 팥죽 방울이 수없이 올라오죠? 그럼 그거를 망상이라고 하겠습니까? 팥죽 방울이 그렇게 많이 올라오는데 말입니다. 팥죽이 익으려고 팥죽 방울이 끓죠? 하하하…. 그러니까 팥죽 솥에 팥죽 방울 일어나듯이 망상이 일어납니다. 그 망상은 망상이 아닙니다. 그거는 바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재료입니다. 팥죽을 익히기 위해서 팥죽이 끓는 거와 같이 그건 성장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망상이 아니고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런 마음이 자꾸 일어나게 하는 것이니까 감사하게 거기다가 일임해서 놔야죠. 그걸 망상이라고 그러면서 온통 백팔 배를 하고 천 배를 하고 아무리 몸뚱이로 그래 봤자 몸뚱이 떨어지면 입도 떨어지고 입 떨어지면 말도 떨어지는데, 뭐 남는 게 있겠어요? 공덕이 될 거는 하나도 없어요. 달마대사가 양 무제더러 말했듯이 말이죠.

여러분! 옛날에 누가 묻기에 내가 대답을 그렇게 했지만 말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으로 아촉도 되셨다가 아미타도 되셨다가 관세음도 되셨다가 지장도 되셨다가, 칠성도 됐다가 산신도 됐다가 용신도 됐다가 지신도 됐다가 또는 문수도 됐다가 보현도 됐다가 하면서 이렇게 마음으로다가 하시는데 여러분은 그게 따로따로 있는 줄 알죠? 그럼 여러분 가정에서 한번 알아볼까요? 금방 아버지가 됐다가 금방 남편이 됐다가 금방 할아버지가 됐다가 금방 형님이 됐다가 금방 아우가 됐다가 금방 사위가 됐다가…. 하! 이렇게 하고 돌아가는 건 어떡합니까? 허허허. 아니, 그렇게 이름이 많지 않습니까? 가지각색의 이름이 그렇게 많고, 행하는 게 그렇게 많고, 가고 오는 게 그렇게 많아도 가고 옴이 없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 진주의 여러분이 이 도리를 확실히 아셨으면 합니다. 저 부산에서나 울산에서나 마산에서나 또는 광주에서나 대구에서나 눈이 그냥 샛별같이 청정하게 지금 공부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시는 것이 바로, 아래로는 썩은 뿌리를 끊어 주고 새 뿌리를 나게 하는 것이요, 위로는 이파리와 가지를 싱싱하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전부 고마운 줄을 알아야 합니다. 내 육신을 낳아서 키워서 보낸 그 은혜도 이 도리를 공부하면 다 갚게 됩니다. 지수화풍의 은혜도 들이 아닌 까닭에, 전체가 들이 아닌 까닭에 갚았다 안 갚았다도 없이 그냥 갚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보가 무너지고 유전성이 무너지고 영계성이 무너지고 세균성이 무너지고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모진 병고에 휘달리지도 않을 겁니다.

현명하게 사십시오. 아주 현명하게 말입니다. 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뛰고 실험하고 체험하면서, 이렇게 해도 그건 아주 빠르게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편리하게 사시도록 하는 방법을 부처님께서 49년을 설해서 가르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삼천 년 전에만 부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이 계시는 까닭에 부처님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풀 한 포기만 살았다 하더라도 부처님은 계신 겁니다. 그러니 또 질문 있으면 하세요.

**서나 앉으나 일하나 마음이 안정된다면**
**그것이 바로 좌선이며 참선입니다**

**질문자2(여)** 스님께서는 항상 모든 것을 주인공에게 맡기고 돌려서 생각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 자신 스스로가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게 잘 안됩니다. 이렇게 큰스님을 뵈었을 때 주인공에게 되돌려서 생각하는, 맡기고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 조금 도움을 받았으면 합니다.

**큰스님** 이거 보세요. 깨닫는다는 말조차도, 이름조차도 생각하지 마세요. 깨닫는다 하면 깨닫지 못하는 게 뒤따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합니다. 아시겠어요? 또 내 마음 자체가 전부 용광로라고만 생각하세요. 재생돼서 자동적으로 나가게 하려면 용광로에다 모든 거를 맡겨 놔야 스스로 녹아서 그냥 재생이 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불바퀴요 용광로요 바로 자가발전소입니다. 자가발전소도 되고 용광로도 되고 바로 불바퀴도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의심치 말고 거기다 맡겨 놓고 잘 지켜보십시오. 그러면 그 도리를 알게 될 겁니다.

'난 깨달아야겠다!' 이러고 안간힘을 쓰면 더 깨달아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닫는다 안 깨닫는다 그것이 없이 그대로 내가 있기 때문에 내 주인공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 안되는 것도 되는 것도 그 모두가 주인공에서 하는 것이니 마음으로 잘 굴려서 거기 맡겨 놓으세요. 이런 게 있죠. 하인을 뒀다 하더라도 너 이렇게 이렇게 심부름을 해 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해야 해 가지고 오지 너 알아서 해라! 이러면 어떻게 심부름을 합니까? 아, 생각해 보세요, 글쎄! 비유를 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주인공, 해 주시오!' 해도 안 됩니다. 둘로 되기 때문에요. '네 몸뚱이 네가 건강하게 해서 끌고 가야지 네 심부름을 하잖아?' 하든지 '너한테서 나온 거니까 네가 해결을 해야잖아!' 하고 어떤 용도든지 그렇게 나가야지, '주인공, 이거를 해 주시오!' 이런다면 관세음보살을 바깥으로 찾는 거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둘로 보지 말고 꼭 그렇게 하세요. 질문하실 것 또 없습니까?

**질문자3(남)** 큰스님 말씀에, 되지도 않는 질문도 하면 되는 법이 있다 해서 제가…. (대중 웃음)

**큰스님** 하하하…. 그래요!

**질문자3(남)** 저희 중생들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시행착오가 있고 또 실수가 있는 법인데, 제가 꼭 여쭈어 볼 것은, 깨달은 분은 실수가 있는지요, 없는지요? 그것을 꼭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스님** 아무리 실수가 많아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대중 박수) 마음이라는 건 체가 없는 겁니다. 지금 시공이 없이 돌아가고, 즉 말하자면 비행기 프로펠러 돌아가듯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한창 돌아갈 때는 보이지도 않죠? 프로펠러가 보이지 않죠? 지금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 돌아가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딱 걸렸을 때에 내 마음이 걸린 거지 그 프로펠러가 걸린 게 아니죠? 그러니 실수를 해서 마음에 걸렸다 하더라도 마음을 빨리 돌려서 '어! 이렇게 안 돌아가게 한 것도 거기서 나온 거니까 돌아가게 하는 것도 너 아니야?' 하고 거기다 딱 놨을 때에 제창 그냥 다시 돌아가는 거죠. 다시가 아니라 마음에 걸렸던 게 풀어지면서 그냥 돌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바꿔 놓는 것이 활궁공법이에요. 그래서 지혜 있게 돌아가게 하는 것은 바로 수레공법이라고 하죠. 또 가만히 있으면 부처다 하는 건 평등공법이죠. 하하하…. 이 모두를 여러분 자체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먹어 보지를 못해서 맛도 모르고, 어떻게 해 먹는 것도 모르고, 어떻게 생긴 것도 못 보고 그랬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뜻은 기복이 아니고, 모두 각자 자기네들이 자기네들을 깨달아서, 즉 말하자면 어린애를 낳아서 키워서 사회에 내보내고 자유스럽게 살아라 하는 걸 가르쳐 준 거와 같습니다. 나를 깨쳤다 하더라도 그것은 갓 나온 어린애와 같은 거니까요. 두 번째 깨치는 거는 둘이 아닌 까닭을 알아야만 되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둘이 아니게 나투는 까닭을 알아야 구경경지에 이르러 열반계로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질문자4(여)** 그럼 답답한 마음도 용광로에 놔야 됩니까?

**큰스님** 그렇죠! 답답한 것도 거기서 나온 거니까 거기서 물리가 터지고 거기서 알아야만 되는 거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길을 가다가도 엎드러지면 길을 딛고 일어나야지 딴 데다가, 허공을 허우적거려서 답답한 걸 호소를 할 겁니까? 그러니까 답답한 것이 나온 자리에다 되놓고 '답답한 것도 거기서 나온 거니까 답답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것도 거기 아니야?' 하고 거기다 맡겨 놓으면 가고 오는지도 모르게 해결이 나는 겁니다. 물질로써 하는 게 아니니까 참 그게…. 그러니까 묘법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자유스럽게 살려면 이 도리를 꼭 아셔야 합니다. 그냥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또 누가 질문하시겠습니까?

**질문자5(남)** 멀리서 왔습니다. 오늘 꼭 한 가지를 여쭤 볼까 하고요. 놓는 것이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만 잘 놓는 건지요? 그리고 『금강경』도 읽고 싶고 『육조단경』도 읽고 싶고…, 지금 법어집이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스님 법어집은 몇 번 읽었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으면 안 되는지요?

**큰스님** 책을 읽더라도 책이 선생님을 보지 않고 선생님이 책을 보지 않는다면, 그 글자와 백지를 같이 보는 게 돼서 보지 않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선생님이 책을 본다 하고 보고, 또는 책이 선생님을 본다면 그거는 안 되는 법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걸어오실 때에 한 발 딛고 한 발 놓고, 한 발 딛고 한 발 놓고 그러고 올라오셨지 걸머지고 오셨습니까? 네?

**질문자5(남)** 아니지요. 그러면 그걸 읽어도 마음에 간직하지 말고 다 놓아라 이런 말입니까?

**큰스님** 놓고, 이 몸뚱이가 텔레비전이라면 텔레비전 속에 들어 있는 그 화면을 나오게 하는 근본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마음하자는 대로 육체는 하거든요. 그런 거와 같이 모든 거를 거기다가 맡겨 놓고 너만이 나를 보게 하기도 하고 듣게 하기도 하고, 가게 하기도 하고 오게 하기도 하고, 싸우게도 하고 화나게도 하고 이러는 거니까 네가 다 하는 거다! 하고선 보는 겁니다. 말로만 그렇게 해선 또 안 됩니다! 진짜로 안 되는 것도 되는 것도 바로 그놈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할 때에 믿음이 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거기다 놓으시고 한번 체험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얘기할 거는, 여기에서 일요일마다 비디오 법회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열심히 들으시고 책도 보시고 차에 카세트테이프도 넣고 다니시면서 들으시고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몸 떨어지면 공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몸 떨어지기 전에 공부들 열심히 하십시오. (대중 박수)

※위 법문은 1992년 11월 29일 진주지원 개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부처님을 모시고 야외에서 법회를…
불기2553년 기축년 윤달 괘불탱화 조성 보급 안내


석가모니 부처님 괘불 7자 X 4자반

귀의삼보하옵고
저희 두리아기획에서는 불기2553년 기축년 윤달을 맞이하여 부처님을 모시고 야외에서 방생 법회를 봉행하실 수 있도록 소형 괘불탱화를 조성, 보급하고 있습니다.
전국 사찰 주지스님 및 대덕 큰스님들께서는 괘불탱화를 모시고 법회를 봉행하시면 부처님의 무한공덕은 물론 신도님들의 신심을 더욱 깊게 하여 불교 포교에도 한량없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주문하신 사찰에 한해서 특별 할인혜택을 드리오니 동참해 주시면 성심성의를 다해서 장엄미 가득한 괘불탱화를 조성 봉안해 드리겠습니다.
특별제작을 원하시면 크기 · 모양 등 원하는 대로 다양한 괘불을 제작해 드립니다.

※ 한 작품당 시일이 15~20일 정도 소요되오니 미리 주문해 주시면 순서대로 봉안해 드리겠습니다.
※ 연락주시면 직접 방문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특괘불(大 · 中 · 小) 제작 조성해 드립니다.

취급품목 단청, 탱화, 개금, 불상 및 건축, 시멘트법당, 천불, 오천불, 만불 등 각종 불사 전문

두 리 아 기 획 상담전화 : (02)714-7253 / 010-9939-5412

태용 문화재 고 건축

최저예산으로 전통을 거르지 않고 책임시공, 관리, 하자보수까지 책임지겠습니다.

◆ 木手 – 사람들은 절 보고 이렇게 부릅니다. ◆ 木壽 – 전 이렇게 부릅니다.

나무에 목숨을 불어 넣는 일,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통 짜맞춤 방식으로 집을 짓는 전 木壽입니다.
제가 현금으로 시주를 할 수는 없지만 목수가 천직이라 생각하고 22년간 해온 기술로
제가 직접일을 하기 때문에 불사금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는 것은 작은 시주라 생각됩니다.



제가 하는 일 : 대웅전(3포, 5포, 7포등), 요사채, 범종각, 삼성각 등
작은 일이라도 제게 주어진다면 정성을 다해 내집 처럼 짓겠습니다.
도 편 수 : 이 형 찬 합장 H · P 011-9515-5587 / 공장 055)852-5537 (팩스겸용)
경남 사천시 서포면 궁항리 840-4

제가 현금으로 시주를 할 수는 없지만 목수가 천직이라 생각하고 22년간 해온 기술로
제가 직접일을 하기 때문에 불사금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는 것은 작은 시주라 생각됩니다.



불자 세상보기

김 재 성
조계종 전통사상서간행회 선임연구원

# 진정한 의지처는 어디에 있는가?

요즘 인생의 어려움, 마음의 짐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거두는 이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대중매체를 통해서, 그리고 가까운 지인들을 통해서 자주 접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삶을 포기할까하는 생각을 하며, 연민의 마음이 일어나는 한 편, 나는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삶이란 무엇인가? 왜 살아야 하는가? 깊어가는 가을, 사춘기 때 일어났던 실존적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은 저 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도심의 인도 위를 구르는 낙엽을 밟으면서, 산기슭을 오르며 밝게 떠오른 10월의 보름달 빛을 받으면서, 인생에서 정말 가치있는 일은 무엇인지, 삶의 진정한 의지처는 어디에 있는지 마음 속 깊이 물음을 던져봅니다.

이 풍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은 여덟 가지 인생의 부침[八風, 八世間法]에 의해 항상 흔들립니다. 칭찬과 비난, 명예와 불명예, 이익과 손실, 즐거움과 괴로움이라는 바람이 부는 세상살이, 이리 저리 흔들리며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습니다. 4가지 순풍이 불면 들떠 흔들리고, 4가지 역풍이 불면 침체되어 흔들립니다. 바람 앞의 등잔처럼 위기의 순간들의 연속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처럼 불어오는 세간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평온하게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풍전등화와 같은 인생살이에서 진정한 의지처는 어디에 있을까요?

반열반(완전한 열반)을 앞두신 부처님은 붓다 입멸 후에 법과 율을 스승으로 삼을 것을 강조하면서, 자신과 법을 의지처로 하라고 가르치십니다.(디가니까야, 대반열반경, DN Ⅱ 100 이하) 그리고 아라한이 되지 못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하신 후 입멸하십니다.

"그럼 잘 들어라, 비구들이여! 지금 너희들에게 이르노라. 모든 조건지어진 것은 소멸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諸行壞法). 게으르지(방일하지) 말고 힘써 정진하라. vayadhammā saṃkhārā, appamādena sampādetha."

우리는 45년을 인연이 닿는 중생들을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해탈에 이르게 도와주셨던 붓다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훈에서 진정한 의지처가 무엇인지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의지처는 바로 세간의 바람을 위시한 무상한 것에 휩쓸리지 않으면서, 열심히 계정혜 삼학[八正道]을 닦는 정진을 하여, 법에 의해 잘 닦인 자신의 마음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순풍의 단맛에 빠져버리기 쉽고, 역풍의 쓴맛을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인생에서 순풍의 맛을 거부할 필요는 없지만, 그 바람도 지나가고 만다는 것을 알고 평정한 마음으로 대하면 어떨까요. 역풍이 괴로워도 그 바람도 스쳐지나가고 만다는 것을 알고 평정심을 유지한다면 어떨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나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피는 일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순간순간 흐르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부처님께서 의지하라고 하신 법입니다. 이 법에 굳건하게 머물게 되면, 끊임없이 부딪혀오는 순풍과 역풍에도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마음에 이와 같은 여유 공간이 생기게 되면, 세상의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었던 행복과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섬세해진 마음은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도 놓치지 않으면서 알아차리게 되며, 마음은 더욱 평온해지게 됩니다. 지극히 평온해지고 깨어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지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처님과 깨달음을 얻은 제자들은 옷 3벌과 발우하나와 최소한의 소지품만을 지니셨지만, 정말로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사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난을 하거나 칭찬을 하거나, 마음은 동요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 분들이 얻은 진정한 의지처는 세상의 바람에 의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들은 도구일 뿐, 도구를 목적으로 삼는다면 그 도구에 휘둘리게 됩니다. 도구는 필요하지만 그 한계를 잘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길들여진 마음을 떠나 따로 삶의 안식처는 없음을 깊이 이해하여, 각자의 근기에 맞는 방법으로 진정한 마음의 평온과 행복을 위해 정진한다면, 바람 속에서도 평온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 행복하시기를!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부처님 가피 항상 그대 곁에"



##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 ⑨⓪ 부모님을 용서하고 싶어요

#### 난 태어나지 말걸

교도소에 가 보면 정말 그의 죄를 미워하기 전에 그가 걸어온 삶의 고통에 대해서 가슴 저리게 아파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제 30세가 넘은 박씨도 그런 사람이다. 그의 편지에 의하면 그는 베트남에서 한국인 아버지와 베트남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박씨가 다섯 살 무렵 아버지는 그를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친어머니와 헤어져야 하는 것은 슬픔이었겠지만 그래도 아버지 나라에 왔으니 반갑고 기쁜 일이었을 것이다.

당당한 한국의 어린이로서 무럭무럭(?) 자라야 할 나이였다. 그러나 뜻밖에도 할머니와 고모들이 그를 손자로 조카로 인정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기 싫다는 것이었다. "결국 아버지는 저를 버렸어요. 나보다 다른 가족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진다. 자세한 설명이 없어 어떤 말이 오갔는지, 그것이 얼마나 그의 가슴에 비수가 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린아이의 아픔을 상상할 수 있다. 아버지는 그를 보육원에 데려갔다. 그 곳에 놓고 간 후 소식이 없었다. 자신의 친아버지가 인연을 끊어버린 것이었다. 친할머니와 가족들이 그의 존재를 거부한 것이다.

초등학교 입학 전인 그 때부터 박씨는 자신의 고국에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며 살았다고 한다.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충격이었을 것이다.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데, 잘못 태어났다는 생각만 하게 됐습니다. 잘못 낳아주신 부모님이 너무 원망스러웠고요. 나중에 커서 학교 다니면서부터는 부모님이 있고 함께 다니는 아이들을 보면 무조건 부럽고 미웠습니다. 그래서 그 애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사고도 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소위 문제아로 자라왔고 전과도 몇 번에 이르게 됐다.

#### 항상 함께 하시는 부처님

다행히 그는 얼마 전 불법의 인연을 만나 불자가 되면서 마음에 많은 안정을 찾게 됐다고 한다. 그의 사연을 알고 보니 뼈아픈 눈물 속에 한 국인으로서 어떤 책임감 같은 것마저 느껴졌다. 서양에서는 아무 관련 없는 한국 아이들을 입양해 가기도 하는데 우리는 친 핏줄도 거부해야 하다니. 함께 봉사하시는 선생님이 "모르셨어요? 베트남 이런데 가면 우리 아이들이 많답디다" 하는 말씀을 들으니 더욱 마음이 아프다.

부처님께 기도하며 편지를 썼다. "법우님, 법우님 마음속에 계신 부처님께서는 반드시 법우님을 위해 울어주셨을 것이고 한시도 법우님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는 이기적인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고 좋은 사람들, 참된 불자들도 많이 있답니다. 법우님이 살아오시면서 좋은 인연을 못 만나신 것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더 아픈 사연도 서로 사랑으로 안아주며 사는 가족들도 있고, 학생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감싸는 선생님들, 또 소외된 친구들을 차별하지 않는 마음 따뜻한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었을 텐데 정말 안타깝군요. 모두가 법우님을 외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은 법우님 같은 분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어떻게든 도와드리려고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어요. 부모님 잘 만나 잘 살아 온 사람들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략) 제발 힘내세요. 부처님의 사랑과 자비가 항상 법우님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 원망 대신 자비심을 주세요

다음에 면회를 가니 박씨는 "편지 받고 많이 울었다. 불교공부 열심히 하고 싶다"고 한다. 그 후 몇 년 동안 박씨는 편지할 때마다 <천수경> 등을 사경해서 보낸다. 얼마 전에는 <부모은중경>을 보내달라고 했다. 웬일일까, 생각하기도 싫은 자신을 버렸던 부모님에 대해 어떤 마음이 든 것일까. 깊이 관하다 보니 감사한 마음이 올라왔다. 그가 부모님을 용서하고 이해하려는 것 아닐까. 더 이상 원망과 증오가 아니라 부처님의 마음으로 자신의 인연과 삶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 같다. 자신을 버렸던 부모님을 이제는 오히려 자비로운 사랑으로 감싸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본다.

부처님, 그 분들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어 악업을 녹여주시기를 간절히 청하옵니다. 그 분들 마음속에 따뜻하고 밝은 부처님 사랑의 빛이 피어날 수 있도록 부디 이끌어주시옵소서. 나무 관세음보살.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社說

# 불교계 학회 통합운영관리 필요

## 학술진흥재단 KCI통합시스템 대응 시급

불교계 학회들이 기로에 섰다. 그간 불교학 연구를 전문으로 담당해 온 학회들이 운영과 성과의 측면에서 발전적인 변화를 꾀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은 심심찮게 들어왔다. 영세한 운영 기반과 비효율적인 회원관리 시스템, 기획력의 부족으로 인한 학술회의의 미약한 성과, 회원들의 참여의식 부족 등이 불교계 학회가 질타 받아온 요인들이다.

따지고 보면, 이런 이유들로 진취적 활동에 발목이 잡히는 학회라면 상당부분 개혁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개혁의 필요성마저 수년 째 '구두선'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인식은 있지만 틀을 바꿀 원동력은 확보하지 못한 채 세월만 보내 온 것이다.

이제 상황이 급해졌다. 우리나라의 학술 제분야에서 학술적 성과를 집대성하고 학술 단체들의 역량을 평가 지원하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이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및 학술지 평가를 위한 잼스(JAMS)를 운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들 사업이 실시되면 학자 개인의 학문적 성과는 물론 학회의 활동 성과와 역량 등이 분명하게 경쟁력을 갖게 되고 차별화 될 것이 뻔하다. 더 이상 타성에 젖은 학문 활동이나 학회의 운영은 명함을 내놓을 수 없는 시대가 온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 앞에 선 불교계 학술단체들은 뭔가 중요한 결심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됐다. 이미 불교계 학자들 사이에서 "통합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분분했던 것이 사실이다. 동국대학교 등 종립대학에 근간을 둔 학회와 그렇지 못한 학회간 운영조건의 차이와 행보의 간격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만, 운영에 있어 외부의 변화에 발맞추지 못한 점은 별 차이가 없다. 그래서 통합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받아 왔던 것이다.

그렇다면 학술계의 흐름을 적극적으로 따라잡으며 불교학의 깊이와 넓이를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아무래도 통합적인 운영과 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가장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보인다. 개별적인 운영으로는 개혁의 요구를 충분하게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은 그간의 행보가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통합 의견에 무게를 실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누가 어떤 식으로 통합하고 운영의 전문성을 살려 갈 것이냐 하는 것이다. 과연 불교계에 그럴만한 동력이 있느냐를 물어야 할 것이다. 또 각 학회들이 얼마나 허심탄회하게 동참하는가도 근원적인 관건이다.

그렇다면, 학회들이 발 벗고 나서야 한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기에 당사자들이 나서야 하는 것이다. 대승적인 입장에서 매우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담론의 장을 만들어 내야 한다. 그 다음에 학자와 학회가 공히 인정할 수 있는 법인 내지는 실무기구를 구축해야 한다. 그렇게 통합 운영 관리의 틀을 갖춘 기구가 각 학회의 설립 취지에 맞는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한국불교는 기존의 불교역사에서 독특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 왔다. 때문에 한국불교 자체만으로도 연구 과제가 수미산만큼 쌓여 있다. 불교계 학회들이 시대흐름을 누구보다 빨리 읽고 체질변화를 위해 과감하게 인습을 버리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철저하게 개인지도 받는것과 동일한
역학(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디브이디) 출시 - 궁중비법 -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한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며 필기하고 보충자료와 책자를 숙지하면 됩니다.
사주명식을 작성하는 즉시 확실하고 선명하게 운명이 보입니다. - 그래야 역학입니다 -
10만원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에 대하여 전혀 지식이 없는 초보자라도 아주 쉽게 배워지며 단기간에 훌륭하고 정확하게 달변으로 통변하며 운명감정을 할 수있는 능력이 얻어지는 그야말로 신비한 사주명리의 궁중비법입니다. 본 교재 저자인 저 백운성수는 조선조 9대 임금이신 성종대왕의 19대 후손으로서 옛날 종친들에게 비급으로 전해지며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던 궁중비법 사주명리학을 대(代)를 이어 정통으로 전수 받아 여러제자들에게 개인지도를 하여 현재는 국내외 400여명이 왕성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많은 스님들도 역학에 혜안이 열려 큰 명성을 얻고 중생제도의 방편으로 쓰이며 크게 불사를 이루십니다.
역학(사주, 신수, 궁합, 택일, 애정, 재운, 관재, 자녀운, 기타 모든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스승이나 책을 잘못 만나면 중도에 암흑의 망망 대해에 빠져서 평생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해도 모르겠다, 10년은 배워야 된다, 무지하게 어렵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이교재는 이런 불확실성을 확 씻어내는 제대로 된 스승입니다.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DVD에는 필자가 20여년간 국내외 수백명의 제자를 역학에 도통하도록 철저하게 개인지도 해온 그대로를 총 26부(26시간)에 가감없이 실전 사주풀이 다수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 동안 배움의 뜻은 있었으나 국내외 원거리사정, 수강순서 늦어짐, 고액의 수강료, 기존 업을 하는 관계로 알려짐이 부끄러움 등으로 기회를 기다리던 분들에겐 최고의 기회와 광명이 될 것입니다.
현재 본 DVD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산재한 스님, 보살님, 철학원을 운영 하시고 있지만 적중률이 낮아서 성업 안되는 분, 퇴직후 장래직업으로 역학을 하실분, 초심자, 순수연구자, 학생 등 다양한 부류인데 전부가 하나같이 찬사와 감사의 메시지나 전화를 해 주시고 정말 제대로 된 배움의 길을 선택한데 대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안도하고 행복해 합니다. 본 교재로 사주명리학을 완성하신 많은 분들이 이미 방문하셔서 대단한 감사를 표시하였으며 연하여 풍수지리학을 수강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본 저자도 이 DVD교재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진정한 역학적 개안이 그렇게 신속히 열려가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한글만 아시면 되며 학력과 관계없습니다. 쓰이는 한자는 22자이니 저절로 배워집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선택하세요. 아주쉽게 단기간에 완성하며 평생의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불교교리로 부터 시작되는 이론의 장엄한 전개는 당신을 견성에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하고 육바라밀 중 하나를 행하도록 지정해주는 당부로 운명감정이 끝이 나며 스스로와 친지들의 사주를 감정하면서 그 적중됨에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진가가 증명되었습니다. 발매 6개월만에 900여명이 본 교재로 공부하시고 반수 이상이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궁중비법입니다. 책임집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인터넷으로 공부합시다
- http://www.esaju84.co.kr
-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로 성수철학원 또는 대구철학원 을 입력해보세요.
- DVD 동영상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사주통달책임개인지도 예약 받습니다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 (국내외 제자 400명 왕성히 활동중)
-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30일 완성) 풍수지리(양택,음택)포함 (40일 완성)
- 한달만에 모든 것 완전 통달됨. 교육이수 후 월 최저 250만원 보장
- 전화감정 대환영(유료) 전형 합격자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회원은 특혜있음)

※ 전국 최대 회원양성 교육기관임 ※

- 남몰래 한달 공부하여 혜성과 같이 나타나십시오 -
개인지도 받으실 분 숙식하시며 쾌적하게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교재를 만나는 사람은 큰 복을 받습니다.
장인이 눈을 떠서 대광명을 보듯이 신속하고 틀림없는 역학적 개안에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감사전화를 수 없이 받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주문하십시요.

◆ 구입금액 : 일시불은 135만원, 할부가격은 150만원 (분납방법: 인도금 80만원, 한달후 40만원, 두달후 30만원)
◆ 계좌번호 : 농협 704-02-341067 (예금주 : 김금란)

사단 대 한 불 교 법인 사주명리 연구학회 추 명 사 백운 성수, 도영 합장
대구광역시 동구 중대동 450번지
전화 053)255-4784, 256-4784 / 휴대폰 018-531-2237, 011-9583-6161

# 능호도 없는 망국의 황제 부인 능에 함께 잠들다

## ㊿ 26대 고종과 명성황후 – 홍릉(2)

일본공사관 밀실에서는 미우라 공사, 스기무라 후카시(공사관 서기), 오카모토 류스노케(공사관부무관 겸 조선군부고문), 구스노세 사치히코(포병중좌) 등이 황후 시해에 관한 구체적인 음모를 확정했다. 이 시기 고종과 명성황후는 이러한 일본의 의도를 간파하고 있었다. 그리고 거처를 경복궁에서도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건청궁으로 옮겼다. 그리고 궁궐에 외국인이 있으면 그들의 눈을 의식해 일본이 함부로 위협을 가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경복궁 내에 서양식 건물을 짓고 외국인들이 머물게 했다. 이 서양관은 궁궐 수비 책임을 맡았던 몇몇 미국인과 유럽인들의 생활공간이었다. 명성황후 시해 사건도 그날 숙직이었던 외국인이 없었다면 일본의 만행은 감쪽같이 숨겨졌을 것이다.

고종과 명성황후는 친일세력인 훈련대를 해산시키고자 했다. 마침내 시해사건 하루 전 훈련대 해산 명령이 떨어진다.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미우라 공사는 작전명 '여우사냥'을 이틀 앞당겨 시행하게 된 것이다.

1895년 10월 8일 새벽 5시, 궁궐의 정문인 광화문에서 최초의 총성이 울린다. 이것이 신호탄이었다. 일본의 군인, 외교관, 언론인, 거류민 등 살기등등한 낭인(浪人)들로 구성된 암살단을 앞세운 일본 군대는 궁궐의 추성문(秋成門:북서문), 춘생문(春生門:북동문)으로 두 갈래로 나뉘어 공격한다.

궁궐 전방과 후방에서 예상치 못한 일제의 습격을 받자 궁궐은 아수라장이 됐다. 수비대는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약15분만에 일본군에 의해 장악됐다. 총성이 울린 시각으로부터 마무리되는 시간까지 불과 45분 걸렸다. 수비대가 순식간에 무너진 것은 그들이 일본식 훈련을 받고 일제와 내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애초부터 싸울 생각이 없던 세력이었던 것이다.

궁궐문을 뚫고 들어온 일본군대가 찾은 곳은 건청궁(乾淸宮)이었다. 평소 일본의 위협을 느낀 고종과 명성황후는 궁궐의 가장 깊숙한 건청궁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건청궁의 서편에는 고종의 침전인 장안당이, 황후의 침전인 옥호루는 그 동쪽에 있었다. 곧 이어 40~50명의 일본인 패거리들이 곤령합(坤寧閤:玉壺樓)을 에워싸고 황후 수색에 혈안이 됐다. 명성황후가 시해 된 장소가 바로 옥호루다.

1895년 을미년 10월 8일 새벽, 경복궁에 난입한 일제 낭인들은 조선의 국모 명성황후를 강간한 후 처참하게 시해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참담한 만행을 저지른다. 이 사태는 인간으로서, 아니 국가로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천인공노할 사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라는 나라는 오늘날까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 일본과 무관한 사태라고 발뺌하고 있다.

그러나 박종효 前 교수(모스크바대)가 1995년 러시아 외무부 문서보관소 소속 제정러시아 대외정책국에서 명성황후 시해사건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기록해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에게 보고한 문서를 찾아내 이를 공개했다. 그리고 2001년 11월 KBS는 이를 역사스페셜을 통하여 방송함으로써 명성황후 시해사건 전말은 낱낱이 밝혀지게 됐다.

이 문서는 당시 카를 이바노비치 웨베르(Karl I .Waeber) 주조선 러시아 대리공사가 명성황후 시해사건의 전말을 기록한 A4 용지 무려 300장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다. 이 보고서에는 사건 발생 직후 고종이 발표한 성명서, 前 대한제국 러시아 공사 이범진(李範晉), 당시 궁정경비대 부령이었던 이학균(李學均), 한상궁, 사건 현장을 직접 목격한 러시아인 건축기사 세르진 사바틴(A.J.Scredin Sabatine) 등 당시 궁내에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록, 주한 외교 공사들의 회의록과 당시 신문자료 등 다각도의 정보와 증거 자료가 첨부됐다.

웨베르는 이 보고서에서 황후의 최후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면서 일제가 명성황후를 시해 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일본 낭인들은 황후마마가 복도로 달아나자 뒤쫓아가 바닥에 쓰러뜨리고, 가슴 위로 뛰어 올라 세 번 짓밟고 칼로 시해했다. 몇 분 후 시신을 소나무 숲으로 끌고 갔으며 얼마 후 그 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다'고 적고 있다.

이 보고서는 시해 현장에서 일본 행동대와 맞닥뜨린 건축기사 사바틴의 중요한 증언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그들은 내말은 듣지도 않고 황후가 어디 있는지, 황후가 누구인지 만 물었다' 즉 시해범들은 황후 찾기에만 혈안이 돼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총칼로 무장한 일본 낭인들은 황후를 찾으려고 황제의 침전에 쳐들어온 것을 꾸짖는 고종의 어깨에 무례하게 손을 얹어 폭행하고 주저앉혀 고종의 어의(御衣)가 찢겼고, 태자의 상투를 잡아당겨 방바닥에 내팽개치고 칼등으로 목줄기를 후려치는 행패를 부려 의식을 잃게 했다.

특히 고종이 목격한 증언서에는 칼을 들고 황제의 내실에 침입한 낭인들의 이름을 거명했다. '짐의 눈앞에서 일본인들, 오카모토 류노스케와 前 조선 군부의 고문 스즈끼, 와타나베가 칼을 빼 들고 궁궐로 쳐들어 왔고 조선 군부대신 고문관을 지낸 오카모토와 스즈끼가 황후를 잡으러 나갔다라고 진술하다 말고 실신했다'라고 보고서에는 기록하고 있다. 일제 낭인들이 황후를 잡겠다고 나간 뒤에도 고종은 황후가 무사할 것으로 믿었던 것 같다. 황제의 처소에 일본군 침입 사실을 알리러 달려간 이학균 연대장이 '황후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라고 묻자 고종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황후는 지금 안전한 장소에 있다.' 그러나 그 시간 황후의 처소인 옥호루에서는 이미 참담한 학살극이 벌어지고 있었다.

한 상궁은 이렇게 증언했다. '왜인들이 황후와 궁녀들이 있는 방으로 들이닥쳤다. 일본군은 궁녀들을 밀치며 황후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고, 우리는 입을 모아 여기에 황후는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왜인들은 (옥호루) 아래로 궁녀들을 집어 던졌다. 이 때 황후가 복도로 도망쳤고, 한 왜인이 황후를 따라잡는 데 성공했다. 그는 황후를 마룻바닥에 넘어뜨리고 가슴을 발로 세 번 짓밟았다. 그리고는 칼로 가슴을 내리 찔렀다.'


보존이 잘 된 홍릉 제실.

### 웨베르 러 공사 보고서로 명성황후 시해 전말 밝혀져
### 강간·살해 후 불태워… 숙릉에 안치·홍릉으로 천장

사바틴은 보고서에 이렇게 진술하고 있다. '새벽 5시경 궁정 서쪽에서 총소리가 들려 황후의 처소로 급히 가니 25명가량의 일본 낭인들이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 그 중 절반가량이 황후의 방으로 들어갔다. 내가 뜰에 서 있는 동안 일본인들은 10~12명가량 되는 여인들의 머리채를 끌고 와 창문 너머 마당으로 이들을 내던졌다. 창문의 높이는 6피트(1m80cm)쯤 되는 듯했다. 마당에 나뒹구는 여인들은 아무도 신음소리나 고함소리를 내지 않았다.'

'일본 낭인들이 황후가 있는 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궁내 신하(궁내부 대신 이경직)들이 막자 칼로 팔을 베어 버렸다. 황후가 상궁 옷을 입고 상궁 무리 안에 섞여있어 누가 황후인지 알아볼 수 없게 되자 일본 낭인들은 한 명씩 끌어내 2.5m 높이에서 아래로 떨어뜨렸다. 두 명이 떨어진 뒤 황후가 복도를 따라 도망갔고 일본 낭인들이 쫓아가 발을 걸어 넘어뜨린 뒤 가슴을 세 번 짓밟고 칼로 가슴을 난자했다. 몇 분 후 시신을 소나무 숲으로 끌고 갔으며 얼마 후 그 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다.' 이상은 웨베르가 전해들은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기술한 것들이다.

그러나 낭인 속에서 직접 목격한 일본인 에조가 일본 본국에 보고한 <에조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특히 무리들은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왕비를 끌어내어 두세 군데 칼로 상처를 입혔다(處刃傷). 나아가 왕비를 발가벗긴(裸體) 후 국부검사(局部檢査)(웃을(笑) 일이다. 또한 노할(怒) 일이다)를 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기름(油)을 부어 소실(燒失) 시키는 등 차마 이를 글(筆)로 옮기기조차 어렵도다. 그 외에 궁내부 대신을 참혹한 방법으로 살해(殺害)했다.' 이것은 낭인들이 명성황후를 발견하고 강간 후 살해했다는 것을 말한다. 전율할 일이다. 역사는 이것을 을미사변이라 부른다. 이 사건을 저지른 일본은 고종으로 하여금 폐위해 서인(庶人)으로 전락시키도록 강요했다.

총명했던 여인, 시아버지와 정적이었던 여인, 책략과 수완이 능란했던 여인은 그해 10월 10일, 신원(伸寃)돼 태원전에 빈전이 설치되고 국장에 의해 숙릉에 안치됐다. 1897년 대한제국 수립 선포 후 민비는 명성황후로 추존됐다. 그해 11월 21일, 능을 오늘날의 청량리 천장산 아래로 이장해 능호를 홍릉이라 했다. 고종은 홍릉에 잠든 명성황후를 보러가기 위해 종로에서 청량리까지 전찻길을 놓기도 했으나 홍릉이 길지가 아니라는 풍수설이 대두돼 천장론이 일었다.

1919년 고종이 승하하자 남양주시 금곡에 능역을 잡고 산역을 시작했다. 같은 시각 청량리 홍릉에서도 능을 파기 시작했다. 2월 16일 명성황후가 먼저 금곡으로 이장됐다. 3월 4일 전날 발인한 고종은 명성황후와 합장됐다. 그들은 21년 만에 지하에 함께 잠들었다. 망국의 황제는 능호도 없다. 홍릉은 부인 명성황후의 능호이다. 글=이우상(소설가 asdfsang@hanmail.net)
사진=최진연(사진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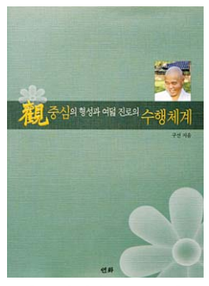

구선스님과 함께하는 치유명상
- 일정 : 매주 4박 5일 (1회 20명 한정)
- 대상 : 여름에도 추우신 분, 겨울이 너무너무 싫으신 분, 손발이 찬 분, 감기 자주 걸리시는 분, 상기병, 그 밖에 각종 면역성 질환에 시달리시는 분.
- 문의 : 010-4589-1897
- 치유명상의 특징과 효과 : 자음원리명상과 식이요법을 병행,냉기제거와 장부순화, 신경순화와 치매 중풍예방, 우울증 스트레스해소, 면역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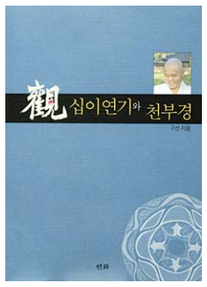
※ 뼈 속에 박힌 냉기까지 남김없이 뽑아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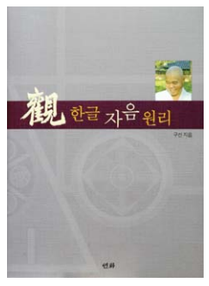
12연기만다라 및 한글자음만다라 전시회
- 일정 : 2008년 12월 5일 - 11일(목요일)
- 장소 : 법련사 ( 서울 종로구 사간동 121-1 / 02-733-5322)

한명글상원리원
- 본원 : 서울 서초구 방배동 836-3 / 070-8104-8145. 010-2655-8145
- 산본지원 : 군포시 산본동 1061-1번지 현대아카데미상가 401호 사암아침한의원내
- 동대문지원 :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962번지 3층 동천선원 / 070-8247-8152, 010-8004-4678
- 대전지원 : 대전시 서구 탄방동 702번지 한빛빌딩 3층 청심연찻집 / 011-658-9817
- 보령지원 : 충남 보령시 미산면 봉성리 392-2 대명암 / 010-9948-6325
- 연화사 : 경북 영양군 수비면 수하리 887-2번지 / 010-2655-8145


觀 쉴 줄 아는 지혜
'관' 수련의 목적은 자기를 아는 데 있다. 자기를 안다는 것은 자기 근본과 자기 면모, 그리고 자기 존재 목적을 아는 것이다. 자기 근본이란 자기의 식이 비롯되는 자리를 말한다. 자기 면모란 자기를 이루고 있는 의식체계를 말한다. 자기 존재 목적이란 세상 속에서의 자기 역할을 말한다.
■ 상세내용 :
반야심경을 관의 심지법에 입각해서 해석한 책. 조견의 법과 오온의 발현법, 개공의 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견성 이후의 수행법에 대해 상세하게 다루었다.
[구선지음 / 368쪽]


觀 중심의 형성과 여덟 진로의 수행체계
수행자가 한 경계를 대할 때는 여덟 가지 진로로 그 나아갈 바를 삼을 줄 알아야 한다. 무엇을 일러 여덟 가지 진로라 말하는가?
첫째는 자기 중심을 통해 조견을 행하는 일이다. 둘째는 자기 근본의 일이다. 셋째는 자기 면모의 일이다. 넷째는 각성을 증득하는 일이다. 다섯째는 자기 존재목적을 실현하는 일이다. 여섯째는 좀 더넓은 교류성을 갖추는 것이다. 일곱째는 자기 인식의 틀을 넓히는 것이다. 여덟째는 자기를 제도하는 것이다.
■ 상세내용 :
대승의 삼관법에 입각해서 견성오도에 이르는 법을 제시. 용수로부터 전해진 대승불교의 수행체계를 여덟 진로에 입각해서 아홉 단계로 구분해 놓았다. 특히 중관을 통해 선정을 얻는 법과 공관을 통해 삼매를 얻는 법, 가관을 통해 자기면모를 개발하는 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구선지음 / 312쪽]


觀 십이연기와 천부경
생명에게 무명의 원인이 되었던 것은 밝은 성품이 일으키는 행의 현상과 심식의, 그리고 밖의 경계이다. 만약 생명이 그런 조건 속에 있으면서도 본성을 망각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밝음을 얻은 것이다. -「십이연기」 중에서
생명이여 당당하라. 그리고 일체 생명을 평등하게 보아라. 저는 나의 심식의에 심어지고 나는 저의 심식의에 심어지나니 경건하고 정중하게 뭇 생명을 바라보라. -「천부경」 중에서-
■ 상세내용 :
생명이 최초로 시발되는 과정과 육체의 의식을 형성하는 과정, 그리고 생명이 그 존재성을 완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
십이연기법과 천부경은 그 내용 속에 서로 부족한 것을 메꾸어 줄 수 있는 상호보완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 이 책은 십이연기와 천부경에 관한 내용을 다루며 두 사상의 닮은 꼴을 살피고 그 속에 숨어 있는 깊은 뜻을 상세하게 다루었다.
[구선지음 / 376쪽]


觀 한글 자음 원리
문자는 자기의식을 담는 그릇이요, 사상을 담는 그릇이다.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심성이 달라진다. 부드러운 말, 좋은 말을 쓰는 이는 유순해지고 심성이 고와지며 거친 말, 격한 말을 쓰는 이는 심성이 거칠어진다. 처음에 한글을 만들 때부터 이런 효과를 알고 만들었다. 한글은 철학적, 사상적 체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체계를 일깨워서 오장의 혼성을 활용하는 법이 들어 있다. 그래서 가장 상위의 문자체계이다. 가장 안정된 신경체계, 가장 안정된 경락체계, 가장 안정된 장부체계를 갖추어서 머릿골 속에서 본성을 회복하는 것이 한글 자음 수련의 목적이다.
■ 상세내용 :
한글 자음원리를 통해 생명이 자기완성에 이르는 법을 제시.
한글 자음원리란 십이연기의 과정 중, 행의 과정에서 일어난 변화를 자음을 통해 표현한 것이다. 자음원리란 행의 원리이면서 수행의 방편이다. 자음원리를 통해 수행하게 되면 생멸문의 연기에서 벗어나 진여문에 들어가게 된다.
[구선지음 / 256쪽]

구입문의 : 연화출판사 010-4589-1897